

삼국연의

三國演義 · 모종강본

제5권 (제49회 ~ 제60회)

나관중 (羅貫中, 약 1330-1400)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2

책 정보

원전

나관중 『삼국연의(三國演義)』 모종강본(毛宗崗本, 1660년대 청대),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三國演義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2

번역 정책

- 인명·지명·관직은 한국 한자음(劉備 → 유비, 涿郡 → 탁군)

- 자·호·별명은 본명으로 통일(玄德 → 유비, 翼德 → 장비, 雲長 → 관우)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 "且說" → "한편"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49회 — 칠성단에서 제갈량이 바람을 빌고, 삼강구에서 주유가 불을 지르다	6
제50회 — 제갈량이 지혜로 화용도를 계산하고, 관운장이 의리로 조조를 놓아주다	27
제51회 — 조인이 동오의 군사와 크게 싸우고, 공명이 기세로 주공근을 압도하다	42
제52회 — 제갈량이 지혜로 노숙을 떠나보내고, 조자룡이 계책을 써서 계양을 취하다	59
제53회 — 관운장이 의리로 황한승을 풀어주고, 손중모가 장문원과 크게 싸우다	76
제54회 — 오국태가 불사에서 신랑을 보고, 유허숙이 동방에서 좋은 인연을 맺다	93
제55회 — 현덕이 지혜로 손부인을 격분시키고, 공명이 두 번에 걸쳐 주공근을 분노하게 하다	114
제56회 — 조조가 동작대에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공명이 주공근을 세 번 기를 꺾다	130
제57회 — 시상구에서 와룡이 상을 애도하고, 퇴양현에서 봉추가 일을 도모하다	148
제58회 — 마맹기가 군사를 일으켜 원한을 갚고, 조아만이 수염을 자르고 도포를 버리다	171

제59회 — 허저가 옷을 벗고 마초와 싸우고, 조조가 글자를 지워 한수를 구하다	191
제60회 — 장영년이 양수를 논박하고, 방사원이 서촉을 취할 것을 논하다	212

제49회 — 칠성단에서 제갈량이 바람을 빌고, 삼강구에서 주유가 불을 지르다

七星壇諸葛祭風 三江口周瑜縱火

한편, 주유는 산 정상에 서서 한참 동안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뒤로 쓰러지며 선혈을 내뿜고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좌우의 부하들이 서둘러 그를 군막 안으로 옮겨 구했다. 여러 장수들이 달려와 문병하며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장수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말했다. "강북에는 백만 대군이 호랑이처럼 웅크리고 고래처럼 삼킬 듯이 버티고 있는데, 도둑께서 이 지경이 되시다니, 만약 조조의 군사가 들이닥치면 대체 어찌한단 말인가?" 그들은 황급히 사람을 보내 손권에 게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의원을 불러 치료를 구했다.

한편, 노숙은 주유가 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답답하여 제갈량을 찾아가 주유가 갑자기 병이 난 사정을 이야기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숙이 대답했다. "이것은 조조에게는 복이요, 강동에는 재앙입니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주유의 병은 나도 고칠 수 있네."

노숙이 말했다. "정말 그렇다면 국가에 큰 다행이겠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제갈량을 모시고 주유의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노숙이 먼저 들어가 주유를 살펴보니, 주유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쓴 채 누워 있었다.

노숙이 물었다. "도독, 병세가 어떠신가?"

주유가 대답했다. "속이 뒤틀리듯 아프고, 때때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네."

노숙이 다시 물었다. "그동안 어떤 약을 먹었는가?"

주유가 말했다. "속이 계속 메스껍고 울렁거려서 약을 도저히 삼킬 수가 없네."

노숙이 말했다. "방금 제갈량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 그가 도독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군. 지금 막사 밖에 와 있으니, 부디 와서 치료해 주었으면 좋겠네. 어떻겠는가?"

주유가 들어오라고 명령하자, 제갈량은 좌우의 부하들에게 주유를 부축해 침상에 앉히도록 일렀다. 제갈량이 말했다.

"며칠 동안 뵙지 못했는데, 어찌 이리 몸이 좋지 않으십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사람의 화와 복은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법이니, 어찌 스스로 몸을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하늘의 구름이 어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듯, 사람의 일 또한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유는 이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하며 신음 소리를 냈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도독님, 혹시 마음속에 답답함이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주유가 말했다.

"그렇소."

제갈량이 말했다.

"반드시 서늘한 약을 써서 그 답답함을 풀어내야 합니다."

주유가 말했다.

"이미 서늘한 약을 먹어 보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소."

제갈량이 말했다.

"먼저 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기가 순조로워지면 숨을 쉬는 사이 자연히 나올 것입니다."

주유는 제갈량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으리라 짐작하고, 말을 건네며 슬쩍 떠보았다. "기운을 다스리려면 어떤 약을 먹어야 하겠소?"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제게 방법이 하나 있으니, 곧 도독님의 기운을 다스려 드리겠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선생께서 부디 가르침을 주시오." 제갈량은 종이와 붓을 찾더니 곁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는 종이에 열여섯 글자를 비밀스럽게 적었다. '조조를 깨뜨리려면 화공을 써야 하니,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나 오직 동남풍이 부족하다.' 글을 다 쓴 제갈량이 주유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이 도독님의 병이 생긴 근원입니다."

주유는 제갈량을 보자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제갈량은 정말 신인과 같구나! 내 속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다니! 그저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겠다.'

주유는 웃으며 말했다. "선생께서 이미 내 병의 원인을 아셨으니, 어떤 약으로 고쳐 주시겠습니까? 상황이 매우 급박하니 부디 가르침을 내려 주십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비록 재주가 부족하나, 예전에 기이한 사람을 만나 바람과 비를 부를 수 있는 기문둔갑의 천서를 전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도독께서 동남풍이 필요하시다면, 남병산에 '칠성단'이라는 제단을 하나 세우십시오. 높이는 아홉 자로 하고 세 층으로 만들며, 백이십 명의 사람을 배치해 깃발을 들고 주위를 에워싸게 하십시오."

오. 제가 그 제단 위에서 법술을 부려 사흘 밤낮 동안 동남풍을 빌려올 테니, 이를 도둑의 군사 작전에 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사흘 밤낮은커녕, 단 하룻밤만 큰 바람이 불어도 대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이 눈앞에 닥친 만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다면 11월 20일 갑자일에 바람을 빌리는 제사를 지내고, 22일 병인일에 바람이 멎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주유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활기차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즉시 명령을 내려 정예 병사 500명을 남병산으로 보내 제단을 쌓게 하고, 120명을 따로 뽑아 깃발을 들고 제단을 지키며 명령을 기다리게 했다.

제갈량이 작별을 고하고 장막을 나서자, 노숙과 함께 말을 타고 남병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지세를 살핀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동남쪽의 붉은 흙을 가져오게 하여 제단을 쌓게 했다. 제단의 크기는 가로세로가 각각 24장이었으며, 한 층의 높이는 3척씩 총 9척 높이로 쌓아 올렸다.

첫 번째 층에는 28수(宿)를 상징하는 깃발들을 꽂았다. 동쪽에는 각, 항, 저, 방, 심, 미, 기를 따라 청색 깃발 7개를 배치하여 청룡의 형상을 만들었고, 북쪽에는 두, 우, 여, 허, 위, 실, 벽을 따라 흑색 깃발 7개를 세워 현무의 기세를 갖추었다. 서쪽에는 규, 루, 주, 묘, 필, 자, 참을 따라 백색 깃발 7개를 배치해 백호의 위엄을 드러냈으며, 남쪽에는 정, 귀, 유, 성, 장, 익, 진을 따라 홍색 깃발 7개를 세워 주작의 모습

을 완성했다. 두 번째 층 주위에는 64괘에 맞추어 황색 깃발 64개를 여덟 방향으로 나누어 세웠다.

가장 높은 층에는 네 사람이 올라갔다. 이들은 모두 머리를 묶는 관을 쓰고 검은 비단 도포에 봉황 무늬가 새겨진 옷과 넓은 띠를 둘렀으며, 붉은 신발에 끝이 넓은 옷을 입었다. 앞 왼쪽에는 한 사람이 긴 장대를 들고 서 있었는데, 장대 끝에는 닭의 깃털을 달아 바람의 기운을 살피게 했고, 앞 오른쪽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칠성 무늬가 새겨진 띠를 매단 장대를 들고 서서 바람의 색깔을 나타내게 했다. 뒤 왼쪽에는 한 사람이 보검을 받들고 있었으며, 뒤 오른쪽에는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고 있었다. 제단 아래에는 24명의 군사가 깃발과 보개, 대극, 장과, 황모, 백로, 주변, 조현 등을 들고 사방을 에워싸며 지키고 있었다.

제갈량은 11월 20일 갑자일의 길한 날을 맞아, 몸을 깨끗이 씻고 재계하며 도사의 옷을 입고 맨발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제단 앞에 나타났다. 그는 노숙에게 이렇게 일렀다. "노숙은 지금 즉시 군영으로 가서 주유를 도와 병력을 조절하십시오. 만약 제가 빌은 기도가 응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노숙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자, 제갈량은 제단을 지키는 장수와 병사들에게 엄중히 명령했다. "누구도 함부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것도 안 되며, 입을 잘못 놀려 헛소문을 퍼뜨려서도 안 된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괴상한 소리를 내어 분위기를 흐리는 것도 금한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즉시 참수하겠다!" 병사들이 모두 명을 받들자, 제갈량은 천천히 제단에 올라 방위가 제대로 정해졌는지 살핀 뒤 향로에 향을 피우고 대접에 물을 부은 다음, 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간절

히 빌었다. 제갈량은 제단에서 내려와 막사로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며 군사들이 교대로 식사하게 했다. 제갈량은 하루에 세 번 제단에 올라가고 세 번 내려왔으나, 동남풍은 좀처럼 불어오지 않았다.

한편, 주유는 정보와 노숙을 비롯한 장수들을 막사로 불러 모아 대기하게 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즉시 군사를 움직여 출정할 준비를 마친 뒤, 손권에게도 상황을 보고하여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황개는 이미 스무 척의 화선(불을 붙여 공격하는 배)을 준비해 두었다. 배 앞머리에는 커다란 못을 뿔뿔하게 박고, 배 안에는 마른 갈대와 땀감을 가득 채운 뒤 물고기 기름을 부었다. 그 위에는 유황과 초석 등 불이 잘 붙는 물질을 얹고 푸른 천으로 기름을 적셔 덮어 두었다. 배 앞머리에는 청룡 깃발을 꽂고, 배 뒷부분에는 다른 배를 끌 수 있도록 줄을 매달아 두었다. 황개는 막사 아래에서 주유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감녕과 감택은 채화와 채중을 수채 안에 붙들어 두고 매일 술을 마시게 하며, 병졸 한 명도 강기슭에 오르지 못하게 했다. 그 주변은 온통 오나라 군사들로 가득 차 물샐틈없이 에워싸고 있었으니, 오직 본영에서 명령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유가 막 장막 안에서 회의를 하던 중, 첩자가 달려와 보고했다. "손권의 배들이 진영에서 85리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으며, 도독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유는 즉시 노숙을 시켜 모든 부하 관리와 군사, 장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표하게 했다. "모두 배와 무기, 돛과 노 등을 빈틈없이 정비하라. 명령이 떨어지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즉각 시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거나 실수하는 자가 있다면 즉시 군법에 따라 다스릴 것이다."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저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전투를 준비하느라 의욕에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이 깊어가자 하늘은 맑고 깨끗했으며, 미풍조차 불지 않아 고요했다. 주유가 노숙에게 말했다. "제갈량의 말은 틀렸소. 한겨울에 어떻게 동남풍이 불 수 있단 말ियो?" 노숙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 제갈량의 말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경(새벽 1시~3시 사이) 무렵이 되었을 때, 갑자기 바람 소리가 울리더니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했다. 주유가 막사 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깃발이 북서쪽을 향해 펄럭이더니 순식간에 동남풍이 세차게 불어닥쳤다. 주유가 깜짝 놀라 외쳤다. "저 자는 천지의 조화를 빼앗고 귀신의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술법을 부리는구나! 저 자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오나라에 재앙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죽여서 훗날의 근심을 없애야겠다."

주유는 즉시 막사 앞의 호군교위 정봉과 서성 두 장수를 급히 불러 명령했다. "각자 백 명씩 거느리고 나가라. 서성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가고, 정봉은 육로를 통해 남병산 칠성단 앞으로 가라. 상황을 따지지 말고 즉시 제갈량을 붙잡아 목을 베어 오너라. 그러면 공을 치하하겠다."

두 장수가 명을 받들었다. 서성이 배를 타고 내려가자 백 명의 도끼병이 노를 저어 나아갔고, 정봉이 말을 타고 나서자 백 명의 궁수들이

말을 달려 남병산으로 향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마침 동남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후대에 이르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칠성단 위에 와룡이 오르니, 하룻밤 동남풍에 강물이 솟구치네. 제갈량이 묘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주유가 어찌 그 재능을 펼칠 수 있었으랴?"

정봉의 마군이 먼저 도착하니, 제단 위에서 깃발을 든 장수와 병사들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정봉은 말에서 내려 칼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갔으나 제갈량이 보이지 않자, 제단을 지키던 장수들에게 다급히 물었다.

"제갈량은 어디 있느냐?"

장수가 대답했다.

"방금 제단을 내려갔습니다."

정봉이 급히 제단을 내려와 제갈량을 찾고 있을 때, 서성의 배가 이미 도착했다. 두 사람은 강가에서 만났다. 그때 졸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어젯밤에 빠른 배 한 척이 앞물목에 정박해 있었는데, 방금 제갈량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그 배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는 이미 상류로 떠나갔습니다!"

정봉과 서성은 즉시 수로와 육로로 나누어 추격에 나섰다. 서성은 돛을 모두 올리고 바람을 타고 빠르게 나아가게 했다. 멀리 앞서가는 배가 멀지 않은 곳에 보이자, 서성이 배 머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군사님, 가지 마십시오! 도둑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배 뒷머리에 서서 크게 웃으며 말했다.

"도둑께 아뢰노니, 부디 군사를 잘 운용하십시오. 제갈량은 잠시 하구로 돌아가니, 훗날 다시 뵙겠습니다."

서성이 다시 외쳤다.

"잠시만 머물러 주십시오! 드릴 긴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도둑께서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해치려 할 것임을 이미 예상하고, 미리 조운을 보내 마중 나오게 했습니다. 장군은 더 이상 쫓아오지 마십시오."

서성이 앞서가는 배에 덮개가 없는 것을 보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갔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 조운이 활을 잡고 화살을 메운 채 배 뒷부분에 서서 크게 외쳤다.

"나는 상산의 조운이다! 명령을 받들어 특별히 군사를 맞이하러 왔다. 네가 어찌 감히 뒤쫓아오는 것이냐? 화살 한 대를 쏘아 너를 죽여

버리면 양쪽의 화목을 깨뜨리는 꼴이 될 테니, 내 수단이 어떠한지 똑똑히 보여주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살이 날아가 서성의 배 위에 있는 덮개 밧줄을 끊어버렸다. 그러자 덮개가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배가 옆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사이 조운은 자기 배의 돛을 높이 끌어올려 순풍을 타고 떠나갔다. 조운의 배는 날아갈 듯 빠르게 움직여 서성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한편, 강가에 있던 정봉이 서성을 불러 배를 해안 가까이 대게 하며 말했다. "제갈량의 신묘한 계책은 참으로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군. 게다가 조운은 만 명의 적도 당해낼 수 없는 용맹을 갖추었으니 말이야. 자네는 그가 당양 장판파에서 보여준 위력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그저 돌아가 보고하면 그만이네."

두 사람은 곧장 주유에게 돌아가, 제갈량이 미리 조운과 약속하여 마중 나가게 했다고 보고했다. 주유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그자가 이토록 꾀가 많으니, 내가 밤낮으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그러자 노숙이 말했다. "우선 조조를 격파한 뒤에 다시 도모하도록 합시다."

주유는 제갈량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다.

먼저 감녕을 불러 다음과 같이 일렀다. "채중과 항복해 온 병사들을 데리고 남쪽 해안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라. 북군(조조군)의 깃발을 내

걸고 곧장 조조가 군량을 쌓아둔 오림 땅으로 진격하라. 적진 깊숙이 침투하면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라. 다만 채화 한 사람만 내 막사 아래에 남겨 두어라. 내가 따로 쓸 일이 있다."

다음으로 태사자를 불러 분부했다. "그대는 병사 삼천을 거느리고 곧장 황주 지역으로 달려가라. 조조와 합비 사이를 잇는 지원군을 차단하고 조조의 군사를 압박한 뒤,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라. 붉은 깃발이 보이면 손권의 지원군이 도착했다는 뜻이다."

이 두 부대가 가장 먼저 출발했다.

세 번째로 여몽에게 병사 삼천을 주어, 감녕이 조조의 진영을 불태울 때 오림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네 번째로 능통에게 병사 삼천을 주어, 오림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는 즉시 이릉 경계로 달려가 군사를 움직여 응답하게 했다.

다섯 번째로 동습에게 병사 삼천을 주어 한양을 직공하게 했다. 한천을 거쳐 조조의 진영으로 맹렬히 돌격하게 한 뒤, 백기가 올라가면 지원하라고 했다.

여섯 번째로 판장에게 병사 삼천을 주어, 백기를 높이 들고 한양으로 달려가 동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여섯 부대의 군마는 각기 다른 길로 흩어져 나갔다. 그사이 황개에게는 불을 붙인 화선(火船)을 준비하게 하고, 병사들을 보내 조조에게 오늘 밤 항복하겠다는 서신을 보내도록 했다. 한편, 황개의 배 뒤를 받

처줄 전선 네 척을 배정하여 뒤따르게 했다. 첫 번째 부대의 지휘관은 한당, 두 번째는 주태, 세 번째는 장흠, 네 번째는 진무였다. 이 네 부대는 각각 전선 300척씩을 이끌었으며, 부대 앞쪽에는 각각 20척의 화선을 배치했다. 주유는 정보와 함께 커다란 대형 전선 위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했고, 서성과 정봉이 좌우에서 호위했다. 노숙과 감택을 비롯한 여러 책사만이 진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다. 정보는 주유의 군대 운용 방식이 매우 체계적인 것을 보고 깊이 감탄하며 존경을 표했다.

한편, 손권은 전령을 보내 군사 신표를 전달하며, 이미 육손을 선봉으로 삼아 기(蘄)와 황(黃) 땅까지 진격하게 하고 자신은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주유는 또한 사람을 보내 서산에 화포를 배치하고 남병산에는 깃발을 올리게 했다. 모든 군사가 각자 준비를 마친 채, 오직 해가 저물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양쪽에서 전개된다. 한편, 유비는 하구에서 제갈량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배 한 척이 다가오는데, 바로 유기였다. 유기는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다. 유비는 유기를 적루로 모셔 앉히고는 말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지 꽤 되었는데, 조운을 보내 제갈량을 데려오라 한 뒤로 아직 소식이 없으니 내 마음이 몹시 불안하구려."

그때 한 병사가 멀리 번구항 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돛 하나를 단 작은 배가 바람을 타고 오고 있습니다. 필시 군사일 것입니다!"

유비와 유기는 배 아래로 내려가 마중을 나갔다. 잠시 후 제갈량과 조운이 상륙하자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안부를 물었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다른 일을 말씀드릴 겨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던 군마와 전선들은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준비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군사께서 부르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 유기와 함께 막사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더니, 조운에게 말했다. "조운은 군사 삼천 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오림의 셋길로 곧장 가시오. 나무와 갈대가 무성한 곳을 골라 매복을 설치해야 하오. 오늘 밤 사경(새벽 1~3시 사이)이 지나면 조조는 반드시 그 길로 달려올 것이오. 조조의 군마가 지나갈 때쯤 길 한복판에서 불을 지르시오. 비록 적을 몰살하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은 해치울 수 있을 것이오."

조운이 물었다. "오림에는 길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군으로 통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형주로 통하는 길입니다. 조조가 어느 길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갈량이 대답했다. "남군은 상황이 긴박하여 조조가 감히 가지 못할 것이오. 반드시 형주로 왔다가 대군을 이끌고 허창으로 돌아갈 것이오."

제갈량은 계책을 전하러 떠났다. 그러고는 다시 장비를 불러 말했다. "장비는 군사 삼천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 이릉으로 통하는 길을 끊고, 호로곡 입구에 매복하십시오. 조조는 남이릉 쪽으로는 감히 오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북이릉 쪽으로 오려 할 것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분명히 술을 걸고 밥을 지으려 할 테니,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바로 산기슭에 불을 지르십시오. 비록 조조를 직접 잡지는 못하더라도, 이번에 장비가 세울 공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장비는 계책을 받들어 물러갔다. 이어 미축, 미방, 유봉 세 사람을 불러 각각 배를 몰게 하여, 강을 돌며 패잔병을 소탕하고 무기를 탈취하도록 명했다. 세 사람도 계책을 받들어 떠났다.

제갈량이 일어나 유기에게 말했다. "무창은 멀리 바라보이는 요충지이니 매우 중요합니다. 공자께서는 지금 바로 돌아가셔서 부하들을 이끌고 강가에 진을 치십시오. 조조가 패배하면 반드시 도망쳐 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 그들을 즉시 잡아들이되 성곽을 가볍게 비워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기가 유비에게 작별을 고하자 제갈량도 자리를 떴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주공께서는 번구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며, 오늘 밤 주유가 큰 공을 세우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때 관우가 곁에 있었으나, 제갈량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관우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형님을 따라 전장을 누빈 지 수년이 되었으나, 단 한 번도 뒤흔진 적이 없소. 그런데 오늘처럼 큰 적

을 만난 상황에서 군사께서 나를 쓰지 않으려 하시니,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이요?"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관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오! 본래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맡기려 했으나, 사정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 차마 명령을 내리지 못했소."

관우가 물었다. "무슨 사정이 있다는 말이요? 부디 즉시 일러 주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예전에 조조가 그대에게 매우 후하게 대접했으니, 그대 또한 그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소? 오늘 조조가 군사를 잃고 패하여 반드시 화용도로 도망칠 것이요. 만약 그대를 그곳으로 보낸다면, 그대는 분명 조조를 놓아줄 것이 아니요? 그래서 차마 그대를 보낼 수가 없었소."

관우가 말했다. "군사께서 너무 마음을 쓰시는군요! 지난날 조조가 저를 극진히 대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안량을 베고 문추를 죽여 백마의 포위를 풀었으니, 그에게 큰 은혜를 갚은 셈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주쳤는데 어찌 쉽게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제갈량이 물었다. "만약 그를 놓아준다면 그다음엔 어찌시렵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군법에 따르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렇다면 군령장을 작성하십시오."

관우는 즉시 군령장을 써서 바쳤다. 그러더니 관우가 다시 물었다.
"만약 조조가 그 길로 오지 않는다면 어찌합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저 또한 군령장을 써 드리겠습니다."

관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제갈량이 말을 이었다. "관우 장군께서는 화용도의 좁은 길목 중 높은 산등성이에 땔나무를 쌓아두고 불을 피워 연기를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조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관우가 의구심을 품고 물었다. "조조가 연기를 본다면 매복이 있음을 눈치챌 텐데, 어찌 기꺼이 그 길로 오겠습니까?"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병법에 허실(虛實)을 이용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조조가 비록 병법에 능하다 해도, 이 방법이라면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조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여겨, 반드시 이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관우는 명령을 받고 관평, 주창과 함께 오백 명의 칼을 든 정예병을 이끌고 화용도로 가서 매복했다. 유비가 말했다. "제 동생은 의리가 매우 깊으니, 만약 조조가 정말로 화용도로 도망친다면 틀림없이 그를 놓아주고 말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밤에 천문의 흐름을 살펴보니, 조조라는 도적놈은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닙니다. 관우에게 그에게 정을 베풀 기회를 주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일입니다."

유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선생의 신묘한 계산은 세상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경지입니다!"

말을 마친 제갈량은 유비와 함께 주유가 군사를 부리는 모습을 보러 번구로 향했고, 손건과 간웅을 남겨 성을 지키게 했다.

한편, 조조는 대영채에서 여러 장수와 함께 상의하며 황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그날 동남풍이 매우 거세게 불자, 정욱이 조조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오늘 동남풍이 거세게 부니, 미리 방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동지가 지나면 양기가 다시 살아나 돌아오는 법인데, 어찌 동남풍이 불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그때 군사가 급히 달려와 보고하기를, 강동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안에 황개의 밀서가 들어있다고 했다. 조조가 급히 사람을 불러들이자, 밀서를 가져온 이가 서찰을 올렸다. 서찰의 내용은 이러했다.

"주유가 방비를 엄중히 하고 있어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파양호로 새로 들어온 식량 배가 있는데, 주유가 저에게 순

찰을 맡겼으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동의 명장들을 죽여 그 머리를 바치며 항복하겠습니다. 오늘 밤 삼경에 배 위에 청룡 깃발을 꽂은 것이 바로 식량 배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여러 장수와 함께 수채의 큰 배로 나아가 황개의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한편 강동의 하늘이 저물어 갈 무렵, 주유는 채화를 불러내어 군사들에게 묶어놓게 했다. 채화가 "무죄입니다!"라고 외치자, 주유가 말했다. "네놈이 대체 누구길래 감히 항복하는 척 속이려 드느냐! 마침 제사를 지낼 제물이 부족하니, 네 목을 빌려 쓰겠다." 채화는 변명할 길 없이 크게 소리쳤다. "너희 집안의 감택과 감녕도 나와 함께 모의했었다!" 그러자 주유가 대답했다. "그들은 내가 시킨 일이다." 채화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주유는 채화를 강가에 있는 검은 깃발 아래로 끌고 가게 한 뒤, 술을 올리고 종이를 태우며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단칼에 채화를 베어 피로 제사를 마친 뒤 곧바로 배를 띄우게 했다. 황개는 세 번째 화선에 타고 있었는데,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만 걸친 채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 깃발에는 '선봉 황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황개는 순풍을 타고 적벽을 향해 나아갔다.

이때 동남풍이 거세게 불어오자 파도가 거칠게 일렁였다. 조조는 중앙군 진영에서 강 건너편을 멀리 바라보았다. 달빛이 강물을 비추니, 마치 만 마리의 금빛 뱀이 물결을 헤치며 노니는 듯했다. 조조는 바람을 맞으며 크게 웃으며 스스로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한 군사가 갑자기 가리키며 말했다. "강남 쪽에서 돛단배 무리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조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모두 청룡아 기를 쫓고 있구나. 그중 큰 깃발에는 선봉장 황개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보고했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황개가 항복하러 오다니, 이것은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로구나!"

배가 점점 가까워졌다. 정욱이 한참 동안 유심히 살펴보다니 조조에게 말했다. "저 배들은 분명 속임수입니다. 가까이 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조가 물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는가?" 정욱이 대답했다. "배에 식량을 실었다면 배가 묵직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배들을 보니 가볍고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은 동남풍도 세게 불고 있으니, 만약 저들이 속임수를 쓴다면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조조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깨달으며 물었다. "누가 가서 저들을 멈추게 하겠는가?" 문빙이 나섰다. "제가 물길을 아주 잘 아오니, 직접 가서 막아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문빙은 작은 배로 뛰어내려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그러자 십여 척의 순찰선이 문빙의 배를 따라 나아갔다. 문빙은 배 머리에 서서 크게 외쳤다. "승상님의 명령이다! 남쪽 배들은 진영 가까이 오지 말고 강 한가운데서 닻을 내리고 대기하라!" 군사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돛을 내려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활시위 당기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문빙은 왼쪽 팔에 화살을 맞고 배 위로 쓰러졌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병사들은 제각기 도망치기 바빴다. 남쪽 배와 조조의 진영 사이에는 겨우 이 리 정도의 수면만이 가로놓여 있었다. 이때 황개가 칼을 휘두르며 신호를 보내자, 앞서가던 배들이 일제히 불길을 내뿜었다. 불길은 바람의 기세를 타고 더욱 거세게 타올랐으며, 배들은 마치 화살처럼 날아가 불꽃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스무 척의 화선이 조조의

수영을 들이받았다. 조조의 진영에 있던 배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 설상가상으로 배들이 쇠사슬로 서로 묶여 있어 도망칠 곳조차 없었다. 강 건너편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방에서 화선들이 몰려들었다. 강물 위로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 온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조조가 강둑 위의 진영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황개가 작은 배 위로 뛰어올랐고, 그 뒤를 따르는 여러 명이 배를 몰며 연기와 불길을 뚫고 조조를 잡으러 달려들었다. 조조는 형세가 급박함을 느끼고 막 강둑으로 뛰어오르려는데, 갑자기 장료가 작은 배를 몰고 다가와 조조를 부축해 배에서 내리게 했다. 그 순간 황개가 탄 큰 배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었다. 장료는 십여 명의 부하와 함께 조조를 보호하며 강둑 입구를 향해 급히 달아났다.

황개는 붉은 도포를 입고 배에서 내리는 자를 보고 조조임을 직감했다. 그는 배를 더욱 빨리 몰며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든 채 큰 소리로 외쳤다. "조조 이 도적놈아, 거기 서라! 황개가 여기 있다!" 조조는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장료가 활을 들어 화살을 먹이고는 황개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화살을 쏘았다. 마침 바람 소리가 거세고 황개는 불길 속에 있었으니, 활시위 당기는 소리를 어찌 들을 수 있었겠는가? 화살은 황개의 어깨 움푹한 곳에 정확히 박혔고, 황개는 몸을 뒤집으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불길이 거센 와중에 물에 빠지는 재난을 당하고, 겨우 상처가 나으려니 칼에 맞는 화를 입었으니, 황개의 목숨이 어찌 되었을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0회 — 제갈량이 지혜로 화용도를 계 산하고, 관운장이 의리로 조조를 놓아주 다

諸葛亮智算華容 關雲長義釋曹操

한편, 그날 밤 장료가 쏜 화살에 맞은 황개가 강물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조조는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다. 조조가 말들을 찾아 급히 도망칠 때쯤에는 이미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진 상태였다. 한당이 자욱한 연기와 불길을 뚫고 수채를 공격하러 나아갔는데, 갑자기 병사로부터 "배 뒷머리 키 위에 한 사람이 장군님의 자를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한당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누군가 "의공(황개의 자), 나를 구해다오!"라고 절규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한당은 "이 사람은 황공복(황개)이로구나!"라고 외치며 급히 사람들을 시켜 그를 구해 올리게 했다. 황개는 화살을 맞은 채 부상을 입고 있었는데, 화살대를 물어 뽑아내니 화살촉이 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한당은 서둘러 황개의 젖은 옷을 벗기고 칼로 화살촉을 파낸 뒤, 깃발을 찢어 상처를 묶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전포를 벗어 황개에게 입히고, 우

선 다른 배를 시켜 대영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했다. 알고 보니 황개는 본래 수영을 아주 잘했기에, 이 추운 날씨에 갑옷을 입은 채 강에 빠지고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그날 강물은 불길로 들끓고 비명 소리는 땅을 뒤흔들었다. 왼쪽에서는 한당과 장흠이 이끄는 군대가 적벽 서쪽에서 몰려왔고, 오른쪽에서는 주태와 진무가 이끄는 군대가 적벽 동쪽에서 공격해 왔다. 중앙에서는 주유와 정보, 서성, 정봉이 이끄는 대함대가 밀려들었다. 불길에 맞서 병사들은 무기를 휘둘렀고, 무기에는 불의 위력이 더해졌다. 그야말로 세 강에서 벌어진 수전이자, 적벽에서 치러진 처절한 혈전이었다. 창에 찔리고 화살에 맞거나,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는 조조의 군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두고 이렇게 읊었다.

"위나라와 오나라가 다투어 승부를 가리니, 적벽의 거대한 배들이 한꺼번에 쏠려 나갔네. 치솟는 불길은 구름 바다를 비추는데, 주유가 바로 이곳에서 조조를 격파했구나."

또 이런 절창이 있다.

"산은 높고 달은 작으며 물결은 아득한데, 지난 왕조의 분열과 다툼을 탄식하노라. 남쪽 선비들은 위나라의 무력을 맞이할 마음이 없으나, 동풍은 뜻밖에도 주유를 돕는구나."

강물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는 차치하고, 이야기는 이러하다.

한편, 감녕은 채중을 띄어 조조의 진영 깊숙한 곳까지 유인하게 한 뒤, 채중을 말 아래에서 단칼에 베어버리고는 풀밭에 불을 질렀다. 멀리서 조조의 본진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여몽도 감녕을 돕기 위해 곳곳에 십여 군데 불을 놓았다. 이어 판장과 동습도 각자 흩어져 불을 지르며 함성을 질렀다. 사방에서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조조와 장료가 백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불길 속을 헤치며 나아갔으나, 눈앞에는 불이 붙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한창 길을 찾던 중, 모개가 문빙을 구해내고 십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나타났다. 조조가 군사들에게 길을 찾으라고 명령하자, 장료가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림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땅이 넓고 탁 트여 있어 지나갈 만합니다."

조조는 즉시 오림을 향해 달렸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치며 "조조 도적놈아, 거기 서라!"라고 크게 외쳤다. 불길 속에서 여몽의 깃발이 나타났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며, 장료를 남겨 여몽의 공격을 막으며 후방을 방어하게 했다. 그런데 앞쪽에서도 갑자기 횃불이 치솟더니 산골짜기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쏟아져 나오며 "능통이 여기 있다!"라고 외쳤다. 조조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옆쪽에서 또 다른 군사 한 무리가 달려오며 "승상님, 당황하지 마십시오! 서황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군사들은 서로 뒤엎쳐 난전을 벌였고, 조조는 겨우 길을 찾아 북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다 문득 산비탈 앞에 한 무리의 군마가 주둔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서황이 나가서 물어보니, 그들은 원소 휘하의 장수인 마연과 장이가 이끄는 북지군 3천 명이었다. 그들은 밤중에 하늘 가득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조조의 군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조조는 두 장수에게 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길을 열게 하고, 나머지는 몸을 보호하도록 남겨두었다. 조조는 이 새로운 병력을 얻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마연과 장이가 기병을 이끌고 앞장서서 나아갔다. 채 십 리도 못 가서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다. 선두에 선 장수가 크게 외쳤다. "나는 오나라의 감녕이다!" 마연이 막 맞서 싸우려 했으나, 이미 감녕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장이가 창을 들고 맞서려 했지만, 감녕이 크게 호통을 치자 장이는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감녕의 칼에 맞아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후방에서 이 소식이 조조에게 전해졌다. 조조는 합비에 있는 병사들이 구원하러 오기만을 간절히 바랐으나, 손권은 합비 길목에서 강 위의 불길을 보고 우리 군이 승리했음을 알아차렸다. 손권은 즉시 육손에게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했다. 이를 본 태사자는 육손과 합세하여 조조의 진영을 향해 돌격했다. 조조는 어쩔 수 없이 이릉 쪽을 바라보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도망가는 길에 장합과 마주치자, 조조는 그에게 후방을 방어하라고 명령했다.

말을 몰아 채찍질하며 달리기를 계속한 끝에 새벽 다섯 시쯤 이르러서야 겨우 멈추었다. 멀어져 가는 불길을 뒤돌아보며 조조는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냐?" 곁에 있던 장수들이 대답했다.

"오림의 서쪽이자 의도의 북쪽입니다." 조조가 주위를 둘러보니 숲은 무성하고 산세는 험준했다. 그는 말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멈추지 않고 크게 웃어댔다. 장수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승상, 어찌하여 그리 크게 웃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웃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유가 계책이 없고 제갈량이 지혜가 부족함을 비웃는 것이라네. 만약 내가 군사를 부릴 때 미리 이곳에 한 부대의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면, 그들이 대체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측에서 북을 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으니, 조조는 깜짝 놀라 하마할 뻔했다. 그때 비스듬한 곳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오며 크게 외쳤다.

"나 조운이 군사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조조는 서황과 장합에게 조운을 상대하라고 명령한 뒤, 자신은 자욱한 연기와 불길을 뚫고 급히 도망쳤다. 조운은 굳이 뒤쫓지 않고 깃발을 탈취하는 데만 전념했고, 덕분에 조조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날이 어렴풋이 밝아오는데 검은 구름이 땅을 뒤덮었고, 동남풍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해 갑옷과 옷이 흠뻑 젖었다. 조조는 군사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나아갔으나, 군사들의 얼굴에는 모두 굶주린 기색이 역력했다. 조조는 군사들에게 마을로 가서 식량을 약탈하고 불을 피울 땀감을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막 밥을 지으려는데 뒤에서 한 부대가 달려왔다. 조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몸

시 당황했다. 알고 보니 이전과 허저가 여러 책사를 보호하며 도착한 것이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들에게 일단 계속 행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앞쪽 지형이 어떠하냐?"라고 물었다.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한쪽은 남이릉으로 통하는 큰길이고, 다른 한쪽은 북이릉으로 통하는 산길입니다"라고 했다. 조조가 다시 "어디로 가야 남군 강릉에 더 빨리 도착하겠느냐?"라고 묻자, 군사들이 대답했다. "남이릉을 거쳐 호로구를 지나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조조는 즉시 남이릉 쪽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군사들이 호로구에 이르자, 모두가 굶주리고 지쳐서 걷기조차 힘겨워했다. 말들도 기력이 다해 길가에 쓰러지는 경우가 속출했다. 조조는 앞길을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말 위에 솔이나 그릇을 싣고 온 이들도 있었고, 마을에서 약탈해 온 식량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산 기슭의 마른 땅을 골라 솔을 걸고 밥을 지었다. 어떤 이들은 말의 고기를 베어 구워 먹기도 했다. 군사들은 젖은 옷을 모두 벗어 바람에 말렸고, 말들은 안장을 벗겨 풀을 뜯게 내버려 두었다.

조조는 들판에 누워 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다. 신하들이 물었다.

"방금 전에는 승상께서 주유와 제갈량을 비웃으시더니, 그 바람에 조운까지 나타나 우리 군사들을 많이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왜 웃으시는 겁니까?"

조조가 말했다.

"내가 제갈량과 주유를 비웃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지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군사를 부렸다면, 이 길목에도 분명 별도의 군대를 매복시켜 두고 적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가 설령 목숨을 건져 도망친다 해도 중상을 입지 않았을 수가 없다. 그들이 이런 점을 간파하지 못했기에 비웃는 것이다."

한편, 앞 부대와 뒤 부대가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조조는 깜짝 놀라 갑옷을 벗어 던지고 말에 올라탔으나, 많은 군사가 미쳐 말을 수습하지 못했다. 사방에는 이미 불길과 연기가 산길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열며 달려 나왔다. 그 선두에는 연나라 사람 장비가 창을 옆으로 뉘어 말에 올라탄 채, "조조 이 도둑놈아, 어디로 도망가느냐!"라고 크게 외치고 있었다. 장비의 모습을 본 여러 군사와 장수들은 모두 간담이 서늘해졌다. 허저가 안장도 없는 말에 올라타 장비에게 달려들었고, 장료와 서황 두 장수도 말을 몰아 협공해 왔다. 양측 군사들은 뒤엉켜 한바탕 큰 혼전을 벌였다. 조조는 먼저 말을 몰아 겨우 빠져나갔고, 여러 장수도 각자 몸을 피했다. 장비는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조조가 줄곧 도망치다 추격군과 거리가 멀어지자 뒤를 돌아보았는데, 많은 장수가 이미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행군하던 중 군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앞에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승상께서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조조가 물었다. "어느 길이 더 가깝느냐?"

군사가 대답했다. "큰길은 길이 평탄하지만 오십 리 정도 더 돌아가야 하고, 작은 길은 화용도로 이어져 오십 리 정도 더 가깝습니다. 다만 길이 좁고 험하며 구덩이가 많아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조조가 사람을 산 위로 보내 살피게 하니, 돌아온 보고는 이러했다. "작은 길 산자락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큰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조는 즉시 앞장선 군대에게 화용도 작은 길로 가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장수들이 말했다. "봉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는 반드시 적군과 군마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도리어 이 길로 가려 하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병법에 '허한 곳을 실한 것처럼 꾸미고, 실한 곳을 허한 것처럼 꾸며라'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제갈량은 잔피가 많으니, 분명 산 구석에 불을 피워 연기를 내게 하여 우리 군이 이 산길로 오지 못하게 하고, 정작 자신은 큰길에 매복해 있다가 기다릴 것이다. 내 이 미 그 속셈을 꿰뚫어 보았으니, 결코 저놈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

장수들이 모두 감탄하며 말했다. "승상의 계산이 참으로 뛰어나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데까지 미치셨습니다."

말을 마친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화용도로 향했다. 이때 군사들은 모두 굶주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말들은 기진맥진하여 지쳐 있었다. 얼굴과 머리가 엉망이 된 자들은 채찍에 의지해 간신히 발을 떼고, 화살을 맞거나 창에 찔린 자들은 겨우겨우 몸을 움직이며 나아갔다. 갑옷은 흠뻑 젖어 형편없었고, 군기나 깃발도 여기저기 흩어져 엉망이었다. 대부분 이릉의 험한 길에서 급히 도망치느라 말도 제대로 타

지 못한 채, 말의 갈기나 안장, 옷가지조차 모두 내팽개치고 온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때는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까지 겹쳤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조조가 전방의 군사들이 말을 멈춘 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보고가 돌아왔다. "앞쪽은 산세가 험하고 길이 좁은 데다, 아침에 비까지 내려 구덩이에 물이 고여 흐르지 않습니다. 말발굽이 진흙에 빠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조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군대가 길을 갈 때는 산이 있으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법이다. 어찌 진흙탕 때문에 길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느냐!"

조조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노약자와 부상병은 뒤에서 천천히 가게 하고, 건강한 병사들은 흙과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풀과 갈대를 날라 즉시 길을 메우도록 했다.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즉시 베어버리라고 엄히 일렀다.

모든 군사는 말에서 내려 길가에 있는 대나무와 나무를 베어 산길을 메워야 했다. 조조는 후방의 군사들이 뒤늦게 따라오는 것을 우려하여, 장료, 허저, 서황에게 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칼을 든 채 뒤를 따르게 하여, 조금이라도 지체하는 자는 즉시 처단하라고 명했다.

조조는 사람과 말에게 험한 산길을 따라가라고 명령했으나, 죽어 나가는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길 위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조가 노하며 말했다. "삶과 죽음은 하늘의 명에 달린 것이거

늘, 어찌 그리 통곡한단 말이냐! 다시는 우는 자가 없도록 하라. 만약 또 우는 자가 있다면 즉시 참수할 것이다!"

조조는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누었다. 한 무리는 뒤쳐진 이들을 챙기고, 한 무리는 도랑과 구덩이를 메우며, 나머지 한 무리는 조조를 뒤따랐다. 험난한 구간을 지나자 길이 조금 평탄해졌다. 조조가 뒤를 돌아보니 따라오는 기병은 겨우 300여 명뿐이었고, 그중 갑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은 이도 없었다. 조조가 서둘러 가자 장수들이 말했다. "말들이 거의 다 지쳤으니 잠시 쉬어야 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형주에 도착해서 쉬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몇 리를 더 가던 중, 조조가 말 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웃었다. 장수들이 물었다. "승상, 어찌하여 또 크게 웃으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주유와 제갈량이 지략이 뛰어나다고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결국 무능한 자들일 뿐이다. 만약 이곳에 군사 한 부대만 매복시켜 두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속수무책으로 사로잡혔을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졌다. 양쪽에서 오백 명의 칼잡이가 대열을 갖추어 늘어섰고, 그 선두에는 대장 관우가 청룡언월도를 치켜든 채 적토마를 타고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조조의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조조가 말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 장수들이 말했다. "사람들이 비록 겁을 내지 않는다 해도, 말의 힘이 이미 다 빠졌는데 어떻게 다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때 정욱이 말했다. "저는 평소 관우가 위로는 오만해도 아래로는 인정을

베풀 줄 알며, 강한 자는 압도하되 약한 자는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원한을 분명히 가리고 신의가 높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승상께서 예전에 그에게 베푼 은혜가 있으니, 지금 직접 그 사실을 말씀하신다면 이 난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따르고는 곧바로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며, 몸을 굽혀 관우에게 말했다. "장군, 그동안 별고 없으셨소?" 관우 역시 몸을 굽혀 답했다. "본관은 군사의 명을 받들어 승상께서 오시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조조는 지금 군사가 패하여 형세가 위태롭고, 여기까지 오니 더는 갈 길도 없소. 부디 장군께서 예전의 정을 생각해주시길 바라오." 관우가 말했다. "예전에 제가 승상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안량과 문추를 베어 백마의 포위를 풀어드림으로써 그 은혜는 갚았습니다. 오늘의 일을 어찌 감히 사사로운 정 때문에 공적인 도리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조조가 다시 말했다. "장군이 다섯 관문을 지나며 내 장수들을 베던 때를 아직 기억하시오?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신의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법이오. 장군은 《춘추》에 밝으시니, 유공지사(庾公之斯)가 자탁유자(子濯孺子)를 추격하고도 (스승의 연을 생각해) 차마 쏘지 못하고 살려 보낸 일을 어찌 모르시겠소?"

관우는 의리가 산처럼 무거운 사람이었다. 조조가 베푼었던 수많은 은혜와 그 후의 일들을 떠올리니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는가? 게다가 조조의 군사들이 겁에 질려 모두 눈물을 흘리려는 모습을 보니 더욱 차마 매정하게 대할 수가 없었다. 이에 관우는 말머리를 돌리며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사방으로 흩어져 대열을 풀어라!"

이것은 분명 조조를 놓아주겠다는 뜻이었다. 조조는 관우가 말머리를 돌리는 것을 보고는 즉시 장수들과 함께 달려 나갔다. 관우가 몸을 돌렸을 때는 이미 조조와 장수들이 지나간 뒤였다. 관우가 크게 호통을 치자, 조조의 군사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땅에 엎드려 울며 절을 올렸다. 관우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다. 관우가 망설이고 있을 때 장료가 말을 달려 달려왔는데, 관우는 장료를 보고 또 옛 정이 생겼다. 관우는 길게 탄식하며 모두를 놓아주었다. 후세에 시인이 이를 두고 이렇게 읊었다.

"조조는 패하여 화용도로 도망치는데, 관우와 좁은 길에서 마주쳤네. 그저 예전의 은혜가 너무나 깊었기에, 용 같은 조조를 놓아주었다."

조조가 겨우 화용도의 위기를 넘기고 골짜기 입구에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니 따라온 군사라고는 고작 스물일곱 명의 기병뿐이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남군 근처에 다다르자, 멀리서 횃불이 일제히 밝아지더니 한 무리의 인마가 길을 가로막으며 나타났다. 조조가 크게 놀라며 외쳤다.

"이제 내 목숨도 다했구나!"

그때 한 무리의 정찰 기병들이 달려왔는데, 자세히 보니 조인의 군사들이었다. 그제야 조조는 마음을 놓았다. 조인이 다가와 말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을 알고 감히 멀리 떠나지 못한 채, 그저 근처에서 승상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자네와는 영영 만나지 못할 줄 알았네!"

그리하여 조조는 군사들을 이끌고 남군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곧이어 장료도 도착하여 관우의 덕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조는 장수들을 불러 모아 살폈는데, 부상당한 사람이 매우 많아 모두에게 쉬라고 명했다. 조인은 술을 차려 조조의 시름을 달래주었고, 여러 책사도 모두 자리에 함께했다. 그때 조조가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통곡했다.

책사들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호랑이 굴에서 탈출하실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성에 도착하여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얻었고 말들도 먹이를 먹었으니, 마땅히 군사를 정돈하여 복수를 도모해야 할 때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슬프게 우시는 것입니까?"

조조가 말했다. "나는 곱가를 위해 우는 것이오! 만약 봉효가 살아 있었다면, 결코 내가 이런 커다란 실책을 저지르게 두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고는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했다. "슬프도다, 봉효여! 가슴 아프도다, 봉효여! 아깝도다, 봉효여!"

그 말을 들은 여러 책사는 모두 말없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

다음 날, 조조가 조인을 불러 말했다.

"나는 우선 허도로 돌아가 군사와 말을 정비한 뒤, 반드시 다시 돌아와 이 원수를 갚으리라. 너는 남군을 잘 지키고 있거라.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이곳에 비밀리에 남겨둘 것이니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함부로 열지 말고, 정말 급한 상황이 오면 그때 열도록 하여라. 이 계책대로만 한다면 동오가 감히 남군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조인이 물었다.

"합비와 양양은 누가 지키게 됩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형주는 네가 맡아 다스리도록 하고, 양양은 이미 하후돈을 보내 지키게 했다. 합비가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니, 장료를 주장으로 삼고 악진과 이전에게 부장직을 맡겨 그곳을 수비하게 하겠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즉시 전령을 보내 알려라."

조조는 군사 배치를 모두 마친 뒤, 곧바로 말에 올라 병사들을 이끌고 허창을 향해 달렸다. 형주에서 항복해 온 문무백관들도 예전처럼 모두 허창으로 압송하여 재배치하기로 했다. 조인은 조홍과 함께 주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이릉과 남군을 지키도록 했다.

한편, 관우는 조조를 놓아주고 군사를 이끌어 돌아왔다. 이때 다른 길로 돌아가던 군사들은 모두 말과 무기, 돈과 식량을 챙겨 이미 하구로 돌아갔으나, 오직 관우만이 단 한 명의 병사나 말 한 마리도 얻지 못

한 채 빈손으로 유비에게 돌아갔다. 제갈량이 유비와 함께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우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제갈량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고 관우를 맞이하며 말했다.

“장군께서 천하의 큰 재앙을 제거하는 위대한 공을 세우셨으니, 마땅히 멀리까지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관우는 말없이 침묵했다. 제갈량이 물었다. "장군께서 혹시 저희가 멀리 마중 나가지 못해 불쾌하신 것입니까?" 제갈량이 좌우를 둘러보며 군사들에게 꾸짖듯 말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미리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관우가 말했다. "관우는 오직 죽음을 청하러 왔습니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혹시 조조가 화용도로 도망친 것입니까?" 관우가 대답했다. "그쪽 길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무능하여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갈량이 물었다. "포로로 잡아온 장수나 병사는 없습니까?" 관우가 말했다.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는 관우가 조조의 옛 은혜를 생각하여 일부러 놓아준 것이로군요. 하지만 이미 군령장이 여기 있으니, 군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마친 제갈량이 무사들에게 호통을 쳐 관우를 끌어내어 처형하게 했다.

과연, 지기에게 죽음으로 보답하려 하니, 천 년의 세월 동안 의로운 이름으로 우러러보게 되리라.

관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1회 — 조인이 동오의 군사와 크게 싸우고, 공명이 기세로 주공군을 압도하다

曹仁大戰東吳兵 孔明一氣周公瑾

한편, 제갈량은 관우를 베어버리려 했다.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예전에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을 때, 생사를 함께하기로 맹세했었네. 지금 관우가 비록 법을 어겼으나, 나는 그 옛날의 맹세를 저버릴 수가 없네. 부디 죄를 헤아려 너그러이 용서해주고, 관우가 공을 세워 죄를 씻을 기회를 주게나." 그제야 제갈량은 관우를 용서해주었다.

한편, 주유는 군대를 거두어 장수들을 점검하며 각자의 공로를 치하하고 이를 손권에게 보고했다. 항복해 온 병사들은 모두 강을 건너게 하여 배치했다. 이어 삼군에 큰 상을 내린 뒤, 곧장 군사를 움직여 남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선발대가 강가에 도착하여 진을 쳤는데, 전후로 다섯 개의 진영을 나누어 배치하고 주유가 그 중앙에 자리 잡았다.

주유가 장수들과 함께 진군할 계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고가 올라왔다. "유비가 손건을 보내 도독님께 축하 인사를 올리게 했습

니다." 주유가 그를 안으로 들여오라고 명했다. 손건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친 뒤 말했다. "주군께서 특별히 저를 보내 도독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표하게 하셨습니다. 약소하지만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립니다." 주유가 물었다. "유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손건이 대답했다. "현재 군사를 옮겨 유강구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유가 놀라며 물었다. "제갈량도 유강구에 있습니까?" 손건이 말했다. "제갈량도 주군과 함께 유강구에 있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그대는 먼저 돌아가 보시오. 내가 직접 가서 인사를 전하겠소."

주유는 예물을 받은 뒤 손건을 먼저 돌려보냈다. 노숙이 물었다. "도독님, 방금 왜 그리 놀라셨습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유비가 유강구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필시 남군을 차지하려는 속셈일 것이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군마와 군량미를 들여 이제 막 남군을 손에 넣으려는데, 저들이 불의한 마음을 품고 거저 얻으려 드니, 주유가 죽지 않는 한 이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소!"

노숙이 다시 물었다. "어떤 계책을 써서 저들을 물리쳐야 하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소.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비가 남군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쳐 단해 버릴 것이요!"

노숙이 말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에 주유와 노숙은 삼천 명의 경기병을 이끌고 곧장 유강구로 향했다.

한편, 손건이 유비에게 돌아와 주유가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러 올 것이라고 보고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오려는 것인가?" 제갈량이 웃으며 대답했다. "보잘것없는 선물 몇 점 때문에 감사를 표하러 오겠습니까? 분명 남군을 차지하려는 속셈으로 오는 것입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만약 그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제갈량이 말했다. "그가 오면 그저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말을 마친 제갈량은 유강구에 전선을 배치하고, 육지에는 군마를 늘어세워 대비하게 했다.

주유와 노숙이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갈량은 조운에게 기병 몇 명을 거느리고 나가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주유는 동오군의 위세가 매우 웅장한 것을 보고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주유 일행이 진영 문 앞에 이르자, 유비와 제갈량이 직접 나가 그들을 막사 안으로 맞이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연회를 베풀었는데, 유비는 술잔을 들어 조조와 싸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술자리가 몇 차례 돌아 주유가 물었다. "예주에서 군사를 옮겨 이쪽으로 오는 것을 보니, 혹시 남군을 차지할 생각이 있는 것 아니요?"

유비가 대답했다. "도둑께서 남군을 취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돕고자 왔소. 만약 도둑께서 취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반드시 취할 것이오."

주유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동오가 한강을 삼키려 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남군이 이미 손안에 들어왔으니 어찌 취하지 않겠소?"

유비가 말했다. "승부는 미리 정할 수 없는 법이오. 조조가 돌아오고 있고, 지금 남군 등을 지키고 있는 조인 같은 장수들은 반드시 기묘한 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오. 게다가 조인은 용맹함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이니, 도둑께서 남군을 취하지 못하실까 그것이 걱정될 뿐이오."

주유가 말했다. "만약 내가 취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기꺼이 당신에게 맡기겠소."

유비가 말했다. "제갈량과 노숙이 여기서 증인이 될 것이니, 도둑께서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노숙은 머뭇거리며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주유가 말했다. "대장부라면 한 번 내뱉은 말을 어찌 후회하겠습니까!" 이에 제갈량이 말했다. "도둑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우선 동오가 남군을 취하도록 내버려 둥시다. 만약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 주군께서 취하시면 될 일인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주유는 노숙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유비와 제갈량을 뒤로한 채 말을 타고 떠났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방금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하긴 했으나, 막상 말을 내뱉고 나니 다시 생각할수록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처지라, 남군이라도 얻어 잠시 몸을 누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유가 먼저 남군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성과 땅은 이미 동오의 것이 될 텐데 그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 제가 주군께 형주를 취하라고

권했을 때 주군께서 듣지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잊으셨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전에는 유경승(유표)의 땅이었기에 차마 뺏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조조의 땅이니 마땅히 취해야겠지요." 제갈량이 다시 말했다. "주군께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유가 마음껏 싸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머지않아 주군께서 남군 성안에 높이 앉아 계시게 될 것입니다." 유비가 물었다.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제갈량이 "이러이러하게 하면 됩니다"라며 방책을 일러주자,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강 입구에 진을 치고 군사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한편, 주유와 노숙이 진영으로 돌아왔다. 노숙이 물었다. "도독님, 어찌하여 유비가 남군을 차지하는 것도 허락하려 하십니까?" 주유가 대답했다. "남군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얻을 수 있는 곳인데, 굳이 유비에게 양보하여 헛된 인심만 얻을 수는 없지 않겠소?" 그러고는 곧 장수들을 불러 모아 물었다. "누가 먼저 남군을 취하겠는가?"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하며 앞으로 나섰는데, 바로 장흠이었다. 주유가 말했다. "그대가 선봉을 맡으시오. 서성과 정봉을 부장으로 삼고, 정예병 오천을 선발하여 먼저 강을 건너게 하시오. 내가 뒤를 따라가며 군사를 지원하겠소."

한편, 조인이 남군에 머물며 조흥에게 이릉을 지키게 하여 양옆에서 서로를 보좌하는 형세를 만들었다. 이때 "오나라 군사가 이미 한강을 건너왔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인이 말했다. "굳게 지키되, 함부로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자 용맹한 장수 우금이 분연히 나서며 말했다. "적군이 성 밑까지 들이닥쳤는데도 싸우지 않는 것은 겁쟁이나 하는 짓입니다. 하물며 저희 군사가 방금 패배했으니, 지금이야

말로 기세를 다시 떨쳐야 할 때입니다. 제게 정예병 오백 명만 빌려주신다면,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조인이 이를 받아들이고 우금에게 군사 오백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 명했다. 정봉이 말을 달려 맞이해 나왔다. 두 사람이 대여섯 합 정도 싸우는 척하다가, 정봉이 거짓으로 패하며 물러나자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진영 안까지 추격해 들어갔다. 그러자 정봉이 즉시 군사들을 지휘해 우금의 진영을 한 바퀴 뱅 둘러싸며 포위했다. 우금은 좌우로 부딪치며 빠져나가려 했으나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

성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인이 우금이 진 한가운데 갇힌 것을 보고, 즉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부하 장사 수백 명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갔다. 조인은 힘차게 칼을 휘두르며 오나라 진영을 향해 돌격했다. 서성이 맞서 싸웠으나 조인의 기세를 당해낼 수 없었다. 조인이 진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가 우금을 구해냈다. 뒤를 돌아보니 아직도 수십 명의 기병이 진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조인은 다시 말머리를 돌려 적진으로 뛰어들어 그들까지 모두 구해냈다. 이때 장함이 길을 가로막으며 방해했으나, 조인과 우금이 힘껏 돌파하여 그들을 흩어놓았다. 조인의 동생 조순 역시 군사를 이끌고 달려와 합세하여 한바탕 소란스럽게 싸웠다. 결국 오나라 군대는 패하여 달아났고, 조인은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

장함은 패배하고 돌아와 주유를 만났다. 주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장함을 베려 했으나, 다른 장수들이 간곡히 만류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

주유는 즉시 군사를 점검하며 직접 조인과 결전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자 감녕이 말했다. "도독님, 경솔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인은 조흥에게 이릉을 지키게 하여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에게 정예병 삼천 명을 주시면 제가 곧장 이릉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독님께서 움직이셔야 남군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유는 그 논리에 설득되어, 먼저 감녕에게 삼천 명의 병사를 주어 이릉을 공격하게 했다.

이미 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첩자가 있었다. 조인은 진교와 상의했다. 진교가 말했다. "이릉을 잃으면 남군 또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서둘러 구해야 합니다." 이에 조인은 조순과 우금에게 몰래 병사를 이끌고 가서 조흥을 구하라고 명령했다. 조순은 먼저 사람을 보내 조흥에게 알린 뒤, 조흥더러 성 밖으로 나가 적을 유인하게 했다.

감녕이 군사를 이끌고 이릉에 도착하자 조흥이 나가 감녕과 맞붙었다. 스무 합 넘게 싸우던 중 조흥이 패하여 달아났고, 감녕은 이릉을 점령했다. 날이 저물 무렵 조순과 우금의 군대가 도착하여 양쪽이 합류했고, 이릉을 포위했다.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감녕이 이릉 성안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하자, 주유는 크게 놀랐다.

정보가 말했다. "어서 군사를 나누어 구하러 가야 합니다."

주유가 대답했다. "이곳은 요충지라, 만약 군사를 나누어 구하러 갔다가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습격해 오면 어찌하겠는가?"

여몽이 말했다. "감녕은 강동의 큰 장수인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구하려 하네. 다만 이곳에 누구를 남겨 내 임무를 대신하게 해야겠는가?"

여몽이 말했다. "릉통을 남겨 대신하게 하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나아가고 도둑께서 뒤를 받쳐주신다면, 열흘도 안 되어 반드시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올 것입니다."

주유가 말했다. "릉통이 기꺼이 내 임무를 잠시 대신해 줄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릉통이 말했다. "열흘을 기한으로 한다면 충분히 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어가면 제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유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 만여 명을 남겨 릉통에게 맡기고, 곧바로 대군을 이끌고 이릉으로 진격했다. 이때 여몽이 주유에게 말했다.

"이릉의 남쪽 구석에는 좁은 길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면 남군을 차지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니 군사 오백 명을 보내 나무를 베어 길을 끊어 놓으십시오. 만약 적군이 패배한다면 반드시 이 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길이 험해 말이 달릴 수 없게 되면 적들은 분명 말을 버리고 도망칠 테니, 우리가 그 말들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주유는 그 명령을 따르고 군사를 나누어 보냈다. 대군이 이릉에 다다를 무렵, 주유가 물었다. "누가 적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감녕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주태가 자원하며 나섰다. 그는 즉시 칼을 뽑아 들고 말을 달려 조조의 군대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 성 아래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성안에서 주태가 오는 것을 본 감녕은 직접 성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주태가 "도둑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오고 계십니다!"라고 외치자, 감녕은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무기를 단단히 갖추고 배불리 먹게 하여 안에서 도울 준비를 하게 했다.

한편, 조홍과 조순, 우금은 주유의 군사와 장수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사람을 보내 남군의 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군사를 나누어 적을 막아섰다. 오나라 군대가 도착하자 조조의 군대가 그들을 맞이하며 맞붙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감녕과 주태가 두 갈래로 나뉘어 돌격했고, 조조의 군대는 크게 혼란에 빠졌으며 오나라 군대는 사방에서 몰아치며 살육을 벌였다. 조홍과 조순, 우금은 결국 좁은 길로 도망치려 했으나, 마침 땔나무가 길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말조차 움직일 수 없게 되자 모두 말을 버려둔 채 도망쳤다. 오나라 군대는 이 과정에서 말 500여 필을 전리품으로 얻었다. 한편 주유는 군사를 몰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군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조인의 군대가 이릉을 구하러 오는 길과 맞닥뜨려 양 군이 뒤엉켜 한바탕 큰 전투를 벌였다. 날이 이미 저물자 양쪽 군대는 각자 군사를 거두어 물러났다.

조인이 성으로 돌아와 장수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조홍이 말했다. "지금 이릉을 잃어 형세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차라리 승상께서 남기신 계책을 살펴 이 위기를 타개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인이 대답했다. "그대의 말이 내 생각과 딱 맞는구려." 조인은 즉시 서신을 풀어 내용을 확인하고는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명령을 내려 다섯 경(새

벽 4시경)에 밥을 짓게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크고 작은 군마들이 모두 성을 버리고 나가는 것처럼 꾸몄다. 성 위에는 깃발을 가득 꽂아 위세를 부리며 허장성세를 펼쳤고, 군사들은 세 개의 성문으로 나누어 밖으로 나갔다.

한편, 주유는 감녕을 구출한 뒤 군사를 정비하여 남군 성 밖에 진을 쳤다. 조인의 군사가 세 개의 성문을 열고 나와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주유는 장대에 올라 상황을 살폈다. 성벽 위에는 깃발만 덩그러니 꽂혀 있을 뿐 지키는 병사가 없었고, 군사들은 허리춤에 보따리를 하나씩 묶고 있었다. 주유는 조인이 미리 퇴로를 확보해 두었음을 직감하고, 즉시 장대에서 명령을 내려 양군을 좌우 날개로 나누어 배치했다. 앞서 나가는 선봉 부대는 승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되, 반드시 징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물러날 수 있다고 일렀다. 그리고 정보에게 후방을 지키게 한 뒤, 주유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성을 함락시키러 나섰다.

대치하던 중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홍이 말을 타고 나와 싸움을 걸어왔다. 주유는 성문 아래까지 진격한 뒤 한당을 보내 조홍과 맞붙게 했다. 서른 합 넘게 싸우자 조홍은 패하여 달아났고, 이어 조인이 직접 나와 맞서 싸웠다. 이에 주태가 말을 몰아 맞대응했다. 열 합 남짓 싸운 끝에 조인마저 패하여 도망치자, 조인군의 진영은 순식간에 뒤엎켜 혼란에 빠졌다.

주유의 휘하 양측 날개 부대가 돌격해 나오자 조조의 군대는 대패했다. 주유가 직접 말을 타고 남군 성 아래까지 추격하자, 조조의 군사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북서쪽을 향해 도망치기 바빴다. 한당

과 주태가 이끄는 전방 부대가 온 힘을 다해 뒤쫓았다. 주유가 보니 성문은 활짝 열려 있고 성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주유는 군사들에게 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수십 명의 기병이 앞장서서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주유는 그 뒤를 따라 채찍질하며 말을 몰아 곧장 웅성 안으로 진입했다. 적의 누각 위에 있던 진교는 주유가 직접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속으로 크게 감탄하며 외쳤다. "승상의 계책은 참으로 신묘하구나!"

북소리가 한 번 울려 퍼지자마자 양쪽에서 화살과 노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는데, 그 기세가 마치 소나기 같았다. 성 안으로 먼저 뛰어든 병사들은 모두 땅에 판 함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주유가 급히 말을 돌려 피하려던 찰나, 화살 한 대가 왼쪽 옆구리에 정통으로 박히는 바람에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이때 성 안에서 우금이 튀어나와 주유를 잡으려 달려들었으나, 서성과 정봉 두 장수가 목숨을 걸고 주유를 구해냈다. 성 안에서 조조의 군사가 돌격해 나오자, 동오의 병사들은 서로 엉켜 밟히며 함정에 빠지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정보가 급히 군사를 거두어 물러나려 할 때, 조홍과 조인이 두 갈래로 나누어 병력을 몰고 다시 공격해 왔다. 동오 군대는 대패했다. 다행히 릉통이 한 부대를 이끌고 비스듬한 옆쪽에서 들이닥쳐 조조의 군사를 저지해 주었다. 그사이 조인은 승리한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고, 정보는 패한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갔다. 정봉과 서성 두 장수가 주유를 구해 막사로 데려온 뒤, 군의관을 불러 철집게로 화살촉을 뽑아내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으나, 통증이 너무 심해 음식조차 전혀 먹지 못했다. 의원이 말했다. "이 화살촉에는 독이 묻어 있어 쉽게 낫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분노로 인해 기가 격해지면 상처가 다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정보는 삼군에게 명하여 각 진영을 엄중히 지키게 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사흘 뒤, 우금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걸어왔으나 정보는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 우금은 해가 질 때까지 욕설을 퍼붓고 나서야 돌아갔고, 다음 날 또다시 나타나 욕설을 퍼부었다. 정보는 주유가 화를 낼까 두려워 감히 알리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우금이 진영 문 앞까지 와서 주유를 잡으러 가겠다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다. 정보는 여러 사람과 상의한 끝에, 일단 병사를 물려 손권에게 돌아가 보고한 뒤에 다시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주유는 상처의 통증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조조의 군사들이 수시로 진영 앞에 와서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정작 장수들은 와서 보고하지 않는 상황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인이 대군을 이끌고 북을 치며 함성을 지르며 전투를 걸어왔다. 하지만 정보는 이를 막아설 뿐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주유가 장수들을 막사로 불러 모아 물었다. "어디서 북소리와 함성이 들리는가?" 장수들이 대답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소리입니다." 주유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나를 속이다니! 조조의 군사들이 진영 앞에 와서 욕설을 퍼붓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정보가 나와 함께 군권을 맡고 있으면서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단 말이나?" 주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정보를 막사로 불러 상황을 물었다. 정보가 말했다. "주유 도독님의 상처가 심해 의원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당부했기에, 조조의 군사가 전투를 걸어와도 감히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유가 다시 물었다. "그대들이 싸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보가

대답했다. "장수들은 모두 군사를 거두어 잠시 강동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도독님의 화살 상처가 나오면 그때 다시 대책을 세웁시다."

주유는 말을 다 듣더니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대장부로서 임금의 녹봉을 먹는 이상, 마땅히 전쟁터에서 죽어야 한다. 말 가죽에 싸여 전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찌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겠는가?" 말을 마친 주유는 즉시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탔다.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이, 주유는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진영 앞으로 나갔다. 저 멀리 조조군의 진영이 이미 대열을 갖추고 있었는데, 조인이 깃발 아래 말을 타고 서서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주유, 이 어린놈아! 너는 반드시 요절할 것이다! 다시는 감히 우리 군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마라!"

욕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유가 기병들을 거느리고 갑자기 나타나 외쳤다. "조인, 이 미련한 놈아! 나 주유가 보이지 않느냐!" 조조의 군사들이 이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조인이 뒤를 돌아보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저놈에게 크게 욕을 해주어라!" 그러자 군사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주유는 크게 화를 내며 반장을 출전시켰다. 그런데 막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입에서 피를 뱉으며 말 아래로 떨어졌다. 조조의 군사들이 달려들자 장수들이 앞으로 나아가 막아섰고, 한바탕 혼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겨우 주유를 구해 군막 안으로 돌아왔다.

정부가 물었다. "도독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주유가 은밀하게 정보에게 말했다. "이것은 다 내 계책이라네."

정보가 되물었다.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실 겁니까?"

주유가 답했다. "내 몸은 본래 그리 아프지 않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조의 군사들이 내가 위독하다고 믿게 만들어 적을 방심하게 하려는 것이네. 심복 군사들을 성 안으로 보내 내가 이미 죽었다고 거짓 항복을 하게 하게나. 그러면 오늘 밤 조인이 반드시 내 진영을 습격하러 올 것이네. 그때 사방에 매복해 두었다가 맞서 싸우면, 조인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네."

정보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기막힌 계획입니다!" 그리고는 주유의 막사 아래에서 크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군사들이 크게 놀라며 도둑이 화살 맞은 상처가 덧나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각 진영에서는 모두 상복을 걸고 애도했다.

한편, 조인은 성안에서 장수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는 주유가 분노가 극에 달해 상처가 터지는 바람에 입으로 피를 쏟으며 말에서 떨어졌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급보가 들어왔다. "오나라 진영에서 군사 수십 명이 항복하러 왔습니다. 그중 두 명은 원래 조조군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입니다." 조인이 서둘러 그들을 불러 상황을 물었다. 군사들이 대답했다. "오늘 주유가 진영 앞에서 상처가 터지는 바람에 진영으로 돌아가면 곧 죽을 판입니다. 지금 장수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에게 모욕을 당했기에 일부러 항복하며 이 사실을 알리러 왔습니다."

조인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오늘 밤에 몰래 진영을 습격해 주유의 시신을 탈취하고 그 머리를 베어 허도로 가져가기로 의논했다. 진교가 말했다. "이 계획은 서둘러 실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조인은 즉시 우금을 선봉으로 삼고 자신이 중간 부대를 이끌었으며, 조홍과 조순을 후방 지원군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진교에게는 적은 수의 병사만 남겨 성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출동시켰다. 밤 초경 무렵, 군사들은 성을 나서서 곧장 주유의 큰 진영으로 향했다. 그런데 진영 문 앞에 도착하니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그저 깃대와 창들만 덩그러니 꽂혀 있을 뿐이었다. 조인은 계책에 빠진 것을 직감하고 급히 군대를 물러나게 했다. 그때 사방에서 일제히 포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쪽에서는 한당과 장흠이 몰려오고, 서쪽에서는 주태와 반장이 공격해 왔으며, 남쪽에서는 서성과 정봉이, 북쪽에서는 진무와 여몽이 달려들었다. 조조의 군대는 대패하여 세 갈래로 나뉜 군사들이 모두 흩어졌고, 앞뒤가 서로를 구해주지도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다.

조인이 십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포위망을 뚫고 달려 나가다 마침 조홍과 마주치자, 패하여 흩어진 군사들을 이끌고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다. 새벽 다섯 시경, 남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툭툭이 또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으며 한바탕 몰아쳤다.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비스듬히 방향을 틀어 겨우 빠져나가는 와중에, 이번에는 감녕이 나타나 다시 한번 크게 공격해 왔다. 조인은 감히 남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곧장 양양으로 향하는 큰길로 방향을 돌렸다. 오나라 군대는 한참을 뒤쫓다가 이내 돌아갔다.

주유와 정보가 군사들을 불러 모아 거침없이 남군 성 아래로 진격했다. 성벽에는 깃발이 가득 꽂혀 있었는데, 적의 성루 위에서 한 장수가 외쳤다.

"도독님, 죄송합니다! 저는 군사의 명령을 받들어 이미 성을 점령했습니다. 저는 상산 출신의 조운입니다!"

주유는 크게 분노하며 즉시 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성 위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왔다. 주유는 일단 군대를 물려 돌아가 상의하기로 했다. 그는 감녕에게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주를 먼저 점령하게 하고, 룡통에게도 수천 명의 군사를 주어 양양을 먼저 취하게 한 뒤, 그 다음에 남군을 공격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군사를 나누어 배치하고 있던 중, 갑자기 정찰병이 달려와 급히 보고했다. “제갈량이 남군을 차지하자마자 병부를 이용해 밤낮없이 형주의 수비군을 구하러 오는 것처럼 속여 불러냈습니다. 그 틈을 타 장비가 형주를 습격했습니다!”

또 다른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하후돈은 양양에 있었는데, 제갈량이 사람을 보내 병부를 전달하며 조인이 구원을 요청한다는 거짓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속아 하후돈이 군사를 이끌고 밖으로 나오자, 관우가 양양을 습격해 점령했습니다. 두 성 모두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모두 유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유가 소리쳤다. “제갈량이 대체 어떻게 병부를 손에 넣었던 말이나?”

정부가 대답했다. “그가 진교를 붙잡았으니, 병부는 자연히 제갈량의 손에 넘어간 것이겠지요.”

주유는 비명을 지르듯 크게 소리쳤고, 그 충격에 몸에 입었던 상처가 터져 피가 솟구쳤다.

여러 고을의 성채를 얻으려 애썼건만, 애써 고생한 보람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주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2회 — 제갈량이 지혜로 노숙을 떠나 보내고, 조자룡이 계책을 써서 계양을 취하다

諸葛亮智辭魯肅 趙子龍計取桂陽

한편, 주유는 제갈량이 남군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이어 형주 지역까지 장악했다는 말을 듣고 어찌 화가 나지 않겠는가? 화가 치밀어 오른 나머지 화병으로 화살 맞은 상처가 덧나 한참 동안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났다. 장수들이 곁에서 몇 번이고 달래며 위로하자 주유가 말했다. "저 제갈량이라는 시골뜨기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의 원한이 어찌 풀리겠느냐? 정덕모가 나를 도와 남군을 공격한다면, 반드시 동오의 땅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창 논의하던 중에 노숙이 찾아왔다. 주유가 노숙에게 말했다. "나는 군사를 일으켜 유비, 제갈량과 함께 승부를 겨루고 성들을 되찾으려 하오. 자경, 부디 나를 도와주시오."

노숙이 대답했다. "그건 안 됩니다. 지금은 조조와 대치 중이라 아직 승패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군께서도 합비 쪽을 공격하고 계시지만 아직 함락시키지 못하셨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땅을 빼앗으려 싸우다가, 만약 조조의 군사가 빈틈을 타서 몰려온다면 그 형세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하물며 유비는 예전에 조조와도 사이가 좋았던 사람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너무 몰아붙여서 그가 성을 내주고 우리 동오를 함께 공격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찌시렵니까?"

주유가 말했다. "우리가 계책을 쓰고 병사와 군량을 소모해가며 애를 써서 겨우 얻어낸 것을 저들이 가로채려 하니, 어찌 가슴이 울화가 치미지 않겠소!"

노숙이 말했다. "공근, 일단 참으십시오. 제가 직접 유비를 만나 이치를 들어 설득해 보겠습니다. 만약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 군사를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수들도 "자경의 말이 아주 옳습니다"라며 거들었다.

한편, 노숙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곧장 남군으로 향해 성문 아래에서 문을 두드렸다. 조운이 나가서 묻자, 노숙이 말했다. "유비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운이 대답했다. "우리 주군과 군사께서는 지금 형주 성 안에 계십니다." 노숙은 남군으로 들어가는 대신 곧장 형주로 달려갔다. 형주의 성문 앞에는 깃발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고 군대의 모습이 매우 당당했다. 노숙은 속으로 부러워하며 생각했다. '제갈량은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노숙 자경이 뵙기를 청한다고 보고했다. 제갈량은 성문을 활짝 열게 하여 노숙을 관

아로 맞이했다. 인사를 마친 뒤 손님과 주인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차를 다 마신 후 노숙이 입을 열었다. "우리 주군이신 손권 님과 도독 주유 님께서는 제가 거둬 유비님께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 조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강남을 위협하며 유비님을 해치려했으나, 다행히 동오가 조조의 군대를 물리쳐 유비님을 구했습니다. 그러니 형주의 아홉 군은 마땅히 동오의 차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비님이 꾀를 써서 형주와 양양 지역을 차지해 버렸으니, 강동은 돈과 군량, 군마를 헛되이 낭비하게 되었고 유비님은 그 이득을 홀로 누리고 계시니,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노숙 선생은 식견이 높고 밝은 분이신데,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흔히들 '물건은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형주의 아홉 군은 동오의 땅이 아니라 유표의 기반입니다. 우리 주군께서는 유표의 동생이 아니십니까? 유표가 비록 죽었으나 그 아들이 아직 살아 있으니, 숙부의 조카를 도와 형주를 차지하는 것이 어찌 안 될 일이겠습니까?"

노숙이 말했다. "만약 정말로 유기가 형주를 차지하고 있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유기는 강하에 있으니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물었다. "노숙 선생께서 유기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고는 즉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유기를 모셔 오라고 명했다. 곧 두 명의 시종이 병풍 뒤에서 유기를 부축해 나오는 것이 보였다. 유기가 노숙에게 말했다. "몸이 병들어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하니 노숙 선생께서는 부디 탓하지 마십시오."

노숙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뗐다. "유기가 이곳에 없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유기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이곳을 지킬 것이고, 만약 없다면 따로 상의할 방안이 있습니다."

노숙이 말했다. "만약 유기가 여기 없다면, 반드시 성과 땅을 우리 동오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노숙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대접했다.

잔치가 끝나고 노숙은 성을 나서서 밤을 도와 진영으로 돌아온 뒤, 앞서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주유가 말했다. "유기는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어찌 벌써 죽을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형주를 언제쯤 되찾을 수 있겠소?"

노숙이 대답했다. "도독님, 안심하십시오. 저 노숙이 반드시 형주를 되찾아 동오로 돌려놓겠습니다."

주유가 다시 물었다. "자경은 어떤 의견이 있소?"

노숙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 유기는 주색에 빠져 병이 이미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지금도 얼굴색이 수척하고 숨을 헐떡이며 피를 토할 정도이니, 반년도 지나지 않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때 형주를 취하려 가면 유비도 딱히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주유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손권이 사신을 보냈다. 주유가 사신을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자 사신이 말했다. "주공께서 합비를 포위하고 여러 번 싸웠으나 승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특별히 도둑계 대군을 거두어들이고, 병력을 나누어 합비로 보내 도와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유는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돌려 채상으로 돌아가 병을 치료하기로 하고, 정보에게 전함과 병사들을 거느리고 합비로 가서 손권의 명령을 따르도록 명했다.

한편, 유비는 형주와 남군, 형양을 차지하게 되자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의 먼 미래를 내다볼 계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때 한 사람이 대청으로 올라와 계책을 올리는데, 자세히 보니 바로 이적이었다. 유비는 예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를 매우 공경하며 자리에 앉혀 묻기를, "형주를 오랫동안 안정시킬 방책을 알고 싶는데, 어찌하여 현명한 선비들에게 묻지 않느냐?"라고 하였다. 이적이 대답했다. "형주와 형양을 오랫동안 지킬 방책을 알기 원하신다면, 어찌하여 어진 선비들을 찾아가 묻지 않으십니까?" 유비가 다시 물었다. "어진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적이 말했다. "형주와 형양의 마씨 형제 다섯 명은 모두 재능과 명성이 높습니다. 막내의 이름은 마속이고 자는 유상입니다. 그중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눈썹 사이에 흰 털이 있는 마량으로, 자는 계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씨 형제 다섯 중 흰 눈썹의 마량이 가장 뛰어난다'라고 속담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을 찾아 함께 의논하지 않으십니까?" 유비는 즉시 그를 청해 오라고 명했다. 마량이 도착하자 유비는 정중하게 예우하며 형주와 형양을 보존할 방책을 물

었다. 마량이 말했다. "형주와 형양은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인 땅이라 오래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유기를 이곳에 머물게 하여 병을 요양하게 하고, 옛 부하들을 불러 모아 이곳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유기를 형주 자사로 추천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 후에 무릉, 장사, 계양, 영릉의 네 군을 남쪽으로 정벌하여 군량과 재물을 모으는 것이 근본을 다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계책입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마량에게 물었다. "네 개의 군 중에서 어느 곳을 먼저 취해야 하겠느냐?"

마량이 대답했다. "상강 서쪽에 있는 영릉이 가장 가까우니 영릉을 먼저 취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무릉을 취하고, 그 후에 상강 동쪽의 계양을 취한 뒤 마지막으로 장사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비는 곧 마량을 종사로 삼고 이적을 그 부관으로 두었다. 이어 제갈량에게 상의하여 유기를 양양으로 돌려보내고, 관우를 대신해 유기가 형주를 지키게 할 방안을 구했다. 그리고 나서 군사를 움직여 영릉을 치기로 결정했다. 장비를 선봉으로 세우고 조운을 후방 지원으로 배치했으며, 제갈량과 유비가 중앙군을 맡아 총 1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었다. 관우는 형주를 지키게 남겨두었고, 미축과 유봉에게는 강릉을 지키도록 맡겼다.

한편, 영릉 태수 유도는 유비의 군대가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유현과 상의했다. 유현이 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장비와 조운 같은 용맹한 장수가 있다 하나, 우리 주에는 만

명의 적과 맞설 수 있는 형도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유도는 즉시 유현에게 형도영과 함께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으로 나가, 산과 물을 등지고 진을 치라고 명령했다.

이때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은 형도영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다. 양측 진영이 마주하자 형도영이 말을 타고 나가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반역자 놈들아, 감히 어디라고 우리 땅을 침범하느냐!"

그때 맞은편 진영에서 노란 깃발 한 뭉치가 보였다. 깃발이 열리자 네 바퀴 달린 수레 한 대가 밀려 나왔는데, 그 수레 안에는 머리에 갓을 쓰고 학의 깃털로 만든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부채를 든 채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부채를 흔들며 형도영을 향해 말했다. "나는 남양의 제갈량이다. 조조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도 나의 작은 계책 하나로 단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하게 궤멸시켰거늘, 너희가 어찌 감히 나를 대적하려 하느냐? 나는 지금 너희를 달래어 항복시키러 왔으니,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형도영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적벽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긴 것은 주유의 계책이지, 네놈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어디서 감히 거짓을 늘어놓느냐!" 말을 마치자마자 형도영은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제갈량을 향해 돌진했다. 제갈량은 즉시 수레를 돌려 진영 안쪽으로 달려 들어갔고, 진영의 문도 다시 닫혔다. 형도영이 거침없이 살기를 뿔으며 밀고 들어오자, 급히 흩어지던 군사들이 양옆으로 갈라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형도영이 멀리 중앙에 보이는 노란 깃발 뭉치를 보고 제갈량이

라 짐작하여 그 깃발을 향해 맹렬히 쫓아갔다. 산기슭을 지나는데 노란 깃발이 멈춰 서더니, 갑자기 중앙이 갈라지며 수레들이 사라졌다. 대신 한 장수가 창을 치켜든 채 말을 타고 뛰어오르며 크게 호통을 치고는 형도영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는데, 바로 장비였다. 형도영이 큰 도끼를 휘두르며 맞섰으나 몇 합 싸우지 못해 기력이 다하자, 즉시 말을 돌려 달아났다. 장비가 뒤를 이어 쫓아오며 내지르는 함성에 진동이 일자, 양측의 복병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형도영이 죽기를 각오하고 돌파하려는데, 앞길을 막아선 한 장수가 길을 가로막으며 크게 외쳤다. "상산의 조운을 알아보겠느냐?"

형도영은 적의 기세를 당해낼 수 없고 도망칠 곳도 없음을 깨닫고, 결국 말에서 내려 항복을 청했다. 조운이 그를 포박하여 진영으로 끌고 가니, 유비와 제갈량이 그 자리에 있었다. 유비가 호통을 치며 당장 목을 베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제갈량이 급히 만류하며 형도영에게 물었다. "만약 네가 우리와 함께 유현을 잡는다면 항복을 허락하겠나." 형도영은 연신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제갈량이 다시 물었다. "어떤 방법으로 그를 잡겠다는 말이냐?" 형도영이 말했다. "군사께서 저를 돌려보내 주시기만 한다면 저에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오늘 밤 군사께서 군사를 이끌고 진영을 습격할 때, 제가 안에서 내응하여 유현을 산 채로 잡아 군사께 바치겠습니다. 유현이 잡히면 유도도 절로 항복할 것입니다." 유비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제갈량이 "형 장군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형도영을 놓아주었다. 형도영은 진영으로 돌아가 방금 있었던 일을 유현에게 보고했다. 유현이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라고 묻자, 형도영이 말했다. "상대의 계책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오늘 밤 병사들을 진영 밖에 매복시키고, 진영 안에

는 깃발만 세워둔 채 제갈량이 습격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붙잡아야 합니다."

유현은 계책에 따라 움직였다. 그날 밤 이경이 되자, 과연 군사 한 무리가 진영 입구에 나타났다. 그들은 저마다 짚단을 하나씩 들고 일제히 불을 질렀다. 유현과 형도영이 급히 달려 내려가자 불을 지르던 군사들은 곧바로 퇴각했다. 유현과 형도영은 그 기세를 몰아 십여 리를 추격했으나, 군사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유현과 형도영이 크게 놀라 급히 본진으로 돌아가 보니, 아직 불길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때 진영 안에서 장수 한 명이 돌연 튀어나왔는데, 바로 장비였다. 유현이 형도영에게 말했다.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요. 차라리 제갈량의 진영을 습격하러 갑시다." 하고는 다시 군사를 돌려 퇴각했다. 채 십 리도 못 가서 조운이 군사를 이끌고 옆에서 들이닥쳐 창으로 형도영을 말 아래로 찔러 넘어뜨렸다. 유현이 급히 말을 몰아 도망치려 하자, 뒤쫓아온 장비가 그를 말 위로 낚아채 생포하여 제갈량 앞으로 끌고 갔다. 유현이 고했다. "형도영이 저를 부추겨 이렇게 한 것이지, 결코 제 본심은 아닙니다." 제갈량은 유현의 포박을 풀게 하고 새 옷을 입혀준 뒤, 술을 내려 놀란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 성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설득해 항복하게 하라고 일렀다.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성을 함락시키고 가문 전체를 몰살하겠다고 덧 붙였다.

유현은 영릉으로 돌아가 아버지 유도를 만났다. 유현은 제갈량의 덕망을 상세히 설명하며 아버지가 항복할 것을 권했다. 유도는 그 말을 따랐고, 곧 성 위에 항복 기를 올리고 성문을 활짝 열었다. 이어 인장을

받들어 성 밖으로 나가 유비의 대영채로 가서 항복했다. 제갈량은 유도를 그대로 군수로 삼게 했고, 그의 아들 유현은 형주로 가서 군의 사무를 돕게 했다. 이로써 영릉군 주민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유비가 성에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장수들에게 물었다. "영릉을 이미 얻었으니, 계양군은 누가 가서 차지하겠느냐?" 그러자 조운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옆에 있던 장비도 기세 좋게 나서며 외쳤다. "나도 가고 싶다!" 두 사람이 서로 가겠다고 다투자, 제갈량이 말했다. "결국 조운이 먼저 대답했으니, 조운을 보내도록 합시다." 하지만 장비는 승복하지 않고 반드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제갈량은 제비뽑기를 하자고 제안하여, 뽑는 사람이 가게 하기로 했다. 그런데 또 조운이 뽑혔다. 장비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남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나 혼자 삼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성을 확실히 함락시키겠다." 그러자 조운이 말했다. "저 역시 삼천 군사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만약 성을 얻지 못한다면 군령에 따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령장을 쓰게 하고, 정예병 삼천 명을 뽑아 조운에게 맡겨 보냈다. 장비가 여전히 불만을 품고 따르려 했으나, 유비가 꾸짖어 물러나게 했다.

조운은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곧장 계양으로 향했다. 일찌감치 정찰병이 계양 태수 조범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조범은 급히 사람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관군 교위인 진응과 포룡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겠다고 자원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모두 계양의 산골 마을 출신 사냥꾼이었는데, 진응은 비차를 잘 다루었고 포룡은 호랑이 두

마리를 쏘아 죽인 실력자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용맹을 믿고 조범에게 말했다. "유비가 온다면 저희 두 사람이 앞장서서 맞서겠습니다."

그러자 조범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라 하고, 제갈량은 지략이 뛰어나며 관우와 장비는 용맹하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네. 게다가 이번에 군사를 이끌고 오는 조운은 당양 장판파에서 백만 대군 사이를 마치 아무도 없는 곳처럼 누볐다는데, 우리 계양에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겠는가? 적을 맞서 싸우기보다는 항복하는 것이 옳네."

진응이 다시 말했다. "제발 출전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조운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태수직을 내놓고 항복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조범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진응이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려는데, 멀리서 조운이 이끄는 군대가 오는 것이 보였다. 진응은 진을 치고 말을 달려 앞으로 나섰다. 조운 역시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나가며 진응을 꾸짖었다.

"우리 주군 유비는 유표의 동생이다. 지금 유기를 도와 함께 형주를 다스리고 있으니, 특별히 백성들을 보살피러 온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적대하며 맞서느냐?"

진응이 맞서며 소리쳤다.

"우리는 오직 조조 승상만을 섬길 뿐, 어찌 유비에게 순종하겠느냐!"

조운은 크게 노하여 창을 곧게 세우고 말을 몰아 진응을 직접 겨냥해 들이받았고, 진응도 창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말이 부딪치며 대여섯 합을 싸우던 중, 진응은 상대가 되지 않음을 직감하고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조운이 그 뒤를 쫓았다. 진응이 뒤를 돌아보니 조운의 말이 바짝 다가와 있었다. 그는 급히 창을 던졌으나 조운이 이를 낚아채 다시 진응에게 던져버렸다. 진응이 급히 몸을 피하는 사이 조운의 말이 먼저 도착했고, 조운은 진응을 말 위로 낚아채 땅바닥에 내팽개친 뒤 군사들에게 명령해 포박하여 진영으로 끌고 가게 했다. 패배한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조운이 진영으로 들어가 진응을 꾸짖으며 말했다.

"네까짓 게 감히 나를 상대하려 하느냐! 이번에는 살려 보내줄 테니, 조범에게 가서 어서 항복하라고 전하라."

진응은 죄를 빌며 머리를 감싸 쥐고 혼비백산하여 성안으로 도망쳤다. 성으로 돌아온 진응이 조범에게 모든 일을 사실대로 말하자, 조범이 꾸짖으며 말했다.

"나는 본래 항복하려 했는데, 네가 억지로 싸움을 걸어 이 사단을 만들었구나."

조범은 즉시 진응을 물러가게 한 뒤, 관인을 받들어 들고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유비의 대영으로 가서 항복했다. 조운이 진영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귀한 손님처럼 대접했다. 술을 차려 함께 마시며 관인을 넘겨받았다. 술자리가 몇 차례 이어지자 조범이 말했다.

"장군님의 성은 조씨이고 저 또한 조씨입니다. 오백 년 전에는 본래 한 집안이었지요. 장군님은 진정 사람이고 저 또한 진정 사람이니 고향도 같습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의형제를 맺고 지낼 수 있다면 참으로 큰 행운이겠습니다."

조운은 크게 기뻐하며 서로 나이를 따져 보았다. 조운과 조범은 태어난 해가 같았고, 조운이 조범보다 네 달이 더 빨랐다. 이에 조범은 조운을 형으로 모시기로 했다. 두 사람은 고향도 같고 태어난 해와 성씨까지 같으니 마음이 아주 잘 맞았다. 저녁 술자리가 끝나자 조범은 성으로 돌아가겠다며 작별을 고했다.

다음 날, 조범은 조운에게 성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심시키라고 청했다. 조운은 군사들에게 휴식을 명하고, 단 오십 명의 기병만을 데리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향을 피워 들고 길가에 엎드려 그를 맞이했다. 조운이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조범은 그를 관아로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조범이 다시 조운을 후당 깊숙한 곳으로 모셔 잔을 씻고 술을 새로 따랐다. 조운이 기분 좋게 취기가 올랐을 무렵, 조범이 갑자기 한 여인을 불러 조운과 함께 술을 마시게 했다. 조운이 보니 그 여인은 하얀 옷을 입었음에도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빼어난 미색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조운이 조범에게 물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조범이 대답했다. "저의 형수님이신 번씨입니다." 조운은 즉시 태도를 바로잡고 예의를 갖추었다. 번씨가 술을 다 마시자 조범은 그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으나, 번씨는 사양하며 후당으로 물러갔다. 조운이 말했다. "아우님, 어찌하여 형수님께 술잔을 들게 하여 번거롭게 하시오?" 조범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만

한 사정이 있으니 부디 막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형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삼 년이 되었습니다. 형수님께서 홀로 지내시는 것이 영 마음이 쓰여 제가 자주 재가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 시집을 가겠다. 첫째는 문무를 겸비하여 천하에 이름을 떨쳐야 하고, 둘째는 풍채가 당당하고 위엄이 넘쳐야 하며, 셋째는 돌아가신 형님과 성이 같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토록 딱 들어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님께서서는 풍채가 당당하고 이름 또한 사해에 떨치고 계시며, 또 돌아가신 형님과 성까지 같으시니 바로 형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에 딱 맞습니다. 만약 형수님의 외모가 미천하다 하여 꺼리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혼수까지 정성껏 준비하여 장군을 아내로 맞이하게 함으로써 대대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조운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일어나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미 당신과 의형제를 맺었으니, 당신의 형수는 곧 나의 형수요! 어찌 인륜을 어지럽히는 짓을 한단 말이오!" 조범은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어져 대답했다. "나는 호의로 대하였거늘,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구는가!" 그러면서 조범은 눈짓으로 좌우를 살피며 해치려는 기색을 보였다. 조운은 이미 이를 알아채고 주먹으로 조범을 쓰러뜨린 뒤, 곧장 관아 문을 나서 말에 올라타고는 성 밖으로 떠나버렸다.

조범이 급히 진응과 포룡을 불러 모아 상의했다. 진응이 말했다. "저자가 화가 나서 달려가고 있으니, 그저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범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저자를 이기지 못할까 두렵소." 그러자 포룡이 말했다. "우리 둘이 거짓으로 항복하여 저자의 군대에 들어가

있읍시다. 그때 태수가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가 진영 위로 뛰어올라 저자를 사로잡는 겁니다." 진응이 말했다. "반드시 부하들을 좀 데려가야 합니다." 포룡이 대답했다. "기병 오백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두 장수는 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운의 진영으로 찾아와 항복을 청했다. 조운은 이미 그들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했다. 두 장수가 막사 앞에 이르러 말했다.

"계양 태수 조범이 미인계로 장군을 속이려 합니다. 장군께서 술에 취해 뒷방으로 옮겨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살해한 뒤, 그 머리를 조조 승상에게 바쳐 공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저희 두 사람은 장군께서 분노하여 나가시면 반드시 연루될 것이 두려워 이렇게 항복하러 왔습니다."

조운은 겉으로 기뻐하는 척하며 두 사람에게 술을 내어 마음껏 마시게 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취하자, 조운은 그들을 막사 안에 묶어버렸다. 그리고 부하들을 잡아다 심문해 보니 과연 거짓 항복이 맞았다. 조운은 500명의 군사를 불러 술과 음식을 나누어 주며 명령을 내렸다.

"나를 해치려 한 자는 진응과 포룡뿐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내 계책을 따른다면 모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군사들이 절하며 감사를 표하자, 조운은 항복해 온 장수 진응과 포룡을 즉시 처형했다. 그리고는 500명의 군사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고,

자신은 1,000명의 군사를 뒤에 거느린 채 밤을 도와 계양 성문 앞에 도착하여 성문을 두드렸다.

성 위에서 듣고 있자니, 진 장군과 포 장군이 조운을 죽이고 군대를 돌려 태수에게 정사를 상의하러 왔다는 소리가 들렸다. 성 위에서 횃불을 비추어 살펴보니 과연 자기네 군마들이었다. 조범이 급히 성 밖으로 나오자, 조운이 좌우 부하들에게 명령해 그를 붙잡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조운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정돈한 뒤, 곧바로 유비에게 소식을 전했다.

유비와 제갈량이 직접 계양으로 달려갔다. 조운이 그들을 성 안으로 맞이하며 조범을 계단 아래로 밀쳐 내렸다. 제갈량이 그 이유를 묻자, 조범은 형수와 혼인하기로 약속했던 일을 언급하며 말했다.

제갈량이 조운에게 말했다. "이 또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거절하십니까?"

조운이 대답했다. "첫째, 조범은 이미 저와 의형제를 맺었는데, 제가 그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사람들의 비난을 살 것입니다. 둘째, 그의 아내가 재가하게 되면 대의를 잃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셋째, 조범은 이제 막 행복한 자라 그 마음을 믿기 어렵습니다. 주군께서 이제 막 강함과 형양을 평정하여 아직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어찌 여자 하나 때문에 주군의 대업을 그르치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이제 큰일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그대를 그 여인과 혼인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조운이 말했다. "천하에 여인이 적지 않은데, 다만 제 명예가 바로 서지 못할까 두려울 뿐입니다. 처자식이 없음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유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조운, 당신이야말로 참된 대장부рода!"

유비는 곧 조범을 풀어주고 그를 다시 계양 태수로 삼았으며, 조운에게는 큰 상을 내렸다.

장비가 크게 소리쳤다. "조운은 큰 공을 세웠는데, 저만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군요! 제게도 군사 삼천 명만 내어주십시오. 당장 무릉군으로 가서 태수 금선을 생포해 오겠습니다!"

제갈량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장비가 가고 싶다면 못 갈 것도 없네. 다만 한 가지 조건만 들어주게."

과연 제갈량이 말한 그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

군사는 기묘한 계책으로 승리를 결정짓고, 장수와 병사들은 앞다투어 전공을 세우려 한다. 제갈량이 내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3회 — 관운장이 의리로 황한승을 풀어주고, 손중모가 장문원과 크게 싸우다

關雲長義釋黃漢升 孫仲謀大戰張文遠

한편, 제갈량이 장비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조운이 계양군을 취할 때도 군령장을 쓰고 나갔지요. 이번에 장비가 무릉을 취하려 한다면, 반드시 군령장을 써야만 군사를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장비는 곧바로 군령장을 작성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삼천 군사를 거느린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릉 경계로 달려갔다.

금선은 장비가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장수와 장교들을 모아 정예 병사와 무기를 점검하게 한 뒤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려 했다. 이때 종사 공지가 간언했다.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으로서 천하에 인의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장비는 용맹함이 비할 데 없이 뛰어납니다. 직접 맞서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자 금선이 크게 노하며 꾸짖었다.

"네 이놈, 적과 내통하여 안에서 변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냐?"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금선은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공지를 끌어내 처형하려 했다. 그러자 모든 관리가 달려들어 만류했다.

"가죽을 먼저 처형하는 것은 군대에 좋지 않은 일이옵니다."

금선은 공지를 꾸짖어 물러나게 하고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성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서 마침 장비와 마주쳤다. 장비는 창을 치켜든 채 말 위에 올라서서 금선을 향해 크게 호통을 쳤다. 금선이 부하 장수들에게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라고 물었으나, 모두가 겁에 질려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에 금선이 직접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맞서려 했다. 그때 장비가 한 번 크게 호통을 치니, 그 소리가 마치 거대한 천둥소리와 같았다. 금선은 안색이 변해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장비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 뒤를 쫓으며 몰아쳤다. 금선이 간신히 성벽 근처까지 도망치자, 성 위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금선이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니, 공지가 성 위에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너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니 스스로 패망을 자초하는구나! 나는 백성들과 함께 유비에게 항복하겠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살 한 대가 금선의 얼굴을 정면으로 맞혔고, 그는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군사들이 그의 머리를 베어 장비에게 바치자, 공지는 성 밖으로 나와 항복했다. 장비는 공지에게 인장을 지참하여 계양에 있는 유비를 찾아가라고 명했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공지가 금선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유비가 직접 무릉까지 가서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장비와 조운이 각각 한

군을 얻었다는 내용을 담아 관우에게 서신을 보냈다. 관우는 답장을 보내 이렇게 청했다. "장사를 아직 취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무능하다 여기지 않으신다면, 저에게 이 공을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장비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관우를 대신해 형주를 지키게 하고, 관우에게는 장사를 취하러 오라고 명했다. 관우가 도착하여 유비와 제갈량을 뵈자, 제갈량이 말했다. "조운은 계양을 취하고 장비는 무릉을 취할 때 모두 삼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장사의 태수 한현은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에게는 남양 출신의 대장 한 명이 있습니다. 성은 황이고 이름은 충이며 자는 한승인데, 유표 휘하의 중랑장으로서 유표의 조카인 유반과 함께 장사를 지키다가 나중에 한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올해 나이가 예순에 가깝지만,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지녔으니 결코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관우께서 가실 때는 반드시 군마를 넉넉히 데려가셔야 합니다."

관우가 말했다.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적의 기세만 살려주고 우리군의 위풍만 꺾으려 하십니까? 황충 같은 노병 하나가 뭐라고 이리 난리입니까! 저는 삼천 명의 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 휘하의 교도수 오백 명만 있으면 충분하니, 황충과 한현의 목을 베어 주군께 바치겠습니다." 유비가 간곡히 말렸으나 관우는 듣지 않고, 결국 교도수 오백 명만을 거느린 채 길을 떠났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말했다. "관우가 황충을 앞두고 있으니 혹여 잘못될까 걱정됩니다. 주공께서 직접 따라

가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장사를 향해 진격했다.

한편, 장사의 태수 한현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겨, 모든 이들이 그를 싫어했다. 이때 관우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즉시 노장 황충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황충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의 이 칼과 활만 있다면, 적군이 천 명이라 해도 천 명 모두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본래 황충은 두 섬 힘으로 당기는 강력한 활을 다룰 수 있었으며, 백발백중의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며 달려 나왔다. “노장군께서 출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만 보내주신다면 반드시 관우를 생포하겠습니다.” 한현이 보니 그는 바로 군 교위 양령이었다. 한현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양령에게 군사 천 명을 이끌고 성 밖으로 급히 나가라고 명령했다. 군사들이 50리쯤 달려갔을 때, 먼지가 일어나는 곳 너머로 관우의 군마가 벌써 도착해 있는 것이 보였다. 양령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나가 진영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었다. 관우는 크게 분노하여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곧장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양령을 덮쳤다. 양령도 창을 내밀며 맞서 싸웠으나, 세 합을 채 겨루기도 전에 관우가 칼을 내리쳐 양령을 말 아래로 베어 넘겼다. 관우는 패퇴하는 병사들을 성 아래까지 쫓아가며 추격했다.

한현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황충을 출전시켰다. 한현은 성 위에서 직접 지켜보았다. 황충은 칼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오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조교를 빠르게 건너왔다. 관우는 노장 황충이 출전하는 것

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린 뒤, 오백 명의 교도수를 일렬로 늘어세우고 말 위에 올라 칼을 가로로 든 채 물었다. “나오너라! 네가 혹시 황충이나?” 황충이 대답했다. “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어찌 감히 내 영토를 침범하려 드느냐!” 관우가 말했다. “네 목을 취하러 왔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장수가 말을 달려 부딪쳤고, 백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현은 황충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징을 울려 군사를 물렸다. 황충이 군사를 거두어 성 안으로 들어가자 관우도 군사를 물려 성에서 십 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관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노장 황충의 명성이 헛되지 않구나. 백 합을 싸우는 동안 빈틈이 전혀 없으니, 내일은 반드시 탁도계(拖刀計)를 써서 뒤를 쳐 이기고 말겠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관우는 다시 성 아래로 내려와 싸움을 청했다. 한현은 성 위에 앉아 황충을 출전시켰다. 황충이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조교를 건너와 다시 관우와 맞붙었다. 또 오륙십 합을 싸웠으나 여전히 승패가 나지 않자, 양측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북소리가 급해지자 관우는 말머리를 돌려 달려나갔고, 황충도 뒤따라왔다. 관우가 막 칼을 휘두르려던 찰나, 갑자기 뒤통수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뒤를 돌아보니 황충이 탄 말이 앞발을 들며 비틀거리다 황충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있었다. 관우는 급히 말을 돌려 돌아오며, 두 손으로 칼을 높이 치켜든 채 크게 외쳤다.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 어서 말을 갈아타고 다시 싸우자!” 황충은 급히 말 발굽을 붙잡고 몸을 날려 말에 올라탄 뒤 성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한현이 놀라 이유를 묻자, 황충이 대답했다. “이 말이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오지 않아 실수를 저질렀소.” 한현이 말했다. “그대의 화살은 백

발백중이라는데, 어찌하여 쏘지 않았소?” 황충이 말했다. “내일 다시 싸울 때,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조교 근처까지 유인한 뒤에 쏘겠소.” 한현은 자신이 타고 있던 청마 한 필을 황충에게 내주었다. 황충은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 물러났다.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관우처럼 의리 있는 사람을 만나다니! 그는 나를 차마 죽이지 못했는데, 내가 어찌 그를 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쏘지 않으면 군령을 어기게 될 터인데…….’ 황충은 그날 밤 내내 갈등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관우가 도전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황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갔다. 관우는 이틀 동안 황충과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해 몹시 초조해진 상태였다. 그는 위엄을 떨치며 황충과 말 위에서 맞붙었다. 싸움이 서른 합을 넘기기도 전에 황충이 거짓으로 패하며 물러났고, 관우가 그 뒤를 쫓았다. 황충은 어제 관우가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떠올리며 차마 화살을 쏘지 못하고, 칼을 쥔 채 활시위만 팽팽하게 당겨 소리만 냈다. 관우가 급히 몸을 피했으나 화살은 보이지 않았다. 관우가 다시 달려들자 황충은 또 시위만 당겼다. 관우가 다시 몸을 피했으나 이번에도 화살은 없었다. 관우는 그저 황충이 활을 잘 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달려들었다. 관우가 조교 근처에 다다랐을 때, 다리 위에 있던 황충이 화살을 메워 활을 쏘았다. 시위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관우의 투구 장식 뿌리 부분을 맞혔다. 앞서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깜짝 놀란 관우는 화살이 박힌 채로 진영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황충에게 백 걸음 밖에서도 버드나무 잎을 꿰뚫는 신묘한 활솜씨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오늘 화살이 투구 장식에 맞은 것은 바로 어제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었다.

관우가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났다. 황충은 성 안으로 돌아와 한현을 알현했으나, 한현은 즉시 좌우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황충을 붙잡게 했다. 황충이 “죄가 없습니다!”라고 외쳤으나, 한현은 크게 노하며 꾸짖었다. “내가 사흘 동안 지켜보았는데, 네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냐! 너는 그저께 힘을 다해 싸우지 않았으니 분명 판 마음을 품었음이 틀림 없다. 어제는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가 너를 죽이지 않은 것은 분명 미리 짠 것이리라. 오늘은 두 번이나 활시위를 헛되이 당기더니, 세 번째 화살로 그의 투구 장식을 정확히 맞혔으니, 이것이 겉으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안팎으로 결탁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너를 बे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다!” 한현은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황충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 처형하라고 호통쳤다. 장수들이 이 사실을 알리려 하자 한현은 “황충을 감싸려는 자는 모두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라며 엄포를 놓았다. 황충이 막 성문 밖으로 끌려가 처형당하려던 찰나, 갑자기 한 장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병사들을 베어 넘기고 황충을 구해냈다. 그는 크게 외쳤다. “황한승은 장사를 지키는 보루와 같은 인물인데, 지금 그를 죽이는 것은 장사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한현은 잔인하고 어질지 못하며, 현명한 이를 홀대하고 선비를 업신여기니, 마땅히 모두 힘을 합쳐 그를 처단해야 한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 오라!”

사람들이 그를 보니 얼굴은 붉은 대추처럼 탐스럽고 눈은 밝은 별처럼 빛났는데, 바로 의양 사람 위연이었다. 그는 양양에서 유비를 쫓던 중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한현에게로 흘러 들어왔다. 한현은 위연의 오만하고 예의 없는 태도를 수상히 여겨 그를 중용하지 않고 구석에 박혀 있게 두었다. 그러던 중 위연이 황충을 구해주자, 백성들에게 한현을

함께 죽이자고 외치며 팔을 걷어붙이고 호령했다. 그러자 백성 수백여 명이 그를 따랐고, 황충도 그 기세를 막아내지 못했다. 위연은 곧장 성벽 위로 돌격하여 칼로 한현을 두 토막 내고는, 그 머리를 들고 말에 올라 백성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관우에게 가서 항복했다. 관우는 매우 기뻐하며 성 안으로 들어가 민심을 달래고 안정을 시킨 뒤, 황충에게 나와 인사를 나누자고 청했다. 그러나 황충은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관우는 사람을 보내 유비와 제갈량을 모셔 오게 했다.

한편, 유비는 관우가 장사를 취하러 간 데 따라 제갈량과 함께 군사를 재촉하며 뒤를 받치러 가던 중이었다. 한창 길을 가는데 갑자기 푸른 깃발이 거꾸로 휘날리더니, 까마귀 한 마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날아오며 세 번을 연달아 울고는 사라졌다. 유비가 말했다. "이것은 어떤 화가 닥칠 징조인가, 아니면 복이 올 징조인가?" 제갈량이 말 위에서 소매를 흔들어 점을 치더니 말했다. "장사군을 얻었으니, 장수 또한 큰 인물을 얻을 것입니다. 오시(午時)가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한 전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관 장군께서 이미 장사를 점령하셨으며, 항복한 장수는 황충과 위연입니다. 주군께서는 그곳으로 오십시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장사로 향했다. 관우가 유비를 맞이하여 대청으로 모신 뒤, 황충에 관한 일을 상세히 아뢰었다. 유비는 직접 황충의 집을 찾아가 정중히 청하니, 황충이 비로소 나와 항복했다. 황충은 항복하면서 한현의 시신을 장사 동쪽에 묻게 해달라고 청했다. 후세의 사람들이 황충을 찬양하며 지은 시는 이러하다. “장군의 기개는 하늘에 닿을 듯 드높은데, 백발의 노장은 한나라 남쪽에서

분투하였네. 죽는 순간까지 원망 없이 마음을 다하였고, 항복하며 고개를 숙일 때조차 부끄러움을 느꼈다네. 눈부신 보검은 신통한 용맹을 드러내고, 바람을 가르며 철기병은 치열했던 전투를 떠올리게 하니, 천고에 남을 높은 명성은 사라지지 않고, 외로운 달처럼 영원히 상담을 비추리라.”

유비는 황충을 매우 극진히 대접했다. 이때 관우가 위연을 데리고 찾아오자, 제갈량은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위연을 끌어내어 죽이려 했다. 유비가 깜짝 놀라 제갈량에게 물었다. “위연은 공을 세웠을 뿐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죽이려 하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녹봉을 받으면서 주군을 죽이는 것은 불충이며, 그 땅에 살면서 땅을 바치는 것은 불의입니다. 제가 보기에 위연은 뒷머리에 반골의 뼈가 있어 머지않아 반드시 배반할 자이니, 화근을 미리 없애기 위해 먼저 베려는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만약 이 사람을 죽인다면 항복해 온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를 위협하게 여길까 두렵습니다. 군사께서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갈량이 위연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이번에는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너는 마땅히 충성을 다해 주군께 보답해야 하며, 결코 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만약 딴 마음을 품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네 목을 베어버리겠다.” 위연은 연신 대답하며 물러갔다. 한편, 황충은 유표의 조카인 유반을 추천했는데, 그는 현재 유현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다. 유비는 유반을 불러들여 장사군을 맡게 했다. 이로써 네 군을 모두 평정한 유비는 군사를 돌려 형주로 돌아왔으며, 유강구를 공안으로 고쳤다. 이때부터 재물과 식량이 풍족해지고 현명한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으며, 장수와 군사들은 요충지에 흠어져 진을 치고 주둔하게 되었다.

한편, 주유는 시상으로 돌아가 병을 치료하게 하고, 감녕에게는 파릉군을, 능통에게는 한양군을 지키게 하여 두 곳에 전함을 배치해 두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정보가 나머지 장병들을 이끌고 합비현으로 왔는데, 알고 보니 손권은 적벽에서 큰 전투를 치른 뒤로 오랫동안 합비 근처에 머물며 조조의 군대와 열 번 넘게 맞붙었으나 아직 승부를 가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감히 성을 압박해 진을 치지 못하고 성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정보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직접 진영으로 나가 군사들을 격려했다. 이때 노숙이 먼저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손권은 말에서 내려 서둘러 그를 맞이하며 예를 갖추었다. 장수들은 손권이 노숙을 이토록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 손권이 노숙에게 말에 올라타 함께 가자고 청하며 고삐를 잡고 나란히 가다가, 은밀히 이렇게 물었다. “내가 말에서 내려 맞이했으니, 이 정도면 그대를 충분히 예우한 것이 되겠소?” 노숙이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권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대를 진정으로 예우하는 것이 되겠소?” 그러자 노숙이 말했다. “명공의 위엄과 덕망이 온 세상에 떨치고, 천하를 하나로 아울러 황제의 대업을 이루어 저의 이름이 역사서에 기록될 때라야 비로소 예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장수의 손을 어루만지며 크게 웃더니 함께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치열하게 싸운 장병들을 격려하고, 합비의 조조군을 격파할 계책을 논의했다. 그때 갑자기 장료가 전서를 보내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손권이 서신을 뜯어 읽고는 크게 노하며 외쳤다.

"장료가 나를 너무도 업신여구는구나! 정보의 군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싸움을 걸어오다니! 내일은 새로 뽑은 군사가 아니라 정예병으로 적을 맞이할 것이니, 어디 한번 크게 싸워보자!"

손권은 명령을 내려 그날 밤 다섯 시경(오경)에 삼군이 진영을 나서 합비를 향해 진격하게 했다. 아침 7시경(진시) 무렵, 군마가 길 중간쯤 이르렀을 때 조조의 군사들도 이미 도착해 양측은 진을 치고 대치했다. 손권은 금빛 투구와 금빛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섰으며, 왼쪽에는 송겸이, 오른쪽에는 가화가 방천화극을 들고 양옆에서 호위했다.

북소리가 세 번 울리자 조조군의 진영에서 문 깃발이 양쪽으로 열리며, 무장을 갖춘 세 명의 장수가 진 앞에 나타났다. 중앙에는 장료가, 왼쪽에는 이전이, 오른쪽에는 악진이 서 있었다. 장료는 말을 몰아 앞장서며 오로지 손권을 상대로 결판을 내고자 했다. 손권이 창을 휘두르며 직접 싸우려던 찰나, 진영 문에서 한 장수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빠르게 튀어나왔으니, 바로 태사자였다. 장료가 칼을 휘두르며 맞서자 두 장수는 일흔에서 여든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조조군 진영에서 이전이 악진에게 말했다.

"맞은편에서 금빛 갑옷을 입고 있는 자가 손권이다. 만약 손권을 잡는다면 저 83만 대군에게 당한 원수를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악진이 말을 타고 달려와 칼을 휘두르며 손권을 노렸다. 그 모습이 마치 한 줄기 번갯불처럼 눈앞까지 날아와 칼을 내리쳤다. 송겸과 가화가 급히 화극으로 막아섰으나, 칼이 닿는 곳마다 화극 자루가 두 동강 나 버렸고, 겨우 자루만으로 말머리 쪽

을 후려쳐 막아냈다. 악진이 말을 돌리자 송겸이 군사의 손에 들린 창을 빼앗아 들고 쫓아왔다. 이때 이전이 활을 당겨 송겸의 가슴을 향해 화살을 쏘니, 송겸은 그대로 말에서 떨어졌다. 태사자는 뒤에서 누군가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장료를 뒤로한 채 본진을 향해 급히 말을 돌렸다. 장료는 이 기세를 몰아 몰아치며 공격해 들어갔고, 오나라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다. 장료가 손권을 발견하고 말을 몰아 맹렬히 추격했다. 장료가 거의 다 따라잡았을 무렵,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 선두에 선 장수는 바로 정보였다. 정보가 장렬히 싸워 장료의 공격을 막아내며 손권을 구했다. 장료는 군사를 거두어 합비로 물러갔다.

정보가 손권을 데리고 큰 진영으로 돌아오자, 패배한 군사들도 속속히 진영으로 복귀했다. 손권은 송겸이 전사한 것을 보고 크게 소리 내어 울었다. 그러자 장사였던 장홍이 말했다.

"주공께서 기세가 드높다 하여 적을 가볍게 여기시니, 삼군(三軍)의 병사들 모두가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령 적장의 목을 베고 깃발을 빼앗아 전장에 위엄을 떨친다 해도, 그것은 편장의 임무일 뿐 주공께서 직접 하실 일은 아닙니다. 부디 용맹함은 잠시 누르시고 왕을 다스리는 큰 계책을 품으십시오. 또한 오늘 송겸이 화살에 맞아 죽은 것도 모두 주공께서 적을 가벼이 여긴 탓이니, 앞으로는 반드시 몸을 소중히 하셔야 합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제부터 고치도록 하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사자가 막사로 들어와 보고했다. “제 수하에 성은 과, 이름은 정인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장료의 부하 중 말 먹이통을 관리하는 자와 형제 사이인데, 먹이통 관리하던 자가 문책을 당해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고 장료를 암살해 송겸의 원수를 갚겠다고 사람을 보내왔으니,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손권이 물었다. “과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태사자가 대답했다. “이미 합비성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제가 병사 오천을 이끌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제갈근이 만류했다. “장료는 지략이 뛰어난 자이니 분명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태사자가 완강하게 나가자, 손권도 송겸이 죽은 것에 슬퍼하며 급히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에 결국 태사자에게 병사 오천을 주어 밖에서 응원하게 했다.

한편, 과정은 태사자의 고향 사람이다. 그는 그날 군사들 틈에 섞여 합비성으로 들어갔다가, 말 먹이통을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내 둘이서 모의하였다. 과정이 말했다. “나는 이미 사람을 보내 태사자 장군께 소식을 전했다. 오늘 밤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구하러 올 터인데,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그러자 말 관리인이 대답했다. “이곳은 군영에서 꽤 멀어서 밤중에 급히 들어올 수가 없네. 그러니 우선 건초더미에 불을 질러놓게나. 그러면 자네는 앞장서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소리치며 성안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장료를 찔러 죽이게. 그러면 나머지 군사들은 알아서 흩어질 걸세.” 과정이 말했다. “그 계책 참으로 묘하구먼!”

그날 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료는 삼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모두에게 갑옷을 벗거나 잠자리에 드는 것을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곁에 있던 부하들이 말했다.

"오늘 대승을 거두었고 오나라 군사들도 멀리 달아났으니,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갑옷을 벗고 편히 쉬지 않으십니까?"

장료가 대답했다.

"아니다. 장수가 도를 행함에 있어 승리에 기뻐하지 말고 패배에 근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오나라 군사가 우리가 대비하지 않은 틈을 타서 허점을 공격해 온다면 어찌 대응하겠느냐? 오늘 밤의 대비는 매일 밤보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장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뒷채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비명과 함께 반란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빗발치듯 쏟아졌다. 장료는 즉시 막사를 나와 말에 올라탄 뒤, 친위 장교 수십 명을 불러 모아 길목을 지키게 했다. 부하들이 말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매우 급박하니 가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장료가 말했다.

"어떻게 성 전체가 한꺼번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반란군이 군사들을 놀라게 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만약 정말로 난리가 난 것이라면 먼저 베어버려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이 과정과 말먹이를 맡은 자(後槽)를 함께 사로잡아 왔다. 장료가 그 정황을 캐물어 알아낸 뒤, 즉시 두 사람을 말 앞에서 베어버렸다. 그때 성문 밖에서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장료가 말했다. “이것은 오나라 군사가 밖에서 응원하는 것이니, 바로 계책을 써서 격파하자.” 그러고는 즉시 사람을 시켜 성문 안쪽에 불을 지르게 했다. 그러자 군사들이 모두 반란이 일어난 듯 소리치며 성문을 활짝 열고 현수교를 내렸다.

태사자는 성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성안에서 변이 일어난 줄로만 알고,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 먼저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순간 성 위에서 포성이 울리더니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태사자는 급히 물러나다가 몸에 여러 발의 화살을 맞았다. 이때 뒤이어 이전과 악진이 돌격해 나왔다. 오나라 군사들은 절반 이상이 꺾였고, 조조의 군사가 그 기세를 몰아 곧장 오군의 진영 앞까지 추격해 왔다. 육손과 동습이 달려 나와 태사자를 구하자 조조의 군사들은 물러갔다. 손권은 태사자가 중상을 입은 것을 보고 더욱 슬퍼하며 가슴 아파했다. 장소가 손권에게 군사를 거두자고 청하자, 손권은 그 뜻을 따라 군사를 거두고 배에 올라 남서와 윤주로 돌아갔다. 군대를 정비하여 머물고 있을 때 태사자의 병세가 위중해졌다. 손권이 장소 등을 보내 안부를 물었으나, 태사자는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대장부가 난세에 태어났으면 마땅히 세 길 되는 칼을 차고 세상에 남을 공을 세워야 하거늘,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찌 죽어야 한단 말인가!” 말을 마친 태사자는 마흔한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지은 시가 이러하다. “충효를 다하려 뜻을 세운 동래의 태사자여, 그 이름은 먼 변방까지 널리 알려졌고, 활과 말로 웅장한 군대를 떨쳤네. 북해에서

은혜를 갚던 날과 신정에서 격렬히 싸우던 때를 기억하노니, 임종의 순간에 장한 뜻을 남겼으니 천만년 뒤에도 함께 탄식하리라.”

손권은 태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을 금치 못했다. 그는 태사자를 남서 복고산 아래에 정중히 장사 지내게 하고, 그의 아들 태사향을 자신의 집에서 보살피 키우도록 했다.

한편, 유비는 형주에서 군사를 정돈하던 중, 손권이 합비에서 패해 병사들을 이끌고 남서로 퇴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갈량과 의논하였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밤에 별자리를 살펴보니, 서북쪽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황족 중 누군가가 죽을 징조입니다."

한편, 갑자기 유비의 아들 유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비는 이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슬픔을 금치 못했다. 제갈량이 유비를 위로하며 말했다.

"삶과 죽음은 하늘의 뜻에 달려 있으니, 주공께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칫 몸을 상하게 하여 큰일을 그르칠까 염려됩니다. 우선 사람을 급히 보내 성을 지키게 하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십시오."

유비가 물었다.

"누구를 보내야 하겠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관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유비는 즉시 관우에게 명하여 양양으로 가서 성을 지키게 했다. 유비가 다시 말했다.

"이제 유기가 죽었으니, 동오에서 반드시 형주를 치러 올 텐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누군가 찾아오거든, 제가 알아서 대답하겠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동오의 노숙 일행이 조문을 하러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과연 제갈량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4회 — 오국태가 불사에서 신랑을 보고, 유황숙이 동방에서 좋은 인연을 맺다

吳國太佛寺看新郎 劉皇叔洞房續佳偶

한편, 제갈량은 노숙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유비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은 관청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노숙이 말했다.

"주군께서 황숙의 조카님(유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정성 어린 예물을 준비하여 저를 통해 조의를 표하고자 하셨습니다. 주유 도독께서도 유비와 제갈량 선생께 거듭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유비와 제갈량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를 표하며 예물을 받았고, 노숙을 위해 술을 대접했다. 노숙이 말을 이었다.

"전에 유비께서 '공자(유기)가 살아 있지 않으면 즉시 형주를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

니, 반드시 형주를 돌려주어야 할 텐데 언제쯤 인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우선 술부터 드시지요. 함께 상의할 방도가 있습니다."

노숙이 술을 몇 잔 들이켜고는 다시 말을 건넸다. 유비가 미처 대답 하기도 전에 제갈량이 안색을 바꾸며 말했다.

"자경께서는 어찌 이리도 이치에 어둡습니까! 남이 묻기만을 기다리 다니요! 우리 고향제께서 뱀을 베어 의병을 일으키신 이래로 기틀을 세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불행히도 간사한 영웅들이 여기 저기 일어나 각자 한 지방씩 차지하고 있으나, 하늘의 도리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정통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께서는 중산정왕의 후손이자 효경제의 현손이시며, 지금 황제의 숙부 되시는 분입니다. 어찌 땅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유경승은 우리 주인의 형님입니다. 동생이 형의 업을 잇는 것이 어찌 순리에 어긋난단 말입니까? 귀하의 주인은 전당의 작은 관리의 아들로, 본래 조정에 세운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력을 등에 업고 육군 팔십일 주를 차지하더니, 아직도 욕심이 부족하여 한나라의 땅까지 통째로 삼키려 하는군요. 이 유씨의 천하에서 유씨인 우리 주인은 오히려 아무 몫도 없거늘, 손씨인 귀하의 주인은 도리어 억지로 다투려 한단 말입니까? 또한 적벽대전에서 우리 주인이 수많은 노고를 치렀고 장수들도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 어찌 동오의 힘만으로 이런 일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동남풍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주유가 어찌

반 걸음의 공이라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강남이 무너진다면 두 교씨(대교·소교)가 동작궁에 갇히는 일은 물론이고, 귀하들의 가족조차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 주인이 즉시 대답하지 않은 것은, 자경께서 명철한 선비이시니 구태여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리도 살피지 못하십니까!"

제갈량의 말을 듣고 노숙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숙이 입을 열었다.

"제갈량의 말이 틀린 구석이 없는 듯싶소. 하지만 내 처지가 참으로 난처하구려."

제갈량이 물었다.

"어떤 점이 난처하다는 말씀입니까?"

노숙이 대답했다.

"예전에 유비께서 당양에서 위기를 맞으셨을 때, 제가 제갈량을 이끌고 강을 건너 주군을 뵈게 해 드렸소. 그 후 주유가 군사를 일으켜 형주를 취하려 할 때도 제가 앞장서서 막아냈지 않소. 또 공자(유기)가 세상을 떠나면 형주를 돌려주기로 한 일까지 제가 다 떠맡아 보증해 왔는데, 이제 와서 예전의 말을 번복한다면 제가 동오에 어떻게 보고를 하겠소? 그렇게 되면 제 주군과 주유가 반드시 저에게 죄를 물을 것이오. 나는 죽어도 한이 없으나, 오직 동오를 노엽게 하여 전쟁이라도 일어날까 두렵소. 그렇게 되면 유비께서도 형주에 편히 머물지 못하고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 아니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가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자의 이름을 빌려 움직인다 한들,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찌 주유 같은 어린아이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다만 선생님의 체면이 깎일까 염려되니, 제 주군께서 형주를 잠시 빌린다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 주군께서 다른 성을 얻게 될 때, 그때 형주를 동오에 돌려주면 될 일입니다. 이 방안은 어떻습니까?"

노숙이 물었다. "제갈량 선생, 대체 어느 곳을 얻으려는 계획이기에 그곳을 얻으면 우리 동오에 돌려주겠다는 것입니까?"

제갈량이 답했다. "중원은 당장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서천의 유장은 세력이 약하고 어리석으니, 우리 주군께서 그곳을 취하려 합니다. 만약 서천을 얻게 된다면, 그때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노숙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그 뜻에 따르기로 했다. 유비는 친필로 문서 한 장을 작성하여 서명했고, 보증인인 제갈량도 함께 서명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황숙의 측근이다 보니, 스스로 보증을 서는 모양새가 조금 그러합니다. 자경 선생께서도 함께 서명해 주셔야 나중에 손권을 뵈고 보고할 때도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노숙이 대답했다.

"황숙께서 인의를 아는 분임을 잘 알고 있으니,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겁니다."

노숙은 곧 문서에 서명한 뒤 서류를 챙겨 들었다. 잔치가 끝나고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유비와 제갈량은 노숙을 배가 있는 곳까지 배웅했다. 제갈량이 노숙에게 당부하며 말했다.

"자경 선생께서 손권을 만나시면, 우리의 뜻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판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 우리가 작성한 문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도 체면을 가리지 않고 팔십일 주를 모두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양측이 화목하게 지내어 조조 같은 도적놈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노숙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를 타고 돌아가, 먼저 시상에 있는 주유를 찾아갔다. 주유가 물었다. "자경, 형주 문제는 어떻게 되었소?" 노숙이 대답했다. "여기 문서가 있습니다." 노숙이 문서를 주유에게 건네자, 주유는 발을 구르며 탄식했다. "자경, 당신이 제갈량의 계략에 빠졌구려! 이름은 땅을 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이요. 서천을 얻으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가 언제 서천을 얻을지 누가 알겠소? 만약 십 년 동안 서천을 얻지 못하면, 십 년 동안 땅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 아니오? 이런 문서를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오! 그런데 당신이 거기서 보증까지 서주다니! 만약 그가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당신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요. 주군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어찌 죄를 물으시겠소?"

노숙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유비가 나를 배신할까 두렵구려." 주유가 대답했다. "자경은 참된 분이시지만, 유비는 교활한 영웅이고 제갈량은 간사한 무리이니, 그들의 마음이 선생의 인품과 같지는 않을 것이요. 아마 선생의 뜻을 저버릴지도 모르요."

노숙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주유가 말했다. “자경은 나의 은인이 아니오. 예전에 나에게 지균(집안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어찌 선생을 외면하겠소? 그러니 우선 마음을 편히 갖고 며칠만 머무시오. 강북에서 소식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방도를 찾아보겠소.” 노숙은 안절부절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며칠이 지난 뒤, 첩자가 돌아와 보고했다. “형주 성안에서는 상례를 치르기 위해 깃발을 내걸고, 성 밖에는 새로운 무덤을 만들고 있으며, 군사들은 저마다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주유가 깜짝 놀라 물었다. “누가 죽었던 말이나?” 첩자가 대답했다. “유비가 감부인을 잃어, 바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유가 노숙에게 말했다. “내 계책이 성공했소! 유비를 속여 꼼짝 못 하게 묶어두면, 형주는 손바닥 뒤집듯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노숙이 물었다. “그 계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오?” 주유가 말했다. “유비는 아내를 잃었으니 반드시 새로 장가를 들 것이오. 우리 주군께서는 아주 강단 있고 용맹한 누이동생이 한 분 계시는데, 시비만 수백 명에 평소에도 칼을 차고 다니며 방 안에는 무기가 가득하니 그 기세가 남자 못지않소. 내가 이제 주군께 상소를 올려, 사람을 형주로 보내 매파 역할을 하게 한 뒤 유비가 데릴사위로 들어오게끔 설득할 것이오. 유비가 남서에 도착하면 아내를 보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다음, 사람을 보내 형주를 내놓아야 유비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할 것이오. 그가 형주 성을 넘겨주고 나면 그때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이니, 자경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오.”

노숙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주유는 서신을 써서 보낸 뒤, 빠른 배를 골라 노숙이 남서로 가서 손권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노숙은 먼저 형주를 빌려준 일을 언급하며 그 서신을 올렸다. 손권이 말했다. "자네는 어찌 이리도 어리석은가! 이런 서신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러자 노숙이 대답했다. "주유 도독께서 이 계책을 쓰면 형주를 얻을 수 있다고 적은 서신이 여기 있습니다."

손권은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기뻐했다. '누구를 보내야 좋을까?' 생각하던 그는 문득 떠오른 듯 말했다. "여범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곧바로 여범을 불러 말하기를, "최근 유비가 부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내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유비를 데려와 사위로 삼아 영원히 사돈을 맺고, 마음을 합쳐 조조를 물리침으로써 한나라 황실을 돕게 하고 싶네. 자형(子衡), 자네가 아니면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없으니, 부디 즉시 형주로 가서 말을 잘 해보게나."라고 했다. 여범은 명을 받들어 그날로 배를 준비하고 몇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형주를 향해 떠났다.

한편, 유비는 감부인을 잃은 뒤로 밤낮없이 근심에 잠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비가 제갈량과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동오에서 여범을 보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분명 주유가 형주를 노리고 꾸민 계책입니다. 저는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주군께서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일단 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찾아온 사람은 관사에서 편히 쉬게 하고, 나중에 따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비는 여범을 안으로 모셔 들여 예우를 갖춘 뒤 자리에 앉혔다. 차를 다 마시자 유비가 물었다.

"여범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니, 분명 전할 말이 있는 모양이구려?"

여범이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황숙께서 부인을 여의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침 아주 좋은 혼처가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중매를 서러 왔습니다. 황숙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중년에 아내를 잃었으니 참으로 큰 불행이요. 아직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찌 곧바로 혼사를 논할 수 있겠소?"

여범이 말했다.

"사람에게 아내가 없으면 집의 대들보가 없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인륜을 중도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주군인 손권의 누이동생은 미모와 덕성을 모두 갖추어, 가정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만약 두 집안이 혼인을 통해 인연을 맺는다면, 조조 같은 도적놈도 감히 동남쪽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가문과 나라 모두에 이로운 일이니, 부디 황숙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희 오나라의 오국태께서 막내딸을 매우 아끼셔서 멀리 시집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 반드시 황숙께서 직접 동오로 오셔서 혼례를 치러야 합니다."

유비가 물었다.

"이 사실을 손권도 알고 있소?"

여범이 답했다.

"손권에게 먼저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멋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유비가 다시 말했다.

"내 나이 이미 쉰에 가까워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하오. 손권의 누이는 한창 꽃다운 나이일 텐데, 나와는 짝이 맞지 않을까 걱정되오."

여범이 말했다.

"손권의 누이는 비록 여인이지만 그 뜻은 사내보다 훨씬 높습니다. 평소 '천하의 영웅이 아니라면 따르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 황숙의 명성이 온 세상에 떨치고 있으니, 그야말로 현숙한 여인이 군자를 만나는 격인데 어찌 나이 차이를 따지겠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잠시 머물며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내일 다시 답을 주겠소."

그날 그들은 잔치를 베풀어 유비를 정중히 대접하며 관사에 머물게 했다. 저녁이 되자 제갈량은 유비와 함께 이 일을 논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여범이 찾아온 뜻은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점을 쳐보니 아주 크게 길한 징조가 나왔으니, 주공께서는 흔쾌히 승낙하셔도 됩니다. 우선 손건과 여범을 보내 손권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십시오. 면전에서 혼사를 허락한 뒤, 날을 잡아 친영을 가시면 됩니다."

유비가 걱정하며 말했다.

"주유가 계책을 세워 나를 해치려 할 텐데, 어찌 가벼운 몸으로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겠는가?"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주유가 비록 계책을 잘 쓴다 한들, 어찌 저의 계산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계책을 조금만 써도 주유는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손권의 누이가 주공의 부인이 된다면, 형주를 지키는 데 한 치의 실수도 없을 것입니다."

유비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제갈량이 손건을 보내 강남으로 가서 혼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손건은 명을 받들어 여범과 함께 강남으로 가서 손권을 만났다. 손권이 말했다. "나는 내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보내어 그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을 뿐, 다른 탄마음은 없습니다." 손건이 감사를 표하고 형주로 돌아가 유비에게 보고하니, 오나라 후가 유비를 사위로 맞이하기 위해 정중히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유비는 여전히 의심이 생겨 선뜻 움직이지 못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제가 이미 세 가지 계책을 세워두었으니, 조운이 아니면 이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조운을 가까이 불러 귓속말로 일렀다. "그대는 주군을 모시고 오나라로 들어가야 하니, 이 세 개의 금낭을 품에 지니고 가시오. 주머니 안에는 세 가지 묘책이 들어 있으니 순서대로 행하시오." 제갈량은 곧 세 개의 금낭을 조운에게 주어 몸에 지니게 했다. 그사이 제갈량은 먼저 사람을 보내 동오에 예물을 보내 혼례 준비를 모두 마쳐놓았다.

건안 14년 겨울 10월이었다. 유비는 조운, 손건과 함께 쾌속선 열 척을 빌리고 오백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채 형주를 떠나 남서로 향했다. 형주의 모든 일은 제갈량의 처분에 맡기기로 했다. 유비는 마음 한 구석이 못내 불안했다. 남서에 도착하여 배가 강가에 닿자, 조운이 말했다.

"군사께서 세 가지 비책을 나누어 주시며 차례대로 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도착했으니, 우선 첫 번째 금낭을 열어 확인해 보시지요."

그리하여 금낭을 열어 비책을 확인한 제갈량은 곧바로 수행 군사 오백 명을 불러 모아 일일이 명령을 내렸다. 군사들이 명령을 받고 물러가자, 제갈량은 유비에게 먼저 교국로를 찾아가라고 일렀다. 교국로는 이교의 아버지로 남서에 살고 있었다. 유비는 양을 끌고 술을 끓여진 채 먼저 그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며, 여범이 중매를 서서 손권의 누이와 혼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수행하던 군사 오백 명도 모두 붉은 비단으로 옷을 꾸며 예식 준비를 마쳤고, 남군에 들러 혼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들였다. 유비가 동오의 사위로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

지자 성안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손권은 유비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범을 보내 그를 정중히 맞이하게 한 뒤, 우선 관사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교국로는 유비를 만난 뒤 안으로 들어가 오국태를 찾아뵙고 경사를 축하했다. 오국태가 "무슨 기쁜 일이 있기에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교국로가 대답했다. "따님을 이미 유비의 부인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이제 유비가 도착했는데 어찌 저에게 숨기셨습니까?" 오국태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나는 그런 일을 전혀 몰랐소!" 그러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손권에게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게 하는 한편, 성안에 사람을 풀어 소문을 살피게 했다. 사람들의 보고는 이러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위 될 분은 이미 역참 관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행해 온 오백 명의 군사도 모두 성안에서 돼지와 양, 과일 등을 사며 혼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매를 선 쪽은 여범이고, 유비 측은 손건인데 두 사람 모두 역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국태는 크게 놀랐다.

잠시 후, 손권이 후당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뵈었다. 오국태는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했다. 손권이 "어머니, 어찌하여 이토록 근심하십니까?"라고 묻자, 오국태가 말했다. "너는 어찌 나를 이토록 안중에 없는 사람처럼 대하느냐! 내 누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너에게 무엇을 당부했더냐?" 손권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찌 이리 슬퍼하십니까?"라고 했다. 그러자 오국태가 말했다. "아들이 크면 장성하여 혼인을 하고, 딸이 크면 시집을 가는 것은 예부터 내려온 상식이다. 내가 네 어머니이니, 마땅히 네

게 허락을 구해야 할 것 아니냐! 유비와 혼인을 추진하면서 어찌 나를 속일 수 있단 말이냐? 내 딸은 마땅히 내 뜻대로 해야 한다!"

손권이 깜짝 놀라 물었다. "그게 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오국태가 대답했다. "모르게 하고 싶다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안의 백성들 중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저를 속이려 하는군요!"

교국로가 거들었다. "노부도 이미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오늘 특별히 축하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손권이 말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주유의 계책입니다. 형주를 빼앗으려고 이런 구실을 만들어 유비를 이곳으로 유인한 뒤, 가두어 두고 형주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유비가 응하지 않으면 그를 먼저 베어버릴 속셈이지요. 이것은 계책일 뿐, 진심이 아닙니다."

오국태가 크게 노하며 주유를 꾸짖었다. "그대가 육군 팔십일주의 대도독이라면서, 어찌 형주를 얻을 계책이 그것뿐이란 말이냐! 내 딸을 이용해 미인계나 쓰다니! 만약 유비가 죽기라도 하면 내 딸은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과부가 되는 것인데, 나중에 어떻게 다시 혼처를 찾겠느냐? 내 딸의 일생을 망칠 작정이냐! 다들 참으로 못된 짓을 하는구나!"

그러자 교국로가 거들었다. "이런 계책을 쓴다면 형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이 어떻게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손권은 아무 말 없이 침묵했고, 오국태는 멈추지 않고 주유를 몰아 세웠다.

교국로가 오국태를 달래며 말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 아니옵니까. 차라리 그를 진짜 사위로 맞이하여 망신당하는 일을 면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손권이 말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날까 걱정됩니다."

교국로가 대답했다. "유비는 당대의 호걸입니다. 그런 사위를 얻는다면 귀한 따님에게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국태가 말했다. "내가 유비를 직접 본 적은 없으니, 내일 감로사에서 만나보겠다. 만약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너희 마음대로 하되, 내 마음에 든다면 내 스스로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겠다."

손권은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기에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응낙하였다. 그는 밖으로 나가 여범을 불러, 내일 감로사 방장에게 명하여 연회를 베풀게 하고 오국태께서 유비를 만나고자 하신다는 뜻을 전하라고 일렀다.

그러자 여범이 말했다. "차라리 가화에게 명하여 도끼를 든 무사 삼백 명을 거느리고 양쪽 복도에 매복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

국태께서 마땅치 않게 여기시면, 신호 한 번에 양옆에서 일제히 튀어나와 그를 붙잡아 오면 되지 않습니까?"

손권은 곧바로 가화를 불러 미리 준비해 두되, 오국태의 움직임을 살피라고 명하였다.

한편, 교국로가 오국태에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며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알렸다. 내일 손권과 오국태가 직접 유비를 만나고자 하니 각별히 신경을 쓰라는 내용이었다. 유비는 손건, 조운과 함께 이 일을 의논했다. 그러자 조운이 말했다.

"내일 있을 만남은 길하기보다는 흉할 가능성이 높으니, 제가 직접 오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비님을 호위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국태와 교국로가 먼저 감로사 방장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어 손권이 여러 모사들을 거느리고 도착했는데, 손권은 여범을 시켜 관역에 있는 유비를 모셔 오게 했다. 유비는 안에는 세밀한 갑옷을 입고 겉에는 비단 도포를 걸친 채, 부하들이 등에 검을 메고 뒤를 바짝 따르는 모습으로 말을 타고 감로사로 향했다. 조운은 무장을 완비하고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며 수행했다. 절 앞에 도착해 말에서 내린 유비는 먼저 손권을 대면했다. 손권은 유비의 풍채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경외심을 느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눈 뒤, 곧장 방장으로 들어가 오국태를 뵈었다. 오국태는 유비를 보자 크게 기뻐하며 교국로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사위가 될 사람으로구나!" 교국로가 말했다. "유비는 용과 봉황의 기품이 있고 하늘의 빛을 머금은 듯한 풍채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인덕까지 천하에 널리 퍼뜨리고 있으니, 오국태께서 이런 훌륭한 사위를 얻으셨으니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유비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두 사람은 방장 안에서 함께 연회를 즐겼다.

잠시 후, 조운이 칼을 차고 들어와 유비의 곁에 섰다. 오국태가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유비가 대답했다. "상산 출신의 조운입니다." 오국태가 말했다. "혹시 당양 장판파에서 유선을 품에 안고 싸웠던 그 사람인가?" 유비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오국태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대장군이로군!" 그러고는 조운에게 술을 내렸다. 조운이 유비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방금 복도를 순찰하다 보니 방 안에 무장한 병사들이 매복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좋은 뜻은 아닐 터이니, 오국태께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유비는 즉시 오국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다. "만약 저 유비를 죽이려 한다면, 지금 당장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오국태가 놀라 물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유비가 말했다. "복도에 무장한 병사들이 몰래 숨어 있는데, 저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오국태는 크게 노하여 손권을 꾸짖었다. "오늘 유비가 나의 사위가 되었으니, 곧 내 자식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복도 아래에 칼과 도끼를 든 무사들을 매복시켜 놓았던 말입니까?"

손권은 영문을 몰라 여범을 불러 물었다. 여범이 가화를 지목하자, 오국태는 가화를 불러 호되게 꾸짖었다. 가화는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에 오국태는 당장 그를 참하라 명했다.

유비가 나서서 말했다. "장수를 죽이는 것은 천척에게도 이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리되면 제가 이곳에 오래 머물기 어렵겠습니다."

그러자 교국로가 유비의 말을 거들며 만류했다. 그제야 오국태는 가화를 물러가게 했다. 칼과 도끼를 들고 대기하던 무사들도 모두 머리를 감싸 쥐고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유비는 옷을 갈아입고 전각 앞으로 나왔다가, 뜰 아래에 놓인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유비는 수행원이 차고 있던 검을 뽑아 들고 하늘을 향해 맹세하며 말했다. "만약 내가 무사히 형주로 돌아가 천하를 평정하는 대업을 이룬다면, 이 검으로 돌을 내리쳐 두 토막을 내겠다. 만약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된다면, 이 검으로 돌을 내리쳐도 흠집 하나 내지 못할 것이다."

말을 마친 유비가 검을 내리치자 불꽃이 튀며 돌덩이가 힘차게 두 토막으로 갈라졌다.

손권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물었다. "유비 공께서는 이 돌을 어찌하여 베려 하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내 나이 이제 쉰을 바라보는데, 나라를 위해 도적떼를 소탕하지 못하니 늘 마음속으로 한탄해 왔소. 그런데 마침 오나라의 국태께서 나를 사위로 맞이해 주시니, 이는 내 평생의 큰 행운이 아니겠소? 마침 하늘의 뜻을 물어 점을 쳤더니, 조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일으킨다면 이 돌을 베어낼 것이라 하였는데, 오늘 과연 그렇게 되었구려."

손권은 속으로 생각했다. '유비가 혹시 이 말로 나를 속이려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겉으로는 칼을 뽑아 들며 유비에게 말했다. "저 또한 하늘의 뜻을 물었습니다. 만약 조조를 물리친다면 저 역시 이 돌을 베어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남몰래 빌었다. '만약 유비가 다시 형주를 차지하여 동오를 번창하게 만든다면, 돌을 두 쪽으로 베어버리리라!'

손권이 칼을 들어 내리치자 거대한 돌이 갈라졌다.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십자 모양의 흔적이 남은 돌이 그대로 남아 있다. 후세 사람들이 이 놀라운 자취를 보고 시를 지어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다.

"보검이 내리칠 때 산석은 끊어지고, 금고리가 울리는 곳에 불꽃이 피어나네. 두 나라의 번영은 모두 하늘의 뜻이니, 이때부터 천하가 술밭처럼 안정되었도다."

두 사람은 칼을 내려놓고 서로 손을 잡은 채 자리로 들어갔다. 술을 몇 차례 더 나누어 마시던 중, 손권이 유비를 슬쩍 쳐다보았다. 유비가 말했다. "제가 술이 약하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손권이 절 앞까지 배웅을 나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강산의 경치를 감상했다. 유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곳이야말로 천하 제일의 강산이로구나!" 오늘날 감로사 비석에도 '천하 제일의 강산'이라는 글귀가 남아 있다. 후대의 어떤 시인은 이 광경을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비 갠 강산은 푸른 소라 껍데기처럼 아름답고, 그 경계에는 근심 없이 즐거움만 가득하네. 옛 영웅이 눈을 맞추던 그곳, 바위 절벽은 여전히 풍파를 견디며 서 있구나."

두 사람이 함께 경치를 구경하고 있을 때, 강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눈처럼 하얗게 부서지며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때 문득 파도 위로 작은 배 한 척이 물결을 따라 평지처럼 매끄럽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유비가 감탄하며 말했다. "남쪽 사람은 배를 타고 북쪽 사람은 말을 탄다더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 말을 들은 손권은 속으로 '유비가 내가 말을 잘 못 타는 것을 놀리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손권은 즉시 좌우에 명하여 말을 끌어오게 한 뒤, 훌쩍 말에 올라타 산 아래로 힘차게 달려 내려갔다. 이어 다시 채찍을 휘둘러 고개를 올라가며 유비에게 웃으며 물었다. "남쪽 사람은 말을 타지 못하는 것인가?"

유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웃자락을 걷어 올리고 단숨에 말 등에 올라타 산 아래로 질주해 내려간 뒤, 다시 말을 몰아 산 위로 치고 올라왔다. 두 사람은 산비탈 위에서 나란히 말을 세워두고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웃었다. 지금까지 이곳의 이름이 '주마파'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후대의 시인은 이 장면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읊었다.

"용마를 몰아 달리는 기개가 대단하니, 두 사람이 나란히 고삐를 잡고 산하를 바라보네. 동오와 서천이 천하를 다투던 기세, 천 년이 지나도 주마파에는 남아 있구나."

그날 두 사람은 함께 말을 타고 돌아갔다. 남서의 백성들은 모두 축하하며 기뻐했다. 유비는 관사로 돌아와 손건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상의했다. 손건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교국로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혼사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유비는 다시 교국로의 저택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렸다. 교국로가 마중 나와 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신 뒤, 유비가 말했다.

“강동에는 유비를 해치려는 자들이 많으니, 제가 이곳에 오래 머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국로가 대답했다.

“유비께서 마음을 놓으십시오. 제가 오국태께 잘 말씀드려 유비를 잘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가 감사를 표하며 물러갔다. 교국로가 오국태를 찾아가 뵙고는, "유비가 누군가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여 서둘러 돌아가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오국태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 사위인데, 누가 감히 그를 해치겠느냐!" 그러고는 즉시 유비의 일행을 서원으로 옮겨 잠시 머물게 하고, 날을 택해 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유비가 오국태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조운이 밖에 있어 불편할까 걱정됩니다. 군사들을 단속할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오국태는 조운을 포함한 모든 일행을 부 안으로 옮겨 편히 쉬게 하고, 혹여 사고가 날까 염려되어 객사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 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며칠 뒤,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손권의 누이와 유비의 혼례가 치러졌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물러가자, 붉은 햇불을 든 이들이 유비를 신방으로 안내했다. 그런데 등불 아래 비친 방 안의 모습은 가히 경

악스러웠다. 방 안에는 창과 칼이 가득했고, 시녀들조차 모두 칼을 차고 곁에 선 채 유비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유비는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과연 이 방 안에는 어떤 사정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5회 — 현덕이 지혜로 손부인을 격분 시키고, 공명이 두 번에 걸쳐 주공군을 분노하게 하다

玄德智激孫夫人 孔明二氣周公瑾

한편, 유비가 손부인의 방에 들어갔더니 양옆으로 창과 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시녀들조차 모두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안색이 변했다. 이때 집안일을 맡아보는 노파가 다가와 말했다.

"귀한 손님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부인께서 어려서부터 무예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평소 시녀들에게 칼싸움을 시키며 즐거움을 삼으시기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부인이 즐기는 일이라 해도, 이런 광경을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서늘하구려. 일단 이 물건들을 치우게 하시오."

노파가 손부인에게 가서 보고했다.

"방 안에 병기들이 늘어서 있으니, 귀한 손님께서 마음 편히 계시지 못합니다. 이제 치우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손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반평생을 싸우며 살아왔는데, 고작 병기 따위가 무섭겠느냐?"

손부인은 즉시 병기들을 모두 치우게 하고, 시녀들에게는 칼을 풀어 옆에서 모시게 했다. 그날 밤 유비와 손부인은 혼례를 치르며 서로 깊이 사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비는 또한 금과 비단 등을 시녀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얻은 뒤, 먼저 손건을 형주로 보내 (혼사가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그 후로 유비는 연일 술을 마시며 지냈고, 손권의 어머니 국태 또한 유비를 매우 아끼고 공경했다.

한편, 손권이 사람을 시상으로 보내 주유에게 보고했다. "어머니께서 강력히 주장하시는 바람에 결국 제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보내고 말았습니다. 일이 예상과 달리 진짜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유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마음이 몹시 불안해졌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계책을 하나 세운 뒤, 비밀 편지를 써서 전령에게 들려 손권에게 보내게 했다. 손권이 편지를 뜯어 읽어보니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제가 계획했던 일이 이렇게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는 이 상황을 이용해 계책을 써야 합니다. 유비는 영웅의 기개를 지닌 인물인 데다 관우, 장비, 조운 같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있고, 제갈량의 지략까지 더해졌으니 결코 오랫동안 남의 밑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유비를 강제로 가두기보다는 오나라의 풍요로움 속에 부드럽게 묶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지어주어 그의 야망을 꺾어놓고, 아름다운 여인과 즐거움을 끊임없이 보내주어 눈과 귀를 멀게 해야 합니다. 또한 관우, 장비와의 정을 멀어지게 하고 제갈량과는 떨어뜨려 놓아 각기 다른 곳에 머물게 한 뒤에 군사를 움직여 공격한다면 대사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대로 놓아준다면, 마치 용이 구름과 비를 만나 승천하는 격이 되어 결국 오나라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명공께서는 부디 깊이 숙고해 주십시오."

손권은 글을 다 읽은 뒤 장소에게 보여주었다. 장소가 말했다. "주유의 계책이 제 생각과 딱 맞습니다. 유비는 미천한 신분으로 시작해 천하를 떠돌며 부귀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화려한 집과 자녀, 금은보화를 누리게 한다면, 유비는 자연히 제갈량이나 관우, 장비 같은 측근들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만든 뒤에 형주를 도모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군께서는 주유의 계책에 따라 신속히 실행하십시오."

손권이 크게 기뻐하며 그날 즉시 동쪽 저택을 정비했다. 꽃과 나무를 널리 심고 화려한 기물을 갖추어 유비와 여동생이 머물 수 있게 준비했다. 또한 수십 명의 악사와 무희를 추가로 들였고, 금과 옥, 비단

등 온갖 보물과 놀릿감을 가득 채웠다. 국태는 그저 손권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여기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유비는 과연 화려한 생활과 미색에 마음을 빼앗겨, 형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조운은 오백 명의 군사와 함께 동쪽 저택 앞에 머물렀는데, 날마다 별다른 일 없이 성 밖에서 활을 쏘거나 말을 타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자 조운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생각했다.

'제갈량이 내게 비단 주머니 세 개를 주며, 남서에 도착하면 첫 번째를 열고, 연말이 되면 두 번째를 열며, 막다른 위기에 처했을 때 세 번째를 열라고 했다. 그 안에는 귀신같이 신출귀몰한 계책이 들어 있어 주군을 무사히 집으로 모실 수 있다고 했지. 이제 연말이 다 되었는데, 주군께서는 여색에 빠져 얼굴조차 비치지 않으시니, 어찌하여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 계책을 보고 그대로 따르지 않겠는가?'

조운은 곧 주머니를 풀어 내용을 확인했다. 과연 그 계책은 신묘하기 그지없었다. 조운은 즉시 관청으로 달려가 유비를 만나고자 했다.

시녀가 달려와 보고했다. "조운이 귀한 분께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유비가 조운을 불러 상황을 물었다. 조운은 일부러 크게 놀란 척하며 말했다. "주공, 화려한 궁궐에 깊이 머무시느라 형주를 잊으신 것입니까?"

유비가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놀라는가?"

조운이 답했다. "오늘 아침 제갈량이 사람을 보내 전해왔습니다. 조조가 적벽에서 당한 패배의 원한을 갚으려고 정예병 50만 명을 일으켜 형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 주공께서는 즉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유비가 말했다. "반드시 부인과 상의해 봐야겠네."

조운이 다시 말했다. "부인과 상의해 보아야, 부인께서 결코 주공을 보내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오늘 밤 바로 출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늦으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유비가 말했다. "자네는 일단 물러가게. 내가 알아서 할 방도가 있네."

조운은 몇 번이고 유비를 재촉하며 밖으로 나갔다. 유비가 손부인을 만나자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손부인이 물었다. "서방님, 어찌하여 그리 근심이 많으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내 몸 하나 타향을 떠돌며 살아가니, 살아생전 부모님을 모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님께 제사조차 지내지 못하니, 이는 크나큰 불효라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 첫날이 다가오니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손부인이 말했다. "나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운이 형주가 위태롭다고 보고하여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지요?" 유비가 무릎을 꿇고 고했다. "부인께서 이미 아시니 내가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가지 않자니 형주를 잃게 되어 천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 두렵고, 가자니 부인을 두고 떠나기가 너무나 아

쉬워 이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다. "저는 이미 당신의 아내가 되었으니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부인의 마음은 비록 그러하나, 손권과 손부인의 어머니께서 어찌 부인이 떠나는 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부인께서 정녕 유비를 가련하게 여기신다면 잠시 작별을 고해야겠습니다." 말을 마친 유비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손부인이 달래며 말했다. "서방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께 간곡히 말씀드리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빌겠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설령 어머니께서 허락하신다 해도, 손권이 반드시 막아설 것입니다." 손부인은 한참을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월 초하루에 문안 인사를 드릴 때, 강가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말없이 떠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유비는 다시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이미 계획을 세웠다. 유비는 조운을 은밀히 불러 분부했다. "정월 초하루에 그대가 먼저 군사들을 이끌고 성 밖 관도로 나가 기다려 주시오. 나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를 대고 부인과 함께 떠날 것이요." 조운이 명을 받들었다.

건안 15년 봄 정월 초하루, 손권이 대청에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유비와 손부인이 들어가 국태에게 절을 올렸다. 손부인이 말했다. "남편이 부모님과 조상님의 묘소가 모두 탁군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밤낮으로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가

로 가서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내고자 하니, 어머니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태가 말했다. "그것은 효도이니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비록 네가 시부모님을 뵙지는 못하더라도, 남편과 함께 가서 절을 올리는 것이 아녀자로서 마땅한 도리이다." 손부인은 유비와 함께 절을 올리고 물러나왔다. 이때 손권에게는 이 사실을 숨겼다. 부인은 수레를 타고 몸에 지닌 귀중품만을 챙겨 나갔다. 유비는 말을 타고 소수의 기병을 거느린 채 성을 빠져나와 조운과 합류했다. 오백 명의 군사가 앞뒤로 호위하며 남서를 떠나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그날 손권은 크게 취해 버렸고, 곁에 있던 시종들이 그를 부축해 후당으로 들여보내자 문무백관도 모두 흩어졌다. 관리들이 유비 부부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뒤였다. 손권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손권은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했고, 그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오경(새벽녘)이었다.

다음 날, 유비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손권은 급히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장소가 말했다. "오늘 이 자를 놓아주었으니, 머지않아 반드시 큰 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어서 추격해야 합니다."

손권은 진무와 판장에게 정예병 오백 명을 뽑아 밤낮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유비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했다. 두 장수는 명을 받들어 물러갔다. 손권은 유비가 몹시 원망스러워 책상 위에 있던 옥 벼루를 집어 던져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이때 정보가 말했다. "주공, 화만 내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진무와 판장이 저자를 반드시 잡아 오지는 못할 듯합니다."

손권이 외쳤다. "어찌 감히 내 명령을 어긴단 말이냐!"

정보가 다시 말했다. "손부인께서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즐겨 보셨고 성품이 엄격하고 강직하여 모든 장수가 두려워합니다. 그런 손부인이 유비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니, 아마 유비와 마음을 합쳐 떠났을 것입니다. 추격하는 장수들이 손부인을 마주치고 어찌 감히 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손권은 크게 노하여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들고 장흠과 주태를 불러 명령했다. "너희 둘은 이 칼을 가지고 가서 내 여동생과 유비의 머리를 가져오너라!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즉시 베어버리겠다!"

장흠과 주태는 명을 받들어 곧바로 삼천 군사를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한편, 유비는 채찍을 휘두르며 말의 속도를 높여 서둘러 길을 재촉했다. 밤중에 길가에서 두 경(약 3~4시간) 정도 잠시 쉬었으나, 곧바로 황급히 다시 길을 나섰다. 어느덧 시상 경계에 이르렀을 때, 뒤쪽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오자 사람이 달려와 보고했다.

"추격군이 왔습니다!"

유비가 당황하여 조운에게 물었다.

"추격군이 왔으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조운이 대답했다.

"주공께서는 앞장서 가십시오. 소장이 뒤를 맡겠습니다."

그렇게 산기슭을 돌아 나가려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다. 앞장선 두 장수가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유비는 어서 말에서 내려 포로가 되어라! 우리는 주유 도둑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주유는 유비가 도망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서성과 정봉에게 삼천 군사를 이끌고 요충지에 진을 치고 기다리게 했다. 또한 수시로 높은 곳에 사람을 올려 멀리 살피게 하여, 만약 유비가 육로로 도망친다면 반드시 이 길을 지나게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마침 서성과 정봉이 유비 일행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각자 무기를 움켜쥐고 앞길을 차단한 것이었다.

유비는 겁에 질려 말을 돌려 조운에게 물었다.

"앞에는 길을 막는 병사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병사가 있으니 앞으로 길이 없구나.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조운이 말했다.

"주공,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군사께서 세 가지 묘책을 비단 주머니에 담아 주셨는데, 이미 두 개를 열어 보았고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계책이 아직 남아 있으니,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열어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열어보아야 합니다."

그러고는 비단 주머니를 풀어 유비에게 바쳤다.

유비가 그 광경을 보고는 급히 손부인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했다. "제가 마음속에 품어온 진실한 이야기를 이제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부인이 말했다. "대장부로서 무슨 할 말이 있기에 그러십니까? 어서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유비가 말했다. "예전에 손권과 주유가 함께 모의하여 손부인을 저에게 시집보낸 것은, 사실 손부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가두어 두고 형주를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요. 형주를 빼앗고 나면 분명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즉, 손부인을 미끼로 삼아 저를 낚으려 한 것입니다.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곳까지 온 것은, 손부인께서 사내와 같은 도량을 지니셨으니 반드시 저를 가엾게 여겨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손권이 저를 해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형주에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어 돌아갈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다행히 손부인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권은 사람을 보내 뒤에서 쫓아오게 하고, 주유는 사람을 보내 앞길을 막게 하니, 오직 손부인만이 이 화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손부인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손부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수레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손부인이 분노하며 외쳤다. "오라버니께서 나를 친동생으로 여기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다시 얼굴을 보겠느냐! 오늘 이 위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러고는 시종들에게 호통을 쳐 수레를

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한 뒤, 수레 휘장을 걷어 올리고 서성과 정봉을 향해 직접 꾸짖었다. “너희 둘이 반역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서성과 정봉은 당황하여 급히 말에서 내려 무기를 버리고 수레 앞에 엎드려 대답했다. “어찌 감히 반역을 하겠습니까? 주유 도독의 명령을 받들어, 이곳에 군사를 배치하고 유비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손부인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주유는 역적이다! 우리 동오가 너희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나!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숙부이자 나의 남편이다. 나는 이미 어머니와 오라버니께 형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지금 너희 둘이 산기슭 같은 곳에 군사를 이끌고 길을 막아 서서, 우리 부부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것이냐?” 서성과 정봉은 연신 대답하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인께서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희가 한 일이 아니라 주 도독의 명령입니다.” 손부인이 다시 호통을 쳤다. “너희는 주유는 무서워하면서 나를 무서워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나? 주유가 너희를 죽일 수 있다면, 내가 주유를 죽이지 못할 것 같으냐?” 손부인은 주유를 한바탕 크게 욕하고는 수레를 밀어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다. 서성과 정봉은 속으로 ‘우리는 아랫사람인데 어찌 감히 부인의 뜻을 거스르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조운이 몹시 분노한 기색을 보이자, 어쩔 수 없이 군사들을 물리고 길을 열어주었다.

한참을 더 달려 5~6리쯤 갔을 때, 뒤에서 진무와 판장이 따라붙었다. 서성과 정봉도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다. 진무와 판장이 말했다. “네가 그를 놓아주다니 큰 실수를 했구나! 우리 두 사람은 손권의 명을 받들어 그를 붙잡으러 왔다.” 이에 네 장수는 군사를 하나로 모아 속도를 높여 쫓아왔다.

유비가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큰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유비가 손부인에게 말했다. "뒤에서 추격군이 또 들이닥쳤으니 이를 어찌 하면 좋겠소?" 그러자 손부인이 말했다. "서방님께서 먼저 가십시오. 저와 조운이 뒤를 지키겠습니다." 유비는 먼저 군사 300명을 이끌고 강가 쪽을 향해 앞서 나갔다. 조운은 수레 곁에서 말을 멈춰 세우고 병사들을 배치한 채 다가올 적장을 기다렸다.

네 장수는 손부인을 보자 말에서 내려 손을 모으고 섰다. 손부인이 물었다. "진무, 판장!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느냐?" 두 장수가 대답했다. "주군(손권)의 명을 받들어 부인과 유비를 모셔 가려 합니다."

손부인이 엄한 표정으로 꾸짖었다. "너희 같은 무지몽매한 자들이 남매 사이를 갈라놓으려 드는구나! 나는 이미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갔고, 오늘 돌아가는 것은 결코 남과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명을 받들어 우리 부부가 함께 형주로 돌아가기로 했다. 설령 내 오라버니가 직접 온다 해도 마땅히 예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둘은 군사력을 믿고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냐?"

손부인의 매서운 호통에 네 장수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부인과 오후(손권)는 만 년이 지나도 어차피 남매 사이가 아닌단가. 게다가 국태(어머니)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손권은 효심이 깊은 사람이라 어찌 어머니의 말씀을 어기겠는가? 내일 일이 틀어지면 우리만 곤란해질 뿐이다. 차라리 이번에는 인정을 베풀어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게 좋겠다.'

군중에 유비는 보이지 않고, 조운만이 눈을 부라리며 당장이라도 싸울 기세로 서 있었다. 이에 네 장수는 연신 대답하며 물러났다. 손부인이 수레를 밀어 길을 떠나게 하자, 서성이 말했다. "우리 네 사람이 가서 주유 도독께 이 일을 보고해야겠다."

네 사람이 갈팡질팡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들이 회오리바람처럼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장흠과 주태였다. 두 장수가 물었다. "너희들이 유비를 본 적이 있느냐?" 네 사람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지나갔는데 벌써 만나절이나 지났습니다." 장흠이 꾸짖었다. "어찌하여 잡아두지 않았느냐?" 네 사람이 손부인이 명령한 내용을 설명하자, 장흠이 외쳤다. "오후께서도 이럴 줄 알고 검을 내려주셨다. 먼저 손부인을 죽이고 그다음에 유비를 베라고 하셨다. 이를 어기는 자는 즉시 처단하겠다!" 네 사람이 말했다. "이미 멀리 떠나버렸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장흠이 말했다. "그들은 결국 보병에 불과하니 빨리 가지 못해 멀리는 못 갔을 것이다. 서성과 정봉 두 장군은 즉시 도독에게 전령을 보내 수로로 빠른 배를 띄워 추격하게 하고, 우리 네 사람은 육로로 뒤쫓겠다. 물길이란 육로든 가리지 말고 따라잡는 대로 죽여버려라. 그들의 변명은 들을 필요도 없다." 이에 서성과 정봉은 주유에게 급히 보고를 올렸고, 장흠, 주태, 진무, 판장 네 장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따라 추격해 왔다.

한편, 유비 일행은 시상을 벗어나 꽤 멀리 떨어진 유랑포에 이르러 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다. 강가를 따라 배를 탈 만한 곳을 찾아보았으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강물뿐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다. 유비는 깊은 시름에 잠겨 생각에 빠졌다. 그때 조운이 말했다.

"주공, 호랑이 굴을 벗어나 이제 거의 경계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갈량이 미리 준비해 두었을 터이니 어찌 걱정하며 의심하십니까?"

유비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동오에서 누렸던 화려한 생활이 문득 떠올랐고, 자신도 모르게 쓸쓸한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렸다. 후대의 어떤 시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읊으며 탄식했다.

"오나라와 촉나라의 혼인은 맑은 강물 아래 이루어졌으나,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한 화려한 집이 눈을 어지럽혔네. 한 여인의 유혹이 천하를 흔들어 놓으니, 유비가 천하를 다투려던 마음을 돌리려 하였구나."

유비는 조운에게 앞쪽 전초 기지에 배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일렀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에서 먼지 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가 높은 곳에 올라 살펴보니, 군마들이 땅을 뒤덮을 듯이 몰려오고 있었다. 유비는 탄식하며 말했다. "며칠째 쉬지 않고 달려 사람도 지치고 말도 탈진했는데, 추격병까지 들이닥치니 이제는 정말 죽을 곳조차 없구나!" 함성이 점점 가까워지며 다급해지던 그때, 강가에 덮개 배 스무여 척이 일렬로 떠 있는 것이 보였다. 조운이 말했다. "천만다행으로 여기에 배가 있습니다! 우선 노를 저어 강 건너편으로 간 뒤에 다시 대책을 세웁시다!"

유비와 손부인이 서둘러 배에 올라탔다. 조운도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배에 올랐다. 그때 선실 안에서 도포를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른 한 사람이 크게 웃으며 나오더니 말했다. "주공, 기뻐하십니까! 제갈량이 이곳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 손님으로 변장해 있던 이들은 모두 형주 수군들이었다.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얼

마 지나지 않아 추격해온 네 명의 장수가 도착했다. 제갈량이 웃으며 강가에 남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다 계산해 두었소. 그대들은 돌아가서 주유에게 전하시오. 다시는 미인계 같은 수법을 쓰지 말라고 말ियो." 강가에서 화살이 어지럽게 날아왔으나 배는 이미 멀리 떠나간 뒤였다. 장흠을 비롯한 네 장수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유비와 제갈량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가에서 거센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수많은 전선이 몰려오고 있었다. '수(帥)' 자가 적힌 깃발 아래, 주유가 직접 숙련된 수군을 이끌고 나타났는데, 왼쪽에는 황개가, 오른쪽에는 한당이 있어 그 기세가 마치 날아가는 말과 같고 속도는 유성처럼 빨랐다.

전선들이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자, 제갈량은 즉시 노를 저어 배를 북쪽 기슭으로 붙이게 했다. 유비 일행은 배를 버려두고 모두 땅으로 올라와 수레와 말을 챙겨 길을 떠났다. 주유 역시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땅으로 올라와 추격에 나섰다. 크고 작은 수군들은 모두 걸어서 뒤를 쫓았고, 오직 선두에 선 관군들만이 말을 타고 달렸다. 주유가 앞장서고 황개, 한당, 서성, 정봉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주유가 물었다. "이곳이 어디냐?" 군사들이 대답했다. "앞쪽이 바로 황주 경계입니다." 멀리 유비의 군마가 보이는 것을 확인한 주유는 힘을 합쳐 추격하라고 명령했다.

때마침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산골짜기 사이로 칼을 든 무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 선두에는 대장인 관우가 서 있었다. 당황한 주유는

급히 말을 몰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관우가 뒤쫓아오자 주유는 필사적으로 말을 달려 목숨을 구하려 했다. 한참을 달리는데 왼쪽에서는 황충이, 오른쪽에서는 위연이 나타나 두 군대가 몰려와 공격했다. 동오의 군사들은 크게 패퇴했다. 주유가 급히 배에 올라타려 할 때, 강가에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비웃었다.

"주유 장군, 기막힌 계책으로 천하를 다스리려더니, 부인만 챙기고 병사들까지 다 잃었구나!"

주유가 분노하며 외쳤다.

"다시 땅으로 올라가 결사적으로 싸우자!"

하지만 황개와 한당이 힘껏 가로막았다. 주유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계책이 실패했으니, 대체 무슨 면목으로 손권을 뵈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크게 비명을 질렀는데, 그 순간 예전에 입은 화살 상처가 터지며 그대로 배 위로 쓰러졌다. 장수들이 급히 구하려 했으나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

두 번이나 피를 부리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화를 내던 기세는 어느새 수치심으로 변했구나.

과연 주유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6회 — 조조가 동작대에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공명이 주공근을 세 번 기를 꺾다

曹操大宴銅雀臺 孔明三氣周公瑾

한편, 주유는 제갈량이 미리 매복시켜 놓은 관우, 황충, 위연의 세 군대에 기습을 당해 크게 패하고 말았다. 황개와 한당이 급히 배를 타고 내려가 구원하려 했으나, 수많은 수군만 잃었을 뿐이었다. 멀리 유비를 바라보니 손부인의 수레와 말, 그리고 수행원들이 모두 산꼭대기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주유가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화살에 맞았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상처가 터져버렸고, 결국 그는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장수들이 달려와 그를 깨워 배를 타고 겨우 도망쳤다. 제갈량은 추격하지 말라고 명한 뒤, 유비와 함께 형주로 돌아가 승리를 축하하며 장수들에게 상을 내렸다.

주유가 시상으로 돌아간 뒤, 장흠을 비롯한 일행은 남서로 가서 손권에게 보고했다. 손권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보를 도둑으로 삼아 군

사를 일으켜 형주를 치려 했다. 그러자 주유가 다시 상소문을 올려, 군사를 일으켜 원한을 갚아야 한다고 청했다.

장소가 간언했다. "안 됩니다. 조조는 적벽에서의 패배를 갚으려고 밤낮으로 궁리하고 있습니다. 손권님과 유비가 마음을 합칠까 두려워 감히 군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군께서 한때의 분노 때문에 스스로 형제 같은 이들을 치려 하신다면, 조조가 반드시 그 틈을 타 공격해 올 것이니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고옹도 말을 보탰다. "허도에 어찌 첩자가 없겠습니까? 만약 손권님과 유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조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 유비와 결탁하려 할 것입니다. 유비가 동오를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조조에게 몸을 의탁할 텐데, 그렇게 되면 강남이 언제쯤 평안해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사람을 허도로 보내 유비를 형주목으로 추천하는 표를 올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조가 이를 알게 되면 겁을 먹어 동남쪽으로 감히 군사를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유비가 주군을 원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측근을 시켜 이간질하는 계책을 쓰면, 조조와 유비가 서로 싸우게 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일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이것이 진정 이득이 되는 길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고옹의 말이 참으로 옳다. 하지만 누가 사신으로 갈 수 있겠느냐?"

고옹이 대답했다. "이곳에 조조가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니, 그를 사신으로 보내면 됩니다."

손권이 누구냐고 묻자 고옹이 말했다. "화흠이 여기 있으니, 그를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표를 준비해 허도로 보냈다. 화흠은 명을 받들어 길을 떠나 곧장 허도로 가서 조조를 뵈고자 했다. 조조가 업군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동작대 완공을 축하하며 상을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화흠은 곧장 업군으로 가서 조조를 알현했다.

조조는 적벽에서 패한 뒤 줄곧 복수를 꿈꿨으나, 손권과 유비가 힘을 합칠까 두려워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때는 건안 15년 봄, 동작대가 완공되었다. 조조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업군에서 문무백관을 불러 크게 연회를 베풀었다. 동작대는 장하 강변을 마주 보고 세워졌는데, 중앙에 동작대가 있고 왼쪽에는 옥룡대, 오른쪽에는 금봉대라는 이름의 누각이 각각 높이 십 장씩 솟아 있었다. 두 누각 사이에는 두 개의 다리가 가로질러 놓여 있었으며, 수많은 문과 집들이 금빛과 벽옥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조조는 보석이 박힌 금관을 쓰고 녹색 비단 도포를 입은 채, 옥 띠를 두르고 구슬 장식 신발을 신은 모습으로 높은 곳에 앉아 있었다. 무관과 문관들은 대 아래에 늘어섰다. 조조는 무관들이 활쏘기 시합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여, 근시를 시켜 서천에서 가져온 붉은 비단 도포 한 벌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게 하고, 그 아래에 과녁을 세운 뒤 백보 거리를 경계로 삼게 했다. 무관들을 두 팀으로 나누었는데, 조씨 종친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었고 나머지 장수들은 모두 녹색 옷을 입었다. 각자 정교한 활과 좋은 화살을 챙겨 말 안장에 올라탄 채 명령을 기다렸다.

조조가 명령을 내렸다. "과녁의 정중양(홍심)을 맞히는 자에게는 저 비단 도포를 상으로 주겠다. 만약 맞히지 못하면 물 한 잔을 벌로 마시게 하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붉은 옷을 입은 팀에서 한 젊은 장수가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바로 조휴였다. 조휴는 말을 타고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달렸는데, 화살을 끼워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더니 단숨에 쏘아 올렸다. 화살은 정확히 과녁의 정중양을 꿰뚫었다. 북과 징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이들이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대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과연 우리 집안의 천리마로구나!"

조조가 막 사람을 시켜 비단 도포를 가져다 조휴에게 주려는데, 붉은 옷을 입은 무리 사이에서 한 기수가 말을 타고 튀어나오며 외쳤다. "승상, 저 비단 도포는 성이 다른 장수에게 먼저 양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종친들이 앞질러 가져가는 것은 도리에 어긋납니다!"

조조가 그 사람을 살펴보니 바로 문빙이었다. 관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문중업의 활쏘기를 한번 봅시다!" 문빙이 활을 움켜쥐고 말을 달리며 화살을 쏘니, 이 또한 과녁의 정중양을 꿰뚫었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징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문빙이 크게 외쳤다. "어서 비단 도포를 가져오너라!"

그때 붉은 도포를 입은 무리 사이에서 또 한 명의 장수가 말을 타고 달려 나오더니,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문열이 먼저 쏘았는데 네가 어찌 다투려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화살을 뽑아보겠다!" 그는 활시위를 힘

껏 당겨 화살을 쏘았고, 이 역시 정중앙에 명중했다.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살펴보니 그는 조홍이었다. 조홍이 막 도포를 가지러 가려는데, 이번에는 초록 도포를 입은 무리 속에서 또 다른 장수가 나타나 활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너희 세 사람의 활숨씨가 무엇 그리 대단하다고! 내 숨씨를 보아라!" 사람들이 보니 바로 장합이었다. 장합은 말을 타고 달리다 몸을 돌려 뒤로 화살을 쏘았는데, 이 역시 정중앙에 명중했다. 네 발의 화살이 모두 과녁의 정중앙에 나란히 박혔다. 사람들이 모두 "정말 대단한 숨씨로다!"라며 감탄하자, 장합이 말했다. "이 비단 도포는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붉은 도포를 입은 부대에서 장수 하나가 말을 몰아 튀어나오며 크게 외쳤다. "네가 몸을 돌려 활을 쏘는 것쯤이야 대수로운 일도 아니다! 내가 저 붉은 과녁의 정중앙을 맞히는 것을 보아라!" 사람들이 살펴보니 바로 하후연이었다. 하후연이 말을 달려 경계선까지 간 뒤, 몸을 획 돌려 화살을 쏘니 정확히 네 발의 화살이 모인 정중앙에 맞았다. 북과 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하후연은 말을 멈추고 활을 겨누며 크게 소리쳤다. "이 화살로 저 비단 도포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때 초록 도포를 입은 부대에서 한 장수가 대답하듯 튀어나오며 외쳤다. "그 도포는 나 서황에게 남겨두어라!" 하후연이 말했다. "너는 또 어떤 숨씨를 보여야 내 도포를 뺏을 수 있겠느냐?" 서황이 대답했다. "네가 과녁 중앙을 맞히는 것 따위는 놀랍지도 않다. 나는 저 비단 도포만을 단번에 낚아채겠다!" 서황은 활을 집어 화살을 메고는 멀리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겨냥해 쏘았다. 화살은 정확히 버드나무 가지를 끊어버렸고, 비단은 땅으로 떨어졌다. 서황은 날아들 듯 달려가 비단 도포를 낚아채 몸에 걸쳤다. 그러고는 말을 몰아 무대 앞

으로 나아가 정중히 인사하며 말했다. “승상, 도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조와 여러 관리들은 모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황이 막 말을 돌려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무대 옆에서 초록 도포를 입은 장수 하나가 뛰어오르며 크게 소리쳤다. “그 비단 도포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 어서 내놓아라!” 사람들이 보니 바로 허저였다. 서황이 말했다. “도포는 이미 내게 있다. 네가 어찌 감히 억지로 빼앗으려 하나냐!” 허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말을 달려 도포를 뺏으려 들었다. 두 말이 가까워지자 서황은 활로 허저를 쳤다. 허저는 한 손으로 활을 막아내며 서황을 말 안장에서 끌어내렸다. 서황은 활을 차마 버릴 수 없어 급히 말에서 뛰어내렸고, 허저 역시 말에서 내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조조가 급히 사람을 보내 둘을 떼어놓게 했으나, 그 비단 도포는 이미 갈가리 찢어져 버린 뒤였다. 조조는 두 사람을 모두 무대 위로 불러 올렸다. 서황은 눈을 부릅뜨고 노기를 띠었으며, 허저는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어 금방이라도 다시 싸울 기세였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그대들의 용맹함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어찌 비단 도포 한 벌을 아까워하겠는가?” 그러고는 모든 장수에게 무대 위로 올라오게 하여 각자에게 비단 한 필씩을 하사했다. 장수들은 저마다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조조는 자리 순서대로 앉게 했다. 악기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고 물과 물에서 난 산해진미가 함께 차려졌다. 문관과 무장들이 차례로 술잔을 들어 서로 술을 권하고 받으며 흥을 돋우었다.

조조가 문관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무장들이 기마 궁술을 즐기며 위용과 용맹을 떨쳤으니 참으로 보기 좋구나. 그대들은 모두 배움이 깊은 선비들이니, 이 높은 대에 올라 멋진 글을 지어 이 시대의 승전보를

기록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문관들이 모두 몸을 굽히며 대답했다.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때 왕랑, 종요, 왕찬, 진림 같은 문관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와 시를 바쳤다. 시의 내용은 대부분 조조의 공덕이 드높으니 마땅히 천하의 명을 받아야 한다는 찬양을 담고 있었다. 조조는 시를 한 번 훑어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의 작품이 훌륭하기는 하나, 저를 너무 과하게 칭송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어리석고 미천하여 그저 효렴(孝廉)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러다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초현 동쪽 50리 지점에 정사를 짓고 봄과 여름에는 글을 읽고 가을과 겨울에는 사냥을 하며 천하가 평안해지기를 기다리다가 관직에 나갈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에 조정에서 저를 점군교위로 불러가는 바람에 마음을 바꾸어, 오로지 나라의 적을 토벌하고 공을 세우는 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 묘비에 '한나라 옛 정서장군 조후의 묘'라고 적힐 수 있다면 평생의 소원이 다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동탁을 토벌하고 황건적을 소탕한 이래로 원수를 제거하고 여포를 꺾었으며, 원소를 멸하고 유표를 평정하여 마침내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재상의 자리에 올랐으니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귀함은 이미 극에 달했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만약 나라에 저 같은 사람이 없다면, 아마 얼마나 많은 이가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왕이라 칭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혹여 제가 권세가 높다고 하여 함부로 짐작하고 저에게 탄마음이 있다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저는 늘 공자가 문왕을 지극한 인격자라 칭송했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저 제가 군대를 내려놓고 봉지인

무평후의 직무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진심으로 군권을 내려놓았다가는 남에게 해를 입을까 두렵고, 제가 패하면 나라도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헛된 명성을 쫓다가 실질적인 화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제 뜻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절하며 말했다. "설령 이윤이나 주공이라 할 지라도 승상께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후대의 어떤 이가 시로 이르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주공은 소문이 무성할까 두려워하던 날이었고, 왕망은 겸손하게 인재를 모으던 때였네. 만약 그 시절에 바로 죽었더라면, 그 일생의 참과 거짓을 누가 알았겠는가!"

조조는 술을 몇 잔이나 연거푸 들이켜더니 어느덧 술기운이 올라 취기가 돌았다. 그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붓과 먹을 가져오라고 시키며, 자신도 동작대를 노래하는 시를 지어보려 했다. 막 붓을 들었을 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동오에서 화흠이 사신으로 왔습니다. 유비를 형주목으로 추천하는 표를 올렸으며, 손권이 누이를 유비에게 시집보냈으니, 한수(漢水) 유역의 아홉 군 중 태반이 이미 유비의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져, 들고 있던 붓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정욱이 말했다. "승상께서는 수만 대군이 맞붙고 화살과 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으셨는데, 어찌 유비가 형주를 얻었다는 말에 이토록 크게 놀라십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유비는 용과 같은 인물이라 평생 물을 만나지 못했소. 그런데 이제 형주를 얻었으니, 이는 마치 갇혀 있던 용이 드디어 넓은 바다로 들어간 격 아니겠소? 내가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소!"

정욱이 다시 말했다. "승상, 화흠이 온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조조가 물었다. "아직 모르겠소."

정욱이 말했다. "손권은 본래 유비를 경계하여 군사를 일으켜 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승상께서 그 틈을 타 공격해 올까 두려워, 화흠을 사신으로 보내 유비를 추천하는 표를 올린 것입니다. 이는 유비의 경계심을 늦추게 함으로써 승상의 의심을 막으려는 속셈입니다."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정욱이 말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손권과 유비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 기력을 소진하게 한 뒤, 승상께서 그 틈을 타서 공격하신다면 단 한 번의 북소리에 두 적을 모두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 계책을 물었다. 정욱이 말을 이었다. "동오가 믿고 의지하는 인물은 주유입니다. 승상께서 지금 주유를 남군 태수로, 정보를 강하 태수로 임명하겠다고 표를 올리시고 화흠을 조정에 남겨 중용하신다면, 주유는 반드시 유비와 원수가 되어 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서로 싸우는 틈을 타서 공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조조가 말했다. "중덕의 말이 내 생각과 딱 맞는구려."

그러고는 즉시 화흠을 불러 높은 자리에 앉히고 상을 두둑이 내렸다. 그날 연회가 끝나자 조조는 곧장 문무백관을 이끌고 허도로 돌아가, 주유를 남군 태수로, 정보를 강하 태수로 임명한다는 표를 올렸다. 또한 화흠을 대리사경으로 봉하여 허도에 머물게 했다. 사신이 동오에 도착하자 주유와 정보는 각각 임명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주유가 남군의 태수가 된 후에는 복수할 생각만 가득했다. 마침내 그는 손권에게 상소를 올려, 노숙을 보내 형주를 되찾아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손권이 노숙을 불러 말했다.

"그대는 예전에 형주를 유비에게 빌려주도록 보증했는데, 이제 유비는 형주를 차지하고도 돌려줄 기미가 없으니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는가?"

노숙이 대답했다.

"문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서천을 얻으면 형주를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손권이 꾸짖으며 말했다.

"그저 서천을 얻겠다고 말만 할 뿐, 지금까지 군사 하나 움직이지 않으니,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노숙이 말했다.

"제가 가서 잘 말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노숙은 곧장 배를 타고 형주로 향했다.

한편, 유비와 제갈량은 형주에 식량을 넉넉히 모으고 군사를 훈련시켰는데, 근처의 인재들이 앞다투어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그러던 중 노숙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급히 전해졌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자경이 무슨 뜻으로 온 것이겠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어제 손권이 주공을 형주목으로 추천하는 표를 올린 것은 조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조조가 주유를 남군 태수로 임명한 것은 우리 두 집안이 서로 싸워 힘을 빼게 만들어, 그 틈을 타서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입니다. 이제 노숙이 온 것을 보니, 주유가 태수 직을 맡게 되었으니 이제 형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러 온 것입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소?" 제갈량이 말했다. "만약 노숙이 형주 이야기를 꺼내면, 주공께서는 크게 소리 내어 우십시오. 통곡이 극에 달했을 때 제가 나서서 달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제책이 이미 결정되자, 노숙을 관아로 불러들여 예우를 갖춘 뒤 자리에 앉혔다. 노숙이 말했다. "오늘 황숙께서 동오의 사위가 되셨으니 제가 황숙의 사람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찌 감히 함부로 앉겠습니까?" 유비가 웃으며 말했다. "자경과 나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는데 어찌 그리 겸손하게 구는가?" 노숙이 그제야 자리에 앉았다. 차를 다 마신 뒤 노숙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 오나라 군주의 명을 받들어 오직 형주 문제로만 왔습니다. 황숙께서 형주에 머무신 지 꽤 되었으나

아직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양가가 혼인으로 맺어졌으니, 친척 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돌려주어야 마땅합니다." 유비는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을 가린 채 통곡하기 시작했다. 노숙이 놀라 물었다. "황숙, 어찌하여 이토록 우시는 겁니까?" 유비의 울음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그때 제갈량이 병풍 뒤에서 나오며 말했다. "제가 한참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자경께서는 저희 주군께서 왜 우시는지 아십니까?" 노숙이 답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 주군께서 형주를 빌릴 때, 서천을 얻으면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익주의 유장은 저희 주군의 친척이니 모두 한나라의 혈육입니다. 만약 군사를 일으켜 그 성을 빼앗으려 한다면 남들에게 욕을 먹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취하지 않고 형주를 돌려주자니 어디에 몸을 의탁하겠습니까? 또한 돌려주지 않자니 처가 식구들 얼굴을 보기가 민망하니, 참으로 진퇴양난의 처지라 가슴이 미어져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제갈량의 말이 끝나자 유비는 가슴 속 깊은 슬픔이 터져 나와, 정말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크게 통곡했다. 노숙이 달래며 말했다. "황숙,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제갈량과 함께 천천히 의논해 보십시오." 제갈량이 말했다. "자경께서 오나라 군주를 뵈거든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사정을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사정이 이러하니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이 물었다. "만약 군주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찌합니까?" 제갈량이 답했다. "군주께서 친동생을 황숙의 아내로 맞이하셨는데 어찌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경께서 부디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노숙은 너그럽고 어진 어른이었기에, 유비가 이토록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유비와 제갈량은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연회를 마친 뒤 노숙을 배로 배웅했다. 노숙은 곧장 시상으로 가서 주유를 만나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주유는 발을 구르며 탄식했다. "자경, 당신이 또 제갈량의 계책에 넘어갔구려! 당초 유비가 유표에게 의탁했을 때부터 늘 그 땅을 삼킬 속셈을 품고 있었는데, 하물며 서천의 유장을 노리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소?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미루다가는 결국 자경 당신에게까지 누가 미치게 생겼구려. 내게 제갈량이 내 계산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계책이 하나 있으니, 자경은 곧바로 한 번 다녀오시오."

노숙이 말했다. "그 기묘한 계책을 듣고 싶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자경은 손권을 만나러 갈 필요 없이, 곧장 형주로 가서 유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손씨와 유씨 두 집안이 이미 사돈을 맺었으니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소. 만약 유씨 측에서 차마 서천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오가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취하겠소. 서천을 얻게 되면 그것을 혼수로 삼아, 형주를 동오에 돌려주겠소'라고 말ियो."

노숙이 대답했다. "서천은 거리가 너무 멀어 차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도둑의 이 계책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주유가 웃으며 말했다. "자경은 참으로 어진 분이구려. 내가 정말로 서천을 얻으려 갈 것 같소? 나는 단지 명분만 내세울 뿐, 실제로는 형주를 빼앗으려는 것이오. 그리하여 제갈량이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 작

정ियो. 동오의 군대가 서천으로 가는 길에 형주를 지나가게 되면, 유비에게 군량과 물자를 요구할 것ियो. 그러면 유비는 반드시 성 밖으로 나와 군사들을 격려하러 나올 터인데, 그때 기세를 몰아 쳐들어감으로써 유비를 죽이고 형주를 빼앗아 내 원한을 풀고 그대(자경)의 화를 씻어내겠소."

노숙은 크게 기뻐하며 다시 형주로 향했다. 유비는 제갈량과 이 일을 상의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노숙은 분명 손권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시상에 가서 주유와 함께 어떤 계책을 세운 뒤, 우리를 유혹하러 온 것이겠지요. 다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주군께서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보시고 곧 흔쾌히 다 승낙하십시오."

계책을 세운 뒤 노숙이 들어와 예를 갖추고 말했다. "손권께서 황숙의 덕망을 아주 높게 칭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수와 상의하여, 황숙을 대신해 서천을 거두려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서천을 차지하는 대신 형주를 내어주어, 서천을 혼수 값으로 삼으려는 것이지요. 다만 군사들이 지나가는 길에 약간의 군량과 물자를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제갈량은 이 말을 듣고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손권께서 이토록 좋은 마음을 내어주시니 참으로 귀한 일이군요!" 유비도 손을 모아 깎듯이 감사하며 말했다. "이것은 모두 자경이 말을 잘해준 덕분입니다." 제갈량이 덧붙였다. "대군이 도착하는 날, 정중히 맞이하여 노고를 치하하겠습니다." 노숙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연회를 마친 뒤 돌아갔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제갈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주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이런 계책은 어린아이도 속일 수 없는 법입니다!"

유비가 다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묻자, 제갈량이 답했다. "이것은
바로 '가도멸곡(남의 길을 빌려 적을 멸함)'의 계책입니다. 겉으로는 서
천을 얻겠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형주를 빼앗으
려는 속셈이지요. 주유는 주공께서 성 밖으로 나가 군사들을 격려하러
나오실 때, 그 기세를 몰아 주공을 붙잡고 성안으로 들이닥칠 것입니
다. 상대가 대비하지 못한 틈을 타 허를 찌르려는 것이지요."

유비가 걱정하며 말했다. "그럼 어찌해야 하겠는가?"

제갈량이 말했다. "주공께서는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그저 웅크
리고 앉아 호랑이를 잡을 활을 준비하고, 향기로운 미끼를 던져 거대한
물고기를 낚을 채비만 하시면 됩니다. 주유가 도착했을 때, 그가 죽지
는 않더라도 기운이 아홉 푼은 꺾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곧장 조
운을 불러 계책을 알려주며 덧붙였다. "대책은 이렇게 세워두었으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소."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탄식하며 시를 읊었다.

"주유가 형주를 빼앗으려 결단을 내렸으나, 제갈량은 이미 첫 수부
터 꿰뚫어 보았네. 장강에 던진 미끼가 튼튼하기만을 바랐건만, 그 아
래 숨겨진 낚싯바늘은 알지 못했구나."

한편, 노숙이 돌아와 주유에게 보고하기를, "유비와 제갈량이 기뻐하며 의심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성 밖으로 나가 군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주유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결국 이번에도 내 계책에 빠졌구나!" 주유는 곧바로 노숙에게 손권께 보고하게 하고, 정보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마중하라고 명했다.

이 무렵 주유는 화살을 맞았던 상처가 점차 나아 몸 상태가 괜찮아졌다. 그는 감녕을 선봉으로 삼고, 자신은 서성과 정봉과 함께 제2진을 맡았으며, 능통과 여몽이 후방을 맡게 했다. 수로와 육로를 아우르는 5만 대군이 형주를 향해 진격했다. 주유는 배 위에서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며, 제갈량이 자신의 계책에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전군이 하구에 이르자 주유가 물었다. "형주에서 마중 나올 사람이 앞에 있는가?" 부하가 보고했다. "유비가 미축을 보내 도독님을 뵈게 하려 합니다." 주유가 미축을 불러 군사들을 대접할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미축이 대답했다. "주군께서 모두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주유가 다시 물었다. "유비는 어디에 있소?" 미축이 말했다. "형주 성문 앞에서 도독님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유가 말했다. "지금 그대 가문의 일을 돕기 위해 멀리 원정을 나왔으니, 군사들을 대접하는 예법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요." 미축은 이 말을 듣고 먼저 돌아갔다.

전함들이 강 위에 뱅뱅하게 줄을 지어 차례로 나아갔다. 공안에 이르기까지 군선 한 척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마중 나오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 주유는 배를 재촉해 속도를 높였다. 형주에서 십여 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으나, 강물 위는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정찰병이 보고했

다. "형주 성 위에는 흰 깃발 두 개가 꽂혀 있을 뿐,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는 의심이 생겨 배를 기슭에 대게 하고 직접 땅으로 올라갔다. 그는 말을 타고 감녕, 서성, 정봉 등 장수들과 함께 친위 정예병 삼천 명을 거느리고 곧장 형주를 향해 달려갔다. 성 아래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주유가 말 고삐를 당겨 멈춰 서고 군사들에게 성문을 두드리라고 명했다. 성 위에서 누구냐고 물었다. 오나라 군사들이 대답했다. "동오의 주유 도독께서 친히 오셨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딱딱 소리가 울리더니, 성 위에서 일제히 창과 칼을 치켜들었다. 성루 위로 조운이 나타나 물었다. "도독께서 이번엔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주유가 말했다. "그대의 주군을 대신해 서천을 얻으러 왔는데, 어찌 아직도 모르시오?"

조운이 대답했다. "제갈량 군사께서 이미 도독의 '가도멸곡' 계책을 알아채셨기에, 저 조운을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 주군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유장과 모두 한나라 황실의 종친인데, 어찌 의리를 저버리고 서천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대들 동오가 정말로 촉을 차지하려 한다면, 나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산으로 들어가 천하에 신의를 잃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유는 이 말을 듣고 말머리를 돌려 곧장 돌아가려 했다. 그때 한 사람이 '령(令)'자가 적힌 깃발을 휘두르며 말 앞에서 급히 보고했다. "사방에서 네 갈래의 군마가 몰려와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관우가 강릉에서, 장비가 자귀에서, 황충이 공안에서, 위연이 이릉의 셋길을 통해 몰

려오고 있습니다. 네 갈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함성이 백여 리 밖까지 진동하며 모두 주유를 잡으러 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유는 말 위에서 외마디 비명을 크게 지르더니, 화살 맞은 상처가 다시 터지며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야말로, 한 수 앞선 수로 적을 대적하기 어려우니, 몇 번이고 계산해 보아도 결국 모두 헛수고로다.

주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7회 — 시상구에서 와룡이 상을 애도하고, 퇴양현에서 봉추가 일을 도모하다

柴桑口臥龍弔喪 耒陽縣鳳雛理事

한편, 주유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졌고, 좌우의 부하들이 급히 그를 구해 배로 옮겼다. 군사들이 "유비와 제갈량이 앞산 꼭대기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라고 전하자, 주유는 몹시 화가 나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가 서천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냐? 내 반드시 차지하고 말 것이다!"

한참 분을 삭이고 있는데, 오나라 군주 손권이 동생 손유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주유는 손유를 맞이하여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손유가 말했다. "형님의 명을 받들어 도독님을 도우러 왔습니다." 이에 주유는 즉시 군사를 재촉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파구에 이르렀을 때, 상류에서 유봉과 관평 두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수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주유는 더욱 분노했다.

그때 또 제갈량이 사람을 보내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렸다. 주유가 편지를 뜯어보니 다음과 같았다.

"한나라의 군사 중랑장 제갈량이 동오의 대도독 주유 선생께 글을 올립니다. 시상에서 헤어진 뒤로 지금까지 그리운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독께서 서천을 취하려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제 생각에는 그리하여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익주는 백성들이 강하고 지형이 험하여, 비록 유장이 어리석고 약하다 하나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충분합니다. 지금 군사를 일으켜 멀리 원정을 떠나 만 리 길의 물자를 운반하며 공을 세우려 한다면, 설령 오기의 재능이 있다 한들 그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손무의 지략이 있다 한들 그 뒷수습을 잘해내기 힘들 것입니다. 조조가 적벽에서 패하였으니, 어찌 그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을 잠시라도 잊었겠습니까? 만약 도독께서 군사를 일으켜 멀리 떠나셨을 때 조조가 빈틈을 타 몰려온다면, 강남 땅은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를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특별히 알려드리오니, 부디 살피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유가 글을 다 읽고는 길게 탄식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게 하여 손권에게 보낼 글을 적었다. 그러고는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명(天命)이 다하였구나. 너희는 손권을 잘 보필하여 큰 대업을 이루도록 하라." 말을 마친 주유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잠시 후 서서히 깨어난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게 탄식했다. "이미 이 주유를 낳고서, 어찌 또 제갈량을 낳으셨단 말인가!" 그는 몇

번이고 울부짖다 결국 숨을 거두었다. 향년 서른여섯이었다. 훗날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지은 시에 이르기를 다음과 같다.

"적벽의 영웅적 기상, 젊은 시절의 드높은 명성. 거문고 소리에 고아한 뜻을 알고, 술잔을 나누며 좋은 벗에게 고하네. 삼천 곡의 곡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십만 대군을 호령하기도 했지만, 결국 파구에서 목숨을 마쳤으니, 그를 애도하는 마음 슬픔이 끝이 없구나."

주유는 바둑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장수들은 주유가 남긴 유서를 봉인하여 사람을 보내 손권에게 급히 전했다. 손권은 주유의 부고를 듣고 목놓아 통곡했다. 이어 유서를 열어보니, 주유가 자신의 뒤를 이어 노숙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서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저 주유는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졌음에도 특별한 은혜를 입어, 민고 맡겨주신 병마를 통솔하며 온 힘을 다해 보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예측할 수 없고 수명 또한 하늘의 뜻이니, 뜻을 다 펼치기도 전에 이 미천한 몸이 먼저 쓰러지게 되니 그 한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조는 북쪽에 머물며 전장의 기운이 여전히 흥흥하고, 유비는 형주에 머물고 있으니 마치 호랑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천하의 형세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정의 신료들이 밤낮없이 힘써야 할 때이며, 황제께서 깊이 근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노숙은 충성스럽고 강직하여 일을 처리함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으니, 저를 대신해 임무를 맡기에 충분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제 뜻을 살피 주신다면, 저 주유는 죽어서도 한이 없겠습니다!"

손권이 편지를 다 읽고는 울며 말했다. "주유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뛰어난 재능을 가졌거늘, 어찌 이리 갑작스럽게 명을 달리했단 말인가.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주유가 유서에 노숙을 특별히 추천했으니, 내가 어찌 그 뜻을 따르지 않겠는가?" 손권은 곧바로 노숙을 도독으로 임명하여 병마를 총괄하게 했고, 동시에 주유의 영구를 보내 장례를 치르도록 명령했다.

한편, 제갈량은 형주에서 밤에 천문을 살피다가 장성(將星)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주유가 죽었구나." 날이 밝자 제갈량은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유비가 사람을 보내 확인해보니 과연 주유가 죽어 있었다. 유비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주유가 죽었으니 이제 어찌해야 하겠소?" 제갈량이 대답했다. "주유를 대신해 군사를 이끌 자는 분명 노숙일 것입니다. 제가 천상을 보니 장성들이 동쪽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주유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핑계로 강동에 한번 다녀오면서, 주군을 도와줄 현명한 인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비가 걱정하며 말했다. "오나라의 장수들이 선생을 해칠까 두렵소." 제갈량이 말했다. "주유가 살아있을 때도 저는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주유가 죽었으니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고는 조운과 함께 오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제사 예법을 갖춘 뒤, 배를 타고 파구로 가서 주유의 장례를 치렀다. 길을 가는 중에 손권이 이미 노숙을 도독으로 임명했으며, 주유의 영구는 이미 시상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갈량은 곧장 시상으로 향했고, 노숙이 예우를 갖추어 그를 맞이했다. 주유의 부하 장수들은 모두 제갈량을 죽이려 했으나, 조운이 칼을 차고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감히 손을 쓰지 못했다. 제갈량은 제사 음식을

을 영전 앞에 차리게 한 뒤, 직접 술을 올리고 땅에 무릎을 꿇어 제문을 읽었다.

"아아, 주유여! 불행히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수명의 길고 짧음은 본디 하늘에 달린 것이나 사람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내 마음이 참으로 아파 술 한 잔을 올리노니, 그대의 영혼이 있다면 이 제물을 받으소서! 어린 시절에는 손백부(손책)와 사귀며 학문을 닦았고, 의를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으며 집을 내어주던 너그러운 이였네. 약관의 나이에 만 리를 날아갈 기상을 품고, 패업을 세워 강남을 차지하였도다. 장년에는 굳건한 힘으로 멀리 파구를 지켜, 유표(경승)는 근심에 잠기게 하고 토역장군(손책)은 근심을 덜게 하였네. 그대의 풍채는 아름다운 소교와 어울렸으니, 한나라 신하(교공)의 사위로서 조정에 부끄러움이 없었도다. 그대의 기개는 인질 보내는 일을 간하여 막았으니, 처음에는 날개를 접고 있었으나 끝내 힘차게 날아올랐네. 파양에서 장간이 설득하러 찾아왔을 때 보여준 그대의 숨씨는 자유자재였으며, 그 너그러운 도량과 높은 뜻은 실로 대단하였도다. 문무를 겸비한 그대의 큰 재능은 화공으로 적을 격파하고, 강한 것을 약하게 만드는 지략을 보여주었네. 그대의 당당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일찍 떠난 그대를 위해 곡하며 땅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대의 충의로운 마음과 영웅다운 기운은, 비록 목숨은 서른여섯에 다했을지언정 그 이름은 백 세토록 빛나리라. 그대를 향한 슬픔이 너무나 깊어 마음이 천 갈래로 뗏이니, 내 간담이 슬픔으로 끊이지 않는구나. 하늘은 어둡고 삼군은 슬픔에 잠겼으니, 주군은 통곡하고 벼들은 눈물을 흘리네.

나 제갈량은 재주가 없어 계책을 구하러 다녔노라. 오나라를 도와 조조를 막고, 한나라를 도와 유씨를 편안케 하며, 의각지세로 서로 돕고 머리와 꼬리가 서로 짝하였으니, 살아도 함께요 죽어도 함께이거늘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라? 아아, 주유여! 생사의 이별이 영원하구나! 질박하게 곧음을 지키다 어둑히 스러져 가는구나. 영혼이 있다면 나의 진심을 살피주오. 이제 천하에 그대와 뜻을 나눌 지음은 다시는 없으리라! 아아, 슬프도다! 부디 이 제물을 받으소서!"

제갈량이 제사를 마치고 땅에 엎드려 크게 통곡하니, 눈물이 샘솟듯 쏟아져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이를 본 장수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주유와 제갈량이 사이가 좋지 않다고들 하더니, 오늘 제사를 지내는 정성을 보니 그 말은 모두 헛소리였구나"라고 하였다. 노숙은 제갈량이 이토록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마음이 울적하여 속으로 생각했다. '제갈량은 본래 정이 많은 사람인데, 주유의 도량이 좁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로구나.'

후대에 어떤 이가 시를 지어 이렇게 탄식했다.

"와룡은 남양에서 잠든 채 아직 깨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하늘의 별 하나가 서성에서 저물어 사라졌구나. 푸른 하늘이 이미 주유를 냈거늘, 어찌 세상에 제갈량까지 더 필요했겠는가?"

노숙이 제갈량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대접했다. 잔치가 끝나자 제갈량은 작별을 고하고 돌아가려 했다. 막 배를 타고 내려가려는데, 강가에서 도포를 입고 대나무 관을 쓴 한 사람이 검은 끈을 매고 흰 신을 신은 채 나타나더니, 제갈량의 손을 붙잡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주유를 화가 나 죽게 만들더니, 이제는 조문하러 오다니! 동 오에 인재가 없는 줄 아는가?"

제갈량이 급히 그를 살펴보니, 바로 봉추라 불리는 방통이었다. 제갈량 역시 크게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배에 올라 각자의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제갈량은 방통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며 당부했다.

"내가 보기에 손권은 반드시 그대를 중용하지 않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형주로 와서 유비와 함께 일하시요. 그는 너그럽고 어진 덕을 갖춘 사람이니, 분명 그대의 재능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요."

방통은 그 말을 승낙하고 작별했다. 제갈량은 홀로 형주로 돌아갔다.

한편, 노숙이 주유의 관을 무호까지 운반해 오자, 손권은 이를 이어받아 그 앞에서 슬피 울며 제사를 지내고 주유를 고향에 정중히 장사지내도록 명했다. 주유에게는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장남은 순이고 차남은 윤이었다. 손권은 이들을 모두 극진히 보살폈다.

노숙이 말했다. "저 노숙은 보잘것없는 재주를 가진 사람인데, 주유가 저를 높게 평가하여 추천해 준 덕분에 이 직책을 맡게 되었으나 사실 제 능력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주군을 도울 만한 인물을 한 명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위로는 천문을 통달하고 아래로는 지리에 밝으며, 그 지략은 관중이나 악의에 뒤지지 않고, 그 임기응변의 기틀은 손무와 오기에 견줄 만한 인물입니다. 예전에 주

유도 그의 말을 자주 따랐고, 제갈량 또한 그의 지혜를 깊이 인정했습니다. 지금 강동에 이런 인물이 있는데, 어찌 중용하지 않으십니까?"

손권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노숙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양양 사람으로, 성은 방이고 이름은 통이며, 자는 사원이고 도호는 봉추 선생이라 합니다." 손권이 말했다. "나도 그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소. 이제 이곳에 왔으니 즉시 불러 만나도록 하시오." 이에 노숙은 방통을 청하여 손권을 알현하게 했다. 방통이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쳤다. 손권이 그를 살펴보니 눈썹은 짙고 코는 높으며, 얼굴은 검고 수염은 짧아 생김새가 괴상했다. 손권은 마음속으로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손권이 물었다. "공이 평소 배운 학문은 무엇을 위주로 합니까?" 방통이 대답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손권이 다시 물었다. "공의 재주와 학문은 주유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방통이 웃으며 말했다. "저의 재주와 학문은 주유와는 크게 다릅니다." 손권은 평소 주유를 매우 아꼈기에, 방통이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더욱 불쾌해졌다. 그러고는 방통에게 말했다. "그만 물러가시오. 나중에 공을 쓸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청하겠소."

방통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갔다. 노숙이 말했다. "주군께서는 어찌하여 방통을 쓰지 않으십니까?" 손권이 대답했다. "그는 미친 선비인데, 그를 써서 무엇하겠소?" 노숙이 다시 말했다. "적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연환계(배를 서로 묶는 계책)를 바쳐 일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주군께서도 분명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권이 말했다. "그때는 조조가 스스로 배를 묶으려 했던 것이니, 반드시

시 이 사람의 공이라 할 수 없소. 나는 결코 그를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오."

노숙은 밖으로 나가 방통에게 말했다. "제가 추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나라 주군께서 공을 쓰려 하지 않으십니다. 부디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방통은 고개를 숙인 채 길게 탄식하며 아무 말이 없었다. 노숙이 물었다. "혹시 오나라에 뜻이 없으신 것입니까?" 방통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숙이 다시 물었다. "공은 세상을 구제할 재능을 품고 계신데, 어디를 가든 이롭지 않겠습니까? 제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려 하십니까?" 방통이 말했다. "저는 조조에게 가려 합니다." 노숙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것은 밝은 구슬을 어둠 속에 던지는 격입니다. 차라리 형주로 가서 유비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중용될 것입니다." 방통이 말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방금 한 말은 농담이었습니다." 노숙이 말했다. "제가 서신을 써서 추천하겠습니다. 공께서 유비를 도와준다면, 반드시 손권과 유비 두 집안이 서로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 조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통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제 평생의 뜻입니다." 방통은 노숙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청한 뒤, 곧장 형주로 가서 유비를 만나러 떠났다.

이때 제갈량은 네 군을 살피러 떠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문지기가 들어와 강동의 명사 龐統이 특별히 찾아와 의탁하려 한다고 보고했다. 유비는 평소 龐統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즉시 그를 불러 만나게 했다. 龐統은 유비를 보자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절은 하지 않았다. 유비는 龐統의 외모가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쾌해하며 물었다.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龐統은 노숙의 편지나 제갈량이 보낸 서신을 바로 꺼내 보여주는 대신, 그저 이렇게 대답했다.

"황숙께서 인재를 불러 모으신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형주와 초나라 땅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나, 아직 한가하게 맡을 만한 직책이 없구려. 여기서 동남쪽으로 수백 리를 가면 耒陽이라는 현이 있는데, 마침 현령 자리가 비어 있으니 龐統 선생께서 그곳을 맡아 주시오. 나중에 자리가 비면 그때 다시 중용하겠습니다."

방통은 속으로 '유비가 나를 이토록 박하게 대하다니, 내 재주와 학식으로 그를 감동시키려 했던만'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다 제갈량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방통은 뇌양현에 도착한 뒤 정무는 돌보지 않고 온종일 술을 마시며 즐기는 데만 빠져 있었다. 그 결과 각종 세금과 군량, 소송 문제 등이 전혀 처리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유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방통이 뇌양현의 모든 정사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비가 크게 노하며 외쳤다. "저런 선비놈이 감히 나의 법도를 어지럽힌단 말이냐!" 유비는 즉시 장비를 불러 다음과 같이 분부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형남 지역의 여러 현을 순찰하며, 만약 불공정하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즉시 엄중히 문책하라. 혹시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걱정되니, 손건과 함께 가도록 해라."

장비는 말을 마치고 손건과 함께 뇌양현으로 향했다. 군사와 백성, 관리들이 모두 성 밖으로 나와 맞이했으나, 유독 현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비가 물었다. "현령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자 동료 관리가 대답했다. "방통 현령께서 부임하신 지 백여 일이 지났으나, 현의 업무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매일 술만 드시며 아침부터 밤까지 취해 계십니다. 오늘은 술이 덜 깨서 아직도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장비는 크게 노하여 그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자 손건이 말렸다. "방통은 매우 명석한 사람이니 가법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단 현에 들어가서 따져 보지요. 만약 도리에 어긋난다면 그때 벌을 주어도 늦지 않습니다."

장비는 곧 현청으로 들어갔다. 정청에 자리를 잡고 앉아 현령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방통은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장비가 화를 내며 꾸짖었다. "내 형님이 너를 사람답게 여겨 현령 자리를 맡겼거늘, 네가 어찌 감히 현의 업무를 이토록 내팽개칠 수 있단 말이나!"

방통이 웃으며 물었다. "장군께서는 제가 현의 일을 무엇을 내팽개쳤다는 말씀이십니까?"

장비가 다시 말했다. "네가 부임한 지 백여 일이 지났는데, 종일 술에 취해 있으니 어찌 정사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방통이 대답했다. "이곳은 겨우 백 리 남짓한 작은 현인데, 약간의 공무를 처리하는 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장군께서는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제가 다 처리하는 것을 보시지요."

방통은 즉시 관리를 불러 지난 백여 일 동안 쌓인 모든 공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 관리들은 모두 분주히 서류 봉치를 안고 정청으로 올라와 소장들을 올렸다. 피고인들은 계단 아래에 둥글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방통은 손으로는 판결을 내리고 입으로는 명령을 내리며, 귀로는 양측의 말을 들었다. 옳고 그름을 아주 명확하게 가려내니 조금의 착오도 없었다.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절했다.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백여 일 동안 밀린 일을 모두 끝낸 방통은 붓을 땅에 던지며 장비에게 말했다. "내가 내팽개친 일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조조나 손권 같은 자들은 손바닥 위의 글자 보듯 다스릴 수 있는데, 고작 이 작은 현 따위가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장비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선생님은 참으로 큰 재능을 가지셨군요.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반드시 형님께 선생님을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그러자 龐統이 노숙이 써준 추천서를 내밀었다. 장비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우리 형님을 처음 뵈었을 때, 왜 바로 이 추천서를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龐統이 대답했다. "만약 처음부터 이 추천서를 내밀었다면, 오로지 추천서 하나를 믿고 찾아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장비는 곁에 있던 손건을 돌아보며 말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큰 현자를 놓칠 뻔했네.”

장비는 곧 龐統에게 작별을 고하고 형주로 돌아가 유비에게 龐統의 재능을 상세히 보고했다. 유비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큰 현자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으니, 이는 나의 잘못이다!”

장비는 노숙의 추천서를 유비에게 가져다주었다. 유비가 그 편지를 뜯어 살펴보니 내용은 이러했다. “龐士元은 겨우 백 리 안에서나 통할 인재가 아닙니다. 그에게 치중별가라는 직책을 맡겨야 비로소 그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배운 재능을 싹히게 되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쓰이게 될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비가 글을 다 읽고 탄식하고 있을 때, 마침 제갈량이 돌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유비가 제갈량을 맞이하며 예를 갖추자, 제갈량이 먼저 물었다.

"방 군사께서는 요사이 별일 없으십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최근 뇌양현 현령으로 부임했는데, 술만 좋아하고 정사는 돌보지 않고 있네."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방사원은 결코 백 리 고을이나 다스릴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가슴에 품은 학문은 저보다 열 배는 더 뛰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방사원에게 추천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혹시 주공께 전달되었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오늘에야 겨우 노숙의 편지를 받았을 뿐, 선생의 편지는 아직 보지 못했네."

제갈량이 말했다.

"현명한 인물이라도 작은 직책에 있으면 종종 술로 세월을 보내며 정사를 돌보는 일을 귀찮아하곤 합니다."

유비가 말했다.

"선생이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면 큰 인재를 놓칠 뻔했구려."

유비는 즉시 장비를 뇌양현으로 보내 방통을 형주로 모셔 오게 했다. 유비는 계단을 내려가 방통에게 미안함을 표했다. 방통이 막 제갈량이 써준 추천서를 꺼내려 할 때, 유비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 '봉추가 도착하는 대로 즉시 중용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유비가 기뻐하며 말했다.

"예전에 사마덕조(사마휘)가 '복룡과 봉추 중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었지. 이제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얻었으니, 한나라의 왕실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구나."

유비는 곧 방통을 부군사 중랑장으로 임명하여, 제갈량과 함께 계책을 세우고 군사를 훈련하며 정벌을 준비하도록 했다.

이미 누군가가 허창에 보고하기를, "유비가 제갈량과 방통을 책사로 삼아 군사를 모집하고 말을 사들이며, 풀과 곡식을 쌓아 군량을 비축하고 오나라와 연합하여 머지않아 반드시 북벌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책사들을 모아 남정 계획을 논의했다.

순유가 나아가 말했다. "주유가 막 세상을 떠났으니, 먼저 손권을 치고 그다음 유비를 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가 멀리 원정을 떠나면 마등이 허창을 습격할까 두렵다. 지난번 적벽대전 때도 군중에 서량군이 침입한다는 헛소문이 돌았으니, 이번에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순유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조서를 내려 마등을 정남장군으로 임명하고 손권을 토벌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를 수도로 유인해낸 뒤에 먼저 제거한다면, 남정을 떠나더라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그날 즉시 사람을 보내 조서를 지니고 서량으로 가서 마등을 불러들였다.

한편, 마등의 자는 수성으로, 한나라의 복파장군 마원의 후손이다. 그의 아버지 마숙의 자는 자석이며, 환제 때 천수 란간현의 현위로 있었다. 나중에 관직을 잃고 룡서 지역을 떠돌다 강족과 섞여 살게 되었

는데, 그때 강족 여인을 아내로 맞아 마등을 낳았다. 마등은 키가 8척에 달하고 풍채가 남달랐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어질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영제 말년에 강족들이 대거 반란을 일으키자, 마등은 민병을 모집하여 이를 진압했다. 이후 초평 연간에 도적을 토벌한 공을 세워 정서장군에 임명되었고, 진서장군 한수와는 형제처럼 지냈다.

그날 조조의 명령을 받은 마등은 장남 마초와 마주 앉아 의논하며 말했다.

"내가 동승으로부터 밀지를 받은 이후로 유비와 함께 역적을 토벌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동승은 이미 죽었고, 유비는 거듭 패하고 있구나. 나 또한 서량의 외딴곳에 머물러 유비를 돕지 못했다. 이제 유비가 형주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옛 뜻을 펼치고 싶어지는데, 조조가 도리어 나를 불러들이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마초가 대답했다.

"조조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 아버님을 부르는 것이니, 지금 가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명령을 어겼다는 죄를 물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조의 부름을 타고 수도로 가서 그 안에서 일을 도모한다면, 예전의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등의 조카 마대가 간언했다. "조조는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음흉한 자입니다. 숙부님께서 가신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초가 말했다. "저는 서량의 군사를 모두 일으켜 아버지를 따라 허창으로 쳐들어가, 천하의 해악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찌 안 되겠습니까?" 마등이 말했다. "너는 스스로 강족 군사를 거느리고 서량을 지

키거라. 차남인 마휴와 마철, 그리고 조카 마대만 나를 따라가면 된다. 조조도 네가 서량을 지키고 있고 한수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감히 나를 해치지는 못할 것이다." 마초가 다시 말했다. "아버님께서 가시더라도 절대로 경사로 가볍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상황을 살피며 기회를 봐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마등이 대답했다. "나도 생각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마등은 서량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먼저 마휴와 마철에게 전방 부대를 맡기고, 마대를 뒤에 남겨 후방 지원을 맡긴 채 허창을 향해 진군했다. 마등의 군대는 허창에서 2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조조는 마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하시랑 황규를 불러 명령했다.

"지금 마등이 남쪽으로 정벌을 떠나려 하니, 네가 행군 참모가 되어 마등의 진영으로 먼저 가서 군사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마등에게 이렇게 전하라. 서량은 길이 멀고 식량을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사람과 말을 많이 데려올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조만간 대군을 더 보내 함께 진격하도록 하겠다. 내일 그를 성 안으로 불러 나를 만나게 하면, 내가 직접 식량과 군량을 챙겨주겠다고 말이다."

황규는 말을 받들어 마등을 찾아갔다. 마등은 술을 차려 정성껏 그를 대접했다. 술기운이 반쯤 오른 황규가 입을 열었다.

"저의 부친 황완께서는 이각과 곽사의 난 때 돌아가셔서 늘 한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또 임금을 속이는 도적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등이 물었다.

"임금을 속이는 도적이 누구란 말이요?"

황규가 대답했다.

"임금을 속이는 자는 바로 조조입니다. 대인께서는 어찌 이를 모르고 제게 물으십니까?"

마등은 조조가 사람을 보내 자신을 떠보려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났다. 그는 급히 황규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주변에 귀가 밝은 사람이 많으니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그러자 황규가 꾸짖듯 말했다.

"대인께서는 설마 황제의 밀지를 잊으신 것입니까?"

마등은 황규가 속마음을 드러내자, 비로소 은밀하게 실상을 털어놓았다. 황규가 말했다.

"조조가 대인께 성 안으로 들어와 주군을 뵙자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함부로 성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군사를 이끌고 성 아래에 진을 치십시오. 조조가 군사를 점검하러 성 밖으로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처단한다면 큰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상의를 마친 뒤, 황규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 아내가 몇 번이고 이유를 물었지만, 황규는 끝내 입을 열

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황규의 첩인 이춘향은 아내의 처남인 묘택과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다. 묘택은 이춘향을 차지하고 싶었으나 마땅한 방도가 없었다. 이춘향은 황규가 몹시 분해하는 것을 보고 묘택에게 말했다.

"황 시랑께서 오늘 군사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무척 분노하고 계시더군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묘택이 대답했다.

"내가 가서 슬쩍 떠보렴. '사람들이 모두 유비는 어질고 조조는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보면서 말이야.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황규는 정말로 이춘향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춘향은 묘택이 시킨 대로 슬쩍 말을 건넸다. 황규는 술기운을 빌려 이렇게 말했다.

"너 같은 여인도 옳고 그름을 아는데, 하물며 나라고 모르겠느냐? 내가 한이 맺힌 것은 조조를 죽이고 싶기 때문이다."

이춘향이 물었다.

"만약 그를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손을 쓰실 건가요?"

황규가 대답했다.

"이미 마등 장군과 약조를 해두었다. 내일 성 밖에서 군사를 점검할 때 그를 죽일 것이다."

이춘향은 이 사실을 묘택에게 알렸고, 묘택은 이를 조조에게 보고했다. 조조는 즉시 조홍과 허저를 은밀히 불러 지시를 내리고, 이어 하후연과 서황까지 불러 각각 명령을 전달했다. 명령을 받은 이들이 물러가자마자, 그들은 먼저 황규의 가족들을 모두 붙잡아 왔다.

다음 날, 마등이 서량 군사들을 이끌고 성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저 멀리 앞에서 승상의 깃발을 내건 붉은 깃발 무리가 보였다. 마등은 조조가 평소처럼 군사를 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갑자기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지더니, 붉은 깃발이 펼쳐짐과 동시에 활과 노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앞장서서 달려 나온 장수는 조홍이었다. 마등이 급히 말을 돌려 피하려 했으나, 양쪽에서 함성이 다시 터져 나왔다. 왼쪽에서는 허저가, 오른쪽에서는 하후연이 달려들었고, 뒤쪽에서는 서황이 이끄는 군사들이 들이닥쳐 서량 군사들의 퇴로를 끊어버렸다. 결국 마등과 그의 아들들은 포위망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다.

마등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 힘껏 돌파하며 싸웠다. 하지만 마철은 이미 난사된 화살에 맞아 죽은 뒤였다. 마휴는 마등을 따라 좌우로 거칠게 부딪치며 길을 내보려 애썼으나 좀처럼 빠져나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몸에 중상을 입은 데다 타고 있던 말마저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바람에, 결국 부자가 함께 붙잡히고 말았다.

조조는 장수들에게 명하여 황규와 마등 부자를 한데 묶어 끌고 오게 했다. 황규가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크게 소리치자, 조조는 묘택을 불러 증언하게 했다. 그러자 마등이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천박한

선비 놈이 내 큰일을 망쳤구나! 나라를 위해 적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다!"

조조가 마등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마등은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옥설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들 마휴, 그리고 황규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마등을 찬양하며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부자가 함께 향기로운 절개를 떨쳤으니, 충성과 정절이 한 가문에 서렸도다. 나라의 위기를 구하려 목숨을 던지고, 죽음으로써 임금의 은혜에 답하였네. 피로써 맹세한 말은 여전히 남아 있고, 간신을 처단하려던 의로운 기록도 남아 있구나. 서량에서 대대로 이어온 명문가로 추앙받으니, 복파장군(마원)의 후손으로 부끄럽지 않다."

묘택이 조조에게 말하였다. "상은 더 받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이춘향을 아내로 맞게만 해주십시오."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매형 일가를 죽게 만들다니, 이런 의리 없는 자를 살려두어 무엇에 쓰겠느냐!"

말을 마친 조조는 즉시 묘택과 이춘향, 그리고 황규의 온 가족을 시장터로 끌어내어 모두 참수하게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다.

후대의 시인이 이를 보고 시로 읊기를 다음과 같다.

"묘택은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충신을 해쳤고, 춘향은 정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목숨을 잃었네. 간웅 조조조차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니, 소인배가 되려던 헛된 꿈이 결국 화를 불렀구나."

조조는 서량의 군사들을 회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등 부자가 반역을 꾀한 것이니, 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관문을 굳게 지키게 하여 마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마대는 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일찍이 허창 성 밖으로 도망쳐 나온 군사들이 마대에게 달려와 소식을 전했다. 마대는 크게 놀라 어찌할 도리가 없자, 부하들을 버려둔 채 스스로 상인으로 변장하여 밤을 틈타 급히 달아났다. 조조는 마등 일가를 모두 죽인 뒤, 곧장 남쪽으로 정벌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이 달려와 보고했다. "유비가 군마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정비하며 익주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조가 놀라며 말했다. "만약 유비가 익주를 차지한다면 그의 세력이 날개를 단 듯 강력해질 터인데, 이를 어찌 막아낸단 말이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에서 한 사람이 나아가 말했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책을 쓰면 유비와 손권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되어, 강남과 익주가 모두 승상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천의 호걸들은 막 참변을 당했고, 남쪽 나라의 영웅들은 또 재앙을 입었으니, 과연 계책을 내놓은 자가 누구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자.

제58회 — 마맹기가 군사를 일으켜 원한 을 갚고, 조아만이 수염을 자르고 도포를 버리다

馬孟起興兵雪恨 曹阿瞞割鬚棄袍

한편, 계책을 낸 사람은 치서시어사 진군으로, 자는 장문이다. 조조가 물었다. "진장문에게 무슨 좋은 계책이 있는가?"

진군이 대답했다. "지금 유비와 손권은 입술과 이빨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비가 서천을 차지하려 한다면, 승상께서는 즉시 상급 장수에게 군사를 맡겨 합비의 군사들과 합류하게 한 뒤, 곧장 강남으로 진격하십시오. 그러면 손권은 반드시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서천에 마음이 가 있으니 손권을 도울 마음이 없을 것이고, 손권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병력이 쇠하여 강동 땅은 반드시 승상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강동을 얻게 된다면 형주 또한 단번에 평정할 수 있습니다. 형주를 평정한 뒤에 천천히 서천을 도모하신다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장문의 말이 내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오."

조조는 즉시 30만 대군을 일으켜 곧장 강남으로 내려갔다. 또한 합비의 장료에게 명하여 군량과 군수품을 준비해 보급에 차질이 없게 했다.

이미 첩자가 손권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손권이 장수들을 모아 의논하자 장소가 말했다.

"노숙에게 사람을 보내 형주에 급히 서신을 보내십시오. 유비가 힘을 합쳐 조조를 막아내도록 해야 합니다. 노숙은 유비와 은혜가 깊으니 그 말을 반드시 따를 것이고, 유비 또한 이미 오나라의 사위가 되었으니 의리상 거절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유비가 도와준다면 강남은 근심을 덜 수 있습니다."

손권이 이 말을 따랐다. 즉시 사람을 보내 노숙에게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하라고 일렀다. 노숙은 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서신을 써서 사람을 보내 유비에게 전달했다. 유비는 서신의 내용을 읽고는 사자를 숙소에서 머물게 한 뒤, 사람을 보내 남군에 있는 제갈량을 불러오게 했다.

제갈량이 형주에 도착하자 유비는 노숙의 서신을 제갈량에게 보여주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강남의 군사를 움직일 필요도 없고, 형주의 군사를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조가 감히 동남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는 노숙에게 답장을 보내 걱정 말고 편히 쉬라고 전했다. 만약 북쪽 군사가 침범한다면 황숙(유비)에게 분명 퇴각할 계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자가 떠나자 유비가 물었다.

"지금 조조가 30만 대군을 일으켜 비 지역의 군사와 합류해 한꺼번에 몰려오려 합니다. 선생께서는 이들을 물리칠 어떤 묘책이 있으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조조가 평생 가장 염려하는 것은 서량의 군사입니다. 지금 조조가 마등을 죽였으니, 그의 아들 마초는 현재 서량의 군사를 이끌고 조조라는 도적놈을 반드시 이를 갈며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서신을 써서 마초와 결탁하십시오. 마초가 군사를 일으켜 관중으로 들어온다면, 조조는 감히 강남으로 내려올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서신을 작성하고, 심복 한 명을 택해 곧장 서량주로 보내 마초에게 전달하게 했다.

한편, 마초는 서량주에 있을 때 밤에 꿈을 하나 꾸었다. 꿈속에서 자신이 눈발에 누워 있는데, 수많은 호랑이가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이 아닌가. 마초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긴 마초는 막사로 장수와 부하들을 불러 모아 꿈에서 본 일을 이야기했다.

그때 막사 아래에 있던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 꿈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니, 그는 마초의 막사 앞에서 보좌하는 심복 교위로 성은 방, 이름은 덕이며 자는 영명이었다. 마초가 물었다. "영명, 네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방덕이 말했다. "눈발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은 꿈의 징조가 매우 흉악합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허창에서 무슨 변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절했다. "숙부님과 동생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마초가 살펴보니 마대의 모습이었다. 마초가 놀라 물었다.

마대가 대답했다. "숙부님과 시랑 황규가 함께 조조를 암살하려 하셨으나, 불행히도 계획이 새나가는 바람에 모두 저잣거리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두 동생 또한 살해당했습니다. 저만 겨우 행색을 바꾸어 상인인 척하며 밤을 도와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마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니, 부하 장수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마초는 이를 갈며 조조를 향한 깊은 원한을 드러냈다. 이때 갑자기 형주에서 유비가 사람을 보내 서신을 전해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마초가 서신을 뜯어보니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한나라 왕실의 불행을 생각하니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조조라는 도적놈이 권력을 독점하고 황제를 기만하며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 유비는 예전에 돌아가신 마등 장군과 함께 밀지를 받았으며, 반드시 이 도적을 처단하겠노라 맹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

등 장군께서 조조에게 해를 입으셨으니, 이 원한은 하늘과 땅을 함께할 수 없고 해와 달을 함께할 수 없는 깊은 원수입니다. 만약 장군께서 서량의 군사를 이끌고 조조의 오른쪽(서쪽)을 공격하신다면, 저 또한 형주와 양주의 군사를 일으켜 조조의 앞길을 막겠습니다. 그리하면 역적 조조를 사로잡고 간신 무리를 멸할 수 있으며, 원한을 갚고 한나라 왕실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는 다 전하지 못할 말이 많으니,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초는 글을 다 읽자마자 눈물을 닦으며 즉시 답장을 썼다. 먼저 전령을 돌려보낸 뒤, 곧바로 서량의 군마를 일으켜 진군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서량 태수 한수가 사람을 보내 마초를 만나자고 청했다. 마초가 한수의 저택에 이르니, 한수가 조조가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만약 마초를 사로잡아 허도로 압송해 온다면, 즉시 그대를 서량후로 봉하겠노라." 마초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부디 숙부님께서 저희 형제 두 사람을 결박하여 허창으로 압송하십시오. 그리하여 숙부님께서 무기를 들고 고생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한수가 마초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네 아버지와 형제의 의를 맺은 사이인데, 어찌 너를 해칠 수 있겠느냐? 네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내가 마땅히 너를 돕겠다."

마초가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한수가 조조의 사자를 밀어내어 참수하고는, 곧바로 부하인 팔부 군마를 불러 모아 함께 출정했다. 그 팔부 군마란 바로 후선, 정은, 이감, 장횡, 양흥, 성의, 마완, 양추였다. 여덟 장수는 한수를 따라 마초의 수하인 방덕, 마대와 함께 2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향해 맹렬히 달려갔다.

장안의 군수인 중요는 급히 조조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들판에 진을 치고 적을 맞이했다. 서량주의 선봉장인 마대가 일만 오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과 들을 가득 메우며 위풍당당하게 몰려왔다. 중요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서 싸웠으나, 마대가 보도 한 자루를 휘두르며 공격해 오자 채 몇 합을 겨루지도 못하고 중요는 크게 패해 도망쳤다. 마대는 칼을 들고 그 뒤를 쫓아갔다. 마초와 한수가 대군을 이끌고 도착하여 장안을 포위하자, 중요는 성 위로 올라가 성을 지키며 수성에 들어갔다.

장안은 본래 서한의 수도였던 곳이라 성벽이 견고하고 해자 또한 깊고 험해서 급히 공격해서는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열흘 동안 연이어 포위 공격을 퍼부었으나 끝내 성을 깨뜨리지 못했다. 이때 방덕이 계책을 내며 말했다.

"장안 성 안은 흙이 딱딱하고 물에는 염분이 많아 식량으로 쓰기에 매우 부적합합니다. 게다가 땀감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벌써 열흘 동안 포위했으니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굶주려 있습니다. 차라리 잠시 군사를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장안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초가 말했다.

"그 계책이 참으로 묘하구나!"

마초는 즉시 '령(令)' 자가 새겨진 깃발을 보내 각 부대에 명령을 내리니, 모든 군사가 물러나기 시작했다. 마초가 직접 후방을 지키는 가운데 각 부대의 군마가 점차 멀어져 갔다.

다음 날 중요가 성벽에 올라 살펴보니, 군사들이 모두 물러가 있었으나 혹시 계책을 꾸미고 있을까 두려워 사람을 보내 정찰하게 했다. 정찰 결과 정말로 멀리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했다. 이후 군사들과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 땀감을 구하거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성문을 활짝 열어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다 닷새째 되는 날, 마초의 군사가 다시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군사와 백성들이 다투어 성안으로 뛰어 들어왔고, 중요는 다시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에 들어갔다.

한편, 중요한 동생 종진이 서문을 지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다 될 무렵, 성문 안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종진이 급히 구하러 달려가는데, 성벽 근처에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나더니 칼을 치켜들고 크게 외쳤다.

"방덕이 여기 있다!"

종진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방덕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방덕은 군사들을 흠어놓고 성문을 부수어 자물쇠를 끊어버린 뒤, 마초와 한수의 군마를 성안으로 들여보냈다. 중요는 동문으로 도망쳐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마초와 한수는 성을 차지하자 삼군 장병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중요는 동관으로 물러나 수비하며 조조에게 급히 소식을 전했다. 장안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더 이상 남쪽으로 진군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즉시 조홍과 서황을 불러 명령했다.

"먼저 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종요를 도와 동관을 철저히 지켜라. 만약 열흘 안에 관문을 잃는다면 너희 둘 모두를 참할 것이나, 열흘을 넘긴다면 너희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 내가 대군을 이끌고 곧 뒤따라가겠다."

두 장수는 명령을 받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길을 떠났다. 이때 조인이 조조에게 간언했다.

"조홍은 성격이 급하여 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는 나와 함께 군량과 군수품을 챙겨서 뒤따라오며 지원하라."

한편, 조홍과 서황은 동관에 도착하여 종요를 대신해 관문을 굳게 지키며 밖으로 나가 싸우지는 않았다. 마초가 군사를 이끌고 관문 아래까지 들이닥쳐 조조의 조상과 자손들을 모욕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조홍이 크게 분노하여 병사를 이끌고 내려가 맞서 싸우려 했다. 서황이 간곡히 말했다.

"이것은 마초가 장군을 격분시켜 싸우게 하려는 계책이니, 절대로 맞서 싸워서 안 됩니다. 승상께서 대군을 이끌고 오시면 반드시 좋은 방책이 있을 것입니다."

마초의 군대는 밤낮으로 번갈아 가며 내려와 욕설을 퍼부었으나, 조홍은 계속해서 싸우려 들었고 서황은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섰다. 그러던 중 아홉째 날이 되었을 때, 관문 위에서 살펴보니 서량군이 모두 말

을 관문 앞 풀밭에 세워둔 채 앉아 있었다. 대부분이 지치고 피곤하여 땅바닥에 누워 잠든 상태였다. 조홍은 즉시 말을 준비시키고 병사 삼천 명을 뽑아 관문 아래로 돌격했다. 서량 병사들은 말을 버리고 무기를 내팽개친 채 도망치기 바빴고, 조홍은 그 뒤를 맹렬히 추격했다.

한편, 서황이 관문 위에서 군량과 군수품을 점검하고 있을 때, 조홍이 관문 아래로 내려가 적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서황은 급히 병사들을 이끌고 뒤쫓아 가며 조홍에게 말을 돌려 후퇴하라고 크게 외쳤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엄청난 함성이 들려오더니, 마대가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다. 조홍과 서황이 급히 말을 돌려 도망치려 할 때, 갑자기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산등성이 너머에서 양쪽 군대가 나타났다. 왼쪽에서는 마초가, 오른쪽에서는 방덕이 나타나 한바탕 몰아치며 혼전이 벌어졌다. 조홍은 적의 기세를 당해내지 못해 군사의 태반을 잃고서야 겨우 포위망을 뚫고 관문 위로 도망쳐 올라왔다. 뒤이어 서량군이 맹렬히 추격해 오자, 조홍과 그 부하들은 결국 관문을 버리고 퇴각하고 말았다. 방덕이 동관까지 끈질기게 뒤쫓아 오던 중 조인의 군마와 마주쳤고, 덕분에 조홍 일행을 구해낼 수 있었다. 마초는 방덕과 합류하여 관문 위로 진격했다.

조홍이 동관을 잃고 조조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조조가 말했다. "네게 열흘의 기한을 주었거늘, 어찌하여 아홉 날 만에 동관을 잃었던 말이나?" 조홍이 대답했다. "서량군 병사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도발했습니다. 마침 적군이 방심한 틈을 타 기세를 몰아 몰아붙였는데, 적의 간사한 계책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조홍은 나이가 어려 성격이 급하고 거칠다. 서황, 네가 이 일을 잘 알아두

어야겠다!" 서황이 말했다. "여러 번 간곡히 말렸으나 듣지 않았습
니다. 당일 제가 관문에서 군량과 군사를 점검하고 있을 때, 소장군(조
홍)은 이미 관문을 내려간 뒤였습니다. 저는 큰일이 날까 두려워 서둘
러 뒤쫓아갔으나, 이미 적의 간사한 계책에 빠진 뒤였습니다."

조조가 크게 노하여 조홍을 베라고 명령하니, 여러 관리가 그를 면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조홍은 죄를 인정하고 물러났다.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곧장 동관까지 진격했다. 조인이 말했다. "먼저 진영과 울타리
를 견고히 세운 뒤에 관문을 공격해야 늦지 않습니다." 조조는 나무를
베어 울타리를 세우게 하고, 세 개의 진영을 만들었다. 왼쪽 진영은 조
인이, 오른쪽 진영은 하후연이 맡았으며, 조조는 가운데 진영에 머물
렀다.

다음 날, 조조가 세 진영의 크고 작은 장수들을 이끌고 관문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니, 마침 서량군과 맞닥뜨렸다. 양측은 각자 진형을 갖
추고 대치했다. 조조가 말에 올라타 문 아래에서 서량군을 살펴보니,
병사 하나하나가 용맹하고 기개가 넘치는 영웅들이었다. 또한 마초를
보니 얼굴은 분을 바른 듯 희고 입술은 붉은 연지를 바른 듯했으며, 허
리는 가늘고 어깨는 넓은 데다 목소리는 웅장하고 힘이 넘쳤다. 그는
흰 도포에 은빛 갑옷을 입고 긴 창을 손에 든 채 말 위에 당당히 서 있
었고, 그 위쪽에는 방덕이, 아래쪽에는 마대가 버티고 있었다.

조조는 속으로 감탄하며 말에 올라 마초에게 말했다. "그대는 한나
라 명장(마등)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반역을 꾀하는가?" 마초는 이를
갈며 크게 꾸짖었다. "조조 저 도적놈은 임금을 속이고 하늘을 기만하
니 죽어 마땅하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을 해쳤으니 결코 함께 하늘을

볼 수 없는 원수다! 내가 반드시 너를 생포하여 그 살점을 씹어 먹으리라!"

말을 마치자마자 마초가 창을 곧게 세우고 맹렬히 달려들었다. 조조의 뒤편에서 우금이 마중 나가 두 말이 맞붙어 여덟아홉 합을 겨루었으나, 우금은 패하여 달아났다. 이어 장합이 나와 스무 합을 싸웠지만 역시 패하여 도망쳤다. 이통이 나타나 맞서 싸웠으나, 마초가 기세를 떨치며 몰아붙인 끝에 불과 몇 합 만에 창으로 이통을 말 아래로 찢러 떨어뜨렸다. 마초가 창을 뒤로 휘두르며 신호를 보내자, 서량군이 일제히 돌격해 들어왔다. 조조의 군대는 크게 패했다. 서량군의 기세가 워낙 맹렬하여 좌우의 장수와 부장들이 모두 막아내지 못했다. 마초와 방덕, 마대가 백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조조를 잡기 위해 중군을 향해 곧장 들이닥쳤다.

혼란스러운 군사들 사이에서 조조는 서량군이 "붉은 도포를 입은 자가 조조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조조는 급히 말 위에서 붉은 도포를 벗어 던졌다. 그러자 또다시 "긴 수염을 가진 자가 조조다!"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당황한 조조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신의 수염을 잘라냈다. 이때 군사 중 누군가가 조조가 수염을 잘랐다는 사실을 마초에게 알렸다. 마초는 즉시 사람을 시켜 "수염이 짧은 자가 조조다!"라고 외치게 했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는 깃발 모서리를 끌어당겨 목을 감싸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훗날 누군가 이 일을 두고 시를 지었다.

"동관에서 패해 바람처럼 달아나니, 맹덕은 황급히 비단 도포를 벗었네. 칼로 수염까지 잘라내니 간담이 서늘했으리라, 마초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높구나."

조조가 급히 말을 달려 도망치는데, 뒤에서 기마 한 기가 무섭게 쫓아왔다. 돌아보니 바로 마초였다. 조조가 크게 놀라자, 주변의 장수와 병사들은 마초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조조를 버려둔 채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쳤다. 마초가 매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조조, 거기 서라! 도망가지 마라!" 조조는 너무 놀라 손에 쥐고 있던 채찍을 땅에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마초가 거세게 몰아붙이며 뒤에서 창을 찔러 들어오자, 조조는 나무를 빙빙 돌며 필사적으로 피했다. 마초가 창을 나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가 급히 뽑아냈을 때는 이미 조조가 멀리 달아난 뒤였다. 마초가 말을 달려 다시 추격하려는데, 언덕 너머에서 한 장수가 나타나 크게 외쳤다. "우리 주군을 해치지 마라! 조홍이 여기 있다!" 그 장수는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마초의 앞을 가로막았다. 덕분에 조조는 목숨을 건져 달아날 수 있었다. 조홍과 마초는 마흔에서 쉰 합가량 격렬하게 싸웠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홍의 칼놀림은 흐트러졌고 기력도 점차 떨어졌다. 이때 하후연이 수십 명의 기병을 이끌고 뒤따라 도착했다. 마초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포위당할까 두려워 서둘러 말을 돌려 물러났고, 하후연도 더는 쫓아가지 않았다.

조조가 진영으로 돌아와 보니, 조인이 죽을 힘을 다해 방책을 지켜낸 덕분에 군사들의 손실이 그리 크지 않았다. 조조가 막사에 들어서며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만약 조홍을 죽였다면, 오늘 분명 마초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고는 조홍을 불러 상을 두둑이 내렸다. 조조는 패

배한 군사들을 수습하고 방책을 굳게 지키게 했으며, 도랑을 깊게 파고 성벽을 높이 쌓아 군사들이 함부로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했다. 마초는 매일 군사를 이끌고 진영 앞으로 와서 욕설을 퍼붓고 싸움을 걸었으나, 조조는 군사들에게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며 만약 동요하는 자가 있으면 참형에 처하라고 엄히 일렀다.

장수들이 말했다. "서량군은 모두 긴 창을 사용하니, 반드시 활과 노를 골라 준비하여 맞서야 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말했다. "싸울지 말지는 모두 나에게 달린 일이지, 적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적이 비록 긴 창을 가졌다 한들 어찌 마음대로 찌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그저 성벽을 굳게 지키며 지켜보기만 하면 적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장수들은 모두 뒤에서 몰래 수군거렸다. "승상께서는 늘 전쟁터의 맨 앞에서 싸워 오셨는데, 어찌 마초에게 패하여 이토록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며칠이 지나자 첩자가 보고해 왔다. "마초가 강족 부족을 끌어들이어 2만 명의 병력을 새로 보충해 전투를 돕고 있습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장수들이 물었다. "마초가 병력을 보충했는데,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기뻐하십니까?" 조조가 말했다. "내가 승리한 뒤에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사흘 뒤, 관문 위에 또 군마가 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조조는 다시 크게 기뻐하며 막사 안에서 잔치를 베풀어 축하했다. 장수들은 모두 속으로 비웃었다. 조조가 말했다. "여러 공이 마초를 격파할 계책이 없는 나를 비웃는 듯한데, 혹시 좋은 방책이 있는가?"

서황이 나아가 말했다. "지금 승상께서 이곳에 대군을 배치하고 계시니, 적들도 모두 동관 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서로 돌아가려 한다면 반드시 준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 한 부대를 보내 포반진으로 몰래 건너가 적의 퇴로를 먼저 끊어놓고, 그사이 승상께서 북쪽으로 진격하신다면, 적들은 서로 돕지 못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명철하여 내 뜻과 딱 맞소." 이에 서황에게 정예병 4천 명을 주어 주령과 함께 하서로 가서 산곡에 매복하게 했다. "내가 위하를 건너 북쪽으로 진격할 때 동시에 쳐라." 서황과 주령은 명을 받들어 4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몰래 떠났다.

조조는 명령을 내려 먼저 조홍을 포반진으로 보내 배와 뗏목을 준비하게 했다. 조인은 진영을 지키게 하고, 조조는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위하를 건너기로 했다. 이미 첩자가 마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마초가 말했다. "지금 조조가 동관을 공격하지 않고 배와 뗏목을 준비하는 것은 위하를 건너 나의 뒤를 끊으려는 속셈이다. 나는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북쪽 기슭을 막아야겠다. 조조의 군사가 건너지 못하게 막아두면, 스무 날도 안 되어 강 동쪽의 식량이 떨어져 조조의 군사가 반드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때 강 남쪽을 따라 공격하면 조조를 잡을 수 있다."

한수가 말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네. 병법에 '군사가 강을 건너는 도중에 치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조조의 군사가 강 한가운데를 건널 때 남쪽 기슭에서 공격하면, 조조의 군사는 모두 강 안에서 죽게 될 것이네." 마초가 말했다. "숙부님의 말씀이 매우 옳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사람을 보내 조조가 언제 강을 건널지 살피게 했다.

한편, 조조가 군사를 정비한 뒤 세 군단으로 나누어 위하를 건너려 했다. 군사들이 강 안쪽으로 이르니 막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다. 조조는 먼저 정예병을 보내 북쪽 기슭을 건너게 한 뒤 진영을 구축하게 했다. 조조 자신은 친위 호위병 백 명을 거느리고 칼을 찬 채 남쪽 기슭에 앉아 군사들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달려와 외쳤다. "뒤편에 백포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마초임을 알아보고는 앞다투어 배에 올라탔다. 강가에 서는 배에 먼저 타려는 군사들의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칼을 쥔 채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엄히 명령했다.

그때 사람들의 외침과 말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마초의 군대가 별 때처럼 몰려왔다. 배 위에 있던 한 장수가 땅 위로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적이 왔습니다! 승상께서는 어서 배에서 내리십시오!" 조조가 보니 바로 허저였다. 조조는 속으로 "적이 온들 무엇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마초는 이미 백여 걸음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허저가 조조를 끌어내려 배에 태우려 할 때, 배는 이미 강가에서 한 길 넘게 떠내려가고 있었다. 허저는 조조를 등에 업고 배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뒤따르던 장수와 병사들은 모두 물에 빠져 배 가장자리를 붙잡고 살려달라며 배 위로 올라타려 아우성쳤다. 배가 작아 곧 뒤집힐 판이 되자, 허저는 칼을 뽑아 휘두르며 난폭하게 휘저었다. 배 근처에 매달려 있던 손들이 모두 꺾이며 물속으로 떨어지자, 그는 급히 배를 물 아래쪽으로 저어갔다. 허저는 배 뒷머리에 서서 급히 노를 저어 중심을 잡았고, 조조는 허저의 발치에 었드렸다.

마초가 강가에 도착해 보니 배가 이미 강 한복판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다. 마초는 활을 들어 화살을 먹이고는 용맹한 장수들에게 강을 돌아 배를 쏘라고 명령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허저는 조조가 다칠까 염려되어 왼손으로 말안장을 들어 올려 가렸다. 마초의 화살은 하나도 빗나가는 법이 없어서, 배를 젓던 이들이 화살에 맞아 물로 떨어졌고 배 안의 수십 명도 모두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배는 중심을 잃고 뒤집힐 듯하며 급류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허저는 홀로 신통한 위력을 발휘하여 두 다리로 키를 짝 조여 흔들며 중심을 잡았고, 한 손으로는 노를 저어 배를 지탱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안장을 들어 조조를 보호했다.

한편, 위남현령 정비는 남산 위에 있다가 마초가 조조를 매우 급하게 추격하는 것을 보고, 조조의 목숨이 위험할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그는 진영 안에 있던 소와 말들을 모두 밖으로 몰아 산과 들에 가득하게 만들었다. 서량군 병사들은 이를 보고 모두 몸을 돌려 소와 말을 차지하느라 정신이 팔려 추격을 멈추었고, 덕분에 조조는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조조가 강 북쪽 기슭에 도착하자마자 배와 뗏목을 모두 부숴 버렸다. 장수들이 조조가 강 한복판에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구하러 왔을 때는 이미 조조가 강가에 상륙한 뒤였다. 허저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화살이 갑옷에 박혀 있을 정도였다. 장수들이 조조를 보살피 야영지로 모셔 오자, 모두 땅에 엎드려 문안을 올렸다. 조조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오늘 저 도적 놈들에게 거의 잡힐 뻔했구나!"

허저가 말했다.

"누군가 말과 소를 풀어 적을 유인하지 않았다면, 적들은 분명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왔을 것입니다."

조조가 물었다.

"적을 유인한 자가 누구냐?"

이를 아는 사람이 대답했다.

"위남현령 정비입니다."

잠시 후 정비가 들어와 인사를 올리자 조조가 말했다.

"그대의 좋은 계책이 아니었다면 나는 적에게 사로잡혔을 것이요."

그러고는 정비를 전군교위로 임명했다. 정비가 말했다.

"적들이 잠시 물러갔으나 내일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계책으로 막아야 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이미 준비를 마쳤소."

조조는 곧 장수들을 불러 모아 명령했다.

"각자 나누어 강을 따라 길을 닦고 임시 진영을 구축하라. 적이 올 때를 대비해 길 바깥에는 군사를 배치하고, 길 안쪽에는 깃발만 세워두어 적을 현혹시켜라. 또한 강을 따라 참호를 파고 흙으로 울타리를 만

든 것처럼 꾸며놓되, 강 안에는 병사들을 배치해 적을 유인하라. 적이 급히 달려들다 빠지게 되면, 그때 적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초가 한수에게 돌아가 보고하며 말했다. "조조를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용맹한 장수 한 명이 힘을 다해 조조를 짊어지고 배 아래로 내려갔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한수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조조는 가장 용맹한 자들을 뽑아 장막 앞을 지키는 호위병인 '호위군'을 만들었는데, 용맹한 장수인 전위와 허저가 이를 이끌었다고 하네. 전위는 이미 죽었으니, 이번에 조조를 구한 자는 필시 허저일 것 이네. 그 사람은 힘이 남달라 사람들이 모두 '호치'라고 부르니, 만약 그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적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네." 마초가 말했다. "저도 그 이름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수가 다시 말했다. "지금 조조가 강을 건너고 있으니, 우리 뒤를 습격하기 전에 서둘러 공격해야 하네. 그들이 진영을 구축하게 두어서는 안 되네. 만약 진영을 갖추게 되면 소탕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야." 마초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그저 북쪽 기슭을 굳게 막아 그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인 듯합니다." 한수가 말했다. "조카가 진영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군사를 이끌고 강을 따라 조조와 싸우는 것이 어떻겠는가?" 마초가 대답했다. "방덕을 선봉으로 삼아 숙부님을 모시고 나가십시오."

한편, 한수와 방덕이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위남을 향해 곧장 진격해 왔다. 조조는 길 양옆에 장수들을 배치하여 적을 유인하게 했다. 먼저 방덕이 철기병 1천여 명을 이끌고 돌격해 왔는데, 함성이 터져 나오는 순간 말과 사람이 모두 함정 속으로 빠져버렸다. 방덕은 몸을 날려 구

덩이 밖으로 뛰어오르더니, 평지에 서서 여러 명을 베어 넘기며 걸어서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한수는 이미 적진 한복판에 갇힌 상태였다. 방덕이 걸어서 그를 구하러 가던 중 조인의 부하 장수인 조영과 맞닥뜨렸으나, 방덕이 단칼에 그를 말 아래로 베어 넘기고 말을 빼앗았다. 방덕은 피로 물든 길을 열어 한수를 구해낸 뒤 동남쪽으로 도망쳤다. 뒤쫓아오던 조조의 군사들을 마초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지원하며 조조의 군사를 격파했고, 덕분에 갇혀 있던 군마의 절반 이상을 구해낼 수 있었다. 해가 저물어서야 겨우 군대를 돌린 그들이 인원을 점검해 보니, 장수 정은과 장횡이 전사하고 함정에 빠져 죽은 자가 200여 명에 달했다.

마초가 한수와 상의하며 말했다. "만약 시간이 길어져 조조가 하북에 진영을 견고히 구축하면 적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밤 가벼운 기병을 이끌고 적의 야영지를 습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수가 대답했다. "앞뒤로 군사를 나누어 서로를 구원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마초가 앞장서고 방덕과 마대를 후방 지원으로 삼아 그날 밤 즉시 길을 떠났다.

한편, 조조는 군사를 거두어 위북에 진을 친 뒤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적들이 우리가 아직 진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틈타 반드시 야영지를 습격할 것이다. 그러니 군사들을 사방에 매복시켜 중군을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신호탄이 터지면 매복해 있던 병사

들이 일제히 일어나 적을 한꺼번에 사로잡아야 한다." 장수들이 명을 받들어 매복을 마쳤다. 그날 밤, 마초는 먼저 성이를 보내 기병 서른 명을 이끌고 전초 기지를 정찰하게 했다. 성이가 살펴보니 적의 움직임이 없자 곧장 중군으로 들어갔다. 이때 조조의 군사들이 서량군이 오는 것을 보고 신호포를 쏘았다. 사방에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으나, 겨우 서른 명의 기병만을 포위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성이는 결국 하후연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사이 마초는 뒤쪽에서 방덕, 마대와 함께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벌떼처럼 몰려와 공격해 왔다.

과연 매복한 병사들이 적을 기다린다 한들, 용맹한 장수들이 앞다투어 달려드는 기세를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59회 — 허저가 옷을 벗고 마초와 싸우고, 조조가 글자를 지워 한수를 구하다

許褚裸衣鬥馬超 曹操抹書間韓遂

한편, 그날 밤 두 군대가 뒤엉켜 싸우다 날이 밝아서야 각자 군사를 물렸다. 마초는 위구에 진을 치고 밤낮으로 군사를 나누어 앞뒤로 몰아쳤다. 조조는 위하에 뗏목과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해 세 줄의 부교를 만들어 남쪽 기슭과 이었다. 조인은 강 양옆에 군사를 배치해 진영을 세우고, 군량미와 수레들을 길게 연결해 방어벽으로 삼았다. 마초가 이 소식을 듣고 군사들에게 짚 한 묶음씩과 불씨를 지니게 한 뒤, 한수와 함께 군사를 몰아 진영 앞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쌓아둔 짚더미에 불을 질렀다. 조조의 군사들은 적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진영을 버려둔 채 달아났다. 수레와 부교는 모두 불타 없어졌다. 서량군은 대승을 거두고 위하를 가로막았다. 조조는 다시 진영을 세울 수도 없게 되자 마음속으로 깊이 근심했다. 이때 순유가 말했다. "위하의 모래와 흙을 가져다 토성을 쌓으면 견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조조는 즉시 3만 명의 군사를 뽑아 흙을 날라 성을 쌓게 했다. 하지만 마초가 다시 방덕

과 마대에게 각각 500명의 기병을 주어 수시로 공격해 오니, 성벽은 모래와 흙으로 대충 쌓은 탓에 쌓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조조는 속수무책이었다.

때는 9월 말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붉은 구름이 뻘뻘하게 깔려 며칠째 해가 뜨지 않았다. 조조는 진영 안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 보고했다. "노인 한 분이 승상께 뵙기를 청하며, 방책을 말씀드리고 싶어 합니다." 조조가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니, 그 사람은 학처럼 고고하고 소나무처럼 꼳꼳한 기품을 지녔으며 모습이 매우 고풍스러웠다. 알고 보니 그는 경조 사람으로, 종남산에 은거하며 성은 루이고 자는 자백이며, 도호는 몽매거사였다. 조조가 손님으로서 정중히 대접하자 루자백이 말했다. "승상께서 위하를 건너 진영을 구축하고 오래 머물고자 하시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 성을 쌓지 않으십니까?" 조조가 물었다. "이곳은 모래땅이라 성을 쌓아도 버티지 못할 텐데, 은사께서는 어떤 좋은 방책이 있으신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루자백이 대답했다. "승상께서는 군사를 부리는 솜씨가 신과 같으신데, 어찌 천시를 모르시겠습니까? 연일 먹구름이 뒤덮이고 북풍이 몰아치고 있으니 반드시 크게 얼어붙을 것입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 군사들을 몰아 흙을 운반하게 하고 물을 뿌려가며 쌓으면, 다음 날 아침이 밝을 무렵에는 단단한 토성이 완성될 것입니다."

조조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루자백에게 두둑한 상을 내렸으나, 루자백은 이를 받지 않고 떠났다. 그날 밤, 북풍이 거세게 몰아쳤다. 조조는 병사들을 모두 동원하여 흙을 나르고 물을 뿌리게 했다. 마땅한 물

통이 없자 물을 담을 수 있는 가죽 주머니를 만들어 물을 부었는데, 흙을 쌓으면서 동시에 물을 뿌리고 바로 얼려버리는 방식을 썼다. 날이 밝자 모래와 흙이 단단히 얼어붙어 토성이 완공되어 있었다. 첩자가 이 소식을 마초에게 전하자, 마초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를 보고는 신령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며 크게 놀랐다. 이튿날, 마초가 대군을 모아 북을 울리며 진격해 왔다. 조조는 직접 말을 타고 진영 밖으로 나갔는데, 뒤에는 허저 한 사람만이 따르고 있었다. 조조는 채찍을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나 맹덕이 홀로 말을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 마초는 나와서 대답하라!” 마초가 말을 타고 창을 치켜든 채 달려 나왔다. 조조가 말했다. “네놈은 내가 진영조차 세우지 못하리라 업신여겼으나, 하룻밤 사이에 하늘이 도와 성을 쌓게 하였으니, 어찌하여 어서 항복하지 않느냐!”

마초는 크게 분노하여 앞으로 돌격해 상대를 사로잡으려 했다. 그런데 조조의 뒤편에 눈을 부릅뜬 괴상한 눈을 가진 한 사람이 강철도를 손에 든 채 말을 타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초는 그가 허저일 것이라고 의심하며 채찍을 휘둘러 물었다.

“네 군중에 호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자가 어디 있느냐?”

허저가 칼을 치켜들고 크게 외쳤다.

“내가 바로 초군 출신의 허저다!”

허저의 눈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니 그 위풍이 대단했다. 마초는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돌려 물러났다. 조조 역시 허저를

데리고 진영으로 돌아갔다. 양쪽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 경악했다. 조조가 장수들에게 말했다.

“적들도 중강(허저)이 호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이후 군사들 사이에서 허저는 모두 ‘호후’라 불리게 되었다. 허저가 말했다.

“내일 반드시 마초를 사로잡겠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마초는 용맹하니 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허저가 대답했다.

“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허저는 즉시 도전장을 보내, 호후가 단독으로 마초와 맞붙어 내일 결판을 내자고 했다. 마초는 도전장을 받고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어찌 감히 나를 이토록 속이려 드느냐!”

그러고는 내일 반드시 허저를 죽이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양측 군대는 진영을 갖추고 밖으로 나와 대치했다. 마초는 방덕을 왼쪽 날개로, 마대를 오른쪽 날개로 삼고 한수를 중앙 부대에 배치했다. 마초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진영 앞에 서서 크게 외쳤다.

"허저, 어서 나오너라!"

조조가 막사 아래에서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마초의 용맹이 여포에 못지않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허저가 말을 달려 칼을 휘두르며 나아갔다. 마초 역시 창을 앞세워 맞서 싸웠다. 백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릴 수 없었다. 말들이 지쳐 힘이 빠지자 양측은 각자 군영으로 돌아가 말을 갈아타고 다시 진영 앞으로 나왔다. 또 백 합 넘게 싸웠으나 여전히 승패는 나지 않았다.

성미가 급한 허저가 진영으로 달려가 투구를 벗어 던졌다. 온몸의 근육이 불끈 솟아오른 채 맨몸으로 칼을 들고 다시 말에 올라타 마초와 결전을 벌였다. 양측 군사들이 크게 놀란 가운데, 두 사람은 다시 서른 합 넘게 싸웠다. 허저가 기세를 올리며 칼을 휘둘러 마초를 베려 하자, 마초가 몸을 피하며 창으로 허저의 가슴을 찔러 왔다. 허저는 칼을 버리고 창을 붙잡아 막아냈다. 두 사람은 말 위에서 창을 서로 빼앗으려 다투었다. 허저의 힘이 워낙 강한 탓에 '우지끈' 소리가 나며 창대가 부러졌고, 두 사람은 부러진 창 조각을 각각 한 토막씩 쥐고 말 위에서 난전을 벌였다.

조조는 허저가 위험해질까 걱정되어 하후연과 조홍 두 장수에게 함께 나가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방덕과 마대가 조조의 장수들이 일제히 출격하는 것을 보고, 양 날개의 철기병을 몰아 거칠게 돌진하며 몰살시키듯 몰아쳤다. 조조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허저는 팔에 화살 두대를 맞았다. 장수들이 황급히 진영 안으로 퇴각하는 사이, 마초는 강

가까지 거침없이 진격하여 조조의 군사 태반을 쓰러뜨렸다. 조조는 문을 굳게 닫고 결코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마초가 위구로 돌아와 한수에게 말했다.

"내가 본 싸움꾼 중 허저만 한 이가 없구려. 과연 '호치'라 불릴 만하오!"

한편, 조조는 마초를 계책으로 깨뜨릴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서황과 주령에게 밀명을 내려 강을 건너 진을 치게 한 뒤 앞뒤에서 협공하도록 했다. 어느 날, 조조가 성 위에서 지켜보니 마초가 수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진영 바로 앞까지 달려와 마치 날아다니듯 종횡무진 누비고 있었다. 조조가 한참을 지켜보다가 투구를 땅에 내던지며 말했다. “마초가 죽지 않는다면, 나는 문힐 땅도 없겠구나!” 이 말을 들은 하후연은 화가 치밀어 올라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차라리 이곳에서 죽을 지언정, 반드시 저 마적 놈들을 멸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자기 부대 천여 명을 이끌고 진영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마초를 향해 돌격했다. 조조는 하후연이 잘못될까 두려워 급히 말리려 했으나 소용없었고, 황급히 말에 올라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마초는 조조의 군사가 오는 것을 보고 앞서가던 부대를 후방으로, 후방에 있던 부대를 선봉으로 바꾸어 일렬로 늘어세웠다. 하후연이 도착하자 마초와 맞붙어 난전을 벌였다. 마초는 혼란스러운 군사들 사이로 멀리 조조를 발견하자마자 하후연을 뿌리치고 곧장 조조를 향해 돌진했다. 조조는 깜짝 놀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고, 조조의 군사들은 크게 혼란에 빠졌다.

군사들이 적을 쫓던 그때, 갑자기 조조의 군대 중 한 부대가 이미 하서 지역에 진을 쳤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마초는 크게 놀라 적을 쫓을 마음이 사라졌다. 그는 급히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온 뒤, 한수와 상의하며 말했다. “조조의 군사가 허점을 틈타 하서로 건너왔으니, 우리 군은 앞뒤로 적을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장 이감이 말했다. “차라리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청하여 양측 모두 전쟁을 멈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번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봄이 되어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대책을 세웁시다.” 한수가 말했다. “이감의 말이 가장 좋으니 그대로 따르도록 하세.” 하지만 마초는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양추와 후선도 모두 화친을 권했다. 이에 한수는 양추를 사신으로 보내 조조의 진영으로 가서 땅을 나누어주고 화친을 맺자는 서신을 전했다. 조조가 말했다. “너는 일단 진영으로 돌아가 있거라. 내일 사람을 보내 답을 주겠다.” 양추가 물러가자, 가후가 조조를 찾아와 물었다. “승상,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조조가 되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가후가 대답했다. “전쟁에서는 속임수를 쓰는 것을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거짓으로 허락하는 척한 뒤에 이간질하는 계책을 써서 한수와 마초가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면, 단번에 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조는 손뼉을 치며 크게 기뻐했다. “천하의 높은 식견들이 대개 내 생각과 일치하는구먼. 가후, 그대의 계책이 바로 내가 생각하던 바였네.” 조조는 즉시 사람을 보내 답신을 보냈다. 내용은 이러했다. “내가 천천히 군사를 몰려 너희에게 하서 땅을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교를 놓게 하여 마치 군사를 퇴각시키는 듯한 기색을 내비쳤다. 마초는 서신을 받고 한수에게 말했다. “조조가 비록 화친을 약속했으나, 간사한 영웅의 속내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대비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에게 휘둘리게 될 것입

니다. 저와 숙부님께서 교대로 군사를 배치합니다. 오늘은 숙부님이 조조를 상대하고 제가 서황을 상대하며, 내일은 제가 조조를 상대하고 숙부님이 서황을 상대하는 식으로, 각자 나누어 경계함으로써 그들의 속임수에 대비합니다.”

한수가 계책대로 움직이자, 이 사실을 조조에게 미리 알리는 사람이 있었다. 조조가 가후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일이 다 되었구나!" 이어 "내일은 누가 우리 쪽으로 올 것 같으냐?"라고 묻자, 보고하던 사람이 "한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음 날, 조조가 장수들을 이끌고 진영 밖으로 나서자 좌우로 군사들이 에워쌌다. 그런데 조조가 중앙에서 홀로 말 한 필을 타고 나타나자, 한수의 부하들 중에는 조조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가 많아 모두 진영 밖으로 나와 구경하려 했다. 이를 본 조조가 크게 외쳤다.

"그대들 군사들은 조조를 구경하러 나온 것인가? 나 또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눈이 네 개라거나 입이 두 개인 괴물이 아니라, 그저 지략이 조금 많을 뿐이다!"

모든 군사들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 조조는 사람을 보내 진영 너머에 있는 한수에게 "승상께서 한 장군을 뵈고 답소를 나누고자 하십니다"라고 전했다. 한수는 즉시 진영 밖으로 나갔다. 한수는 조조가 갑옷도 무기조차 갖추지 않은 것을 보고, 자신 또한 의복과 갑옷을 벗어 던진 채 가벼운 차림으로 말에 올라 나갔다. 두 사람은 말머리를 서로 맞댄 채 고삐를 잡고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누었다.

조조가 말했다. "나는 장군의 부친과 함께 효렴(孝廉)으로 추천받아 함께 자랐고, 그분을 삼촌처럼 모시기도 했소. 그대와 함께 관직에 몸담은 지도 어느덧 세월이 꽤 흘렀구려. 장군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한수가 대답했다. "마흔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예전 수도에 있을 때는 모두가 청춘이었는데, 어느덧 중년이 되었다니 참으로 놀랍구려! 어찌하면 천하를 평온하게 만들어 함께 즐길 수 있겠소!"

두 사람은 그저 옛이야기만 상세히 나누었을 뿐, 군사적인 상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마친 조조는 크게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한 시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에야 말을 돌려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이미 누군가가 이 일을 마초에게 보고했다. 마초는 황급히 한수를 찾아가 물었다. "오늘 조조의 진영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한수가 대답했다. "그저 예전 수도의 옛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요." 마초가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 군사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단 말입니까?" 한수가 말했다. "조조가 말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혼자 말을 하겠소?" 마초는 마음속으로 깊이 의심하며 아무 말 없이 물러났다.

한편, 조조가 진영으로 돌아와 가후에게 물었다. "그대는 방금 내가 적진 앞에서 나눈 대화의 뜻을 알아차렸는가?"

가후가 대답했다. "그 뜻도 묘하긴 합니다만, 아직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기에는 부족합니다. 제게 한수와 마초가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게 만들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조가 그 계책을 묻자 가후가 말했다. "마초는 용맹하기만 할 뿐, 기밀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자입니다. 승상께서 직접 편지를 쓰시되, 오직 한수에게만 따로 전달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내용은 글자를 흐릿하게 쓰거나 중간중간 덧칠하여 알아보기 어렵게 고친 뒤, 한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초가 그 사실을 알게끔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초는 반드시 그 편지를 뺏어 읽으려 들 것입니다. 편지를 읽다가 핵심적인 부분이 전부 덧칠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초는 한수가 자신에게 비밀을 들킬까 봐 겁이 나서 내용을 고쳤다고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둘이 대화를 나누던 상황과 맞물려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결국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몰래 한수의 부하 장수들과 내통하여 서로 이간질까지 한다면 마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조가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묘한 계책이로다!"

조조는 즉시 편지 한 통을 써서 중요한 부분은 모조리 덧칠해 고친 뒤 봉인했다. 그리고 일부러 수행원을 여럿 붙여 한수의 진영으로 편지를 보내게 한 뒤, 자신은 편지를 보낸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돌아왔다.

역시나 마초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마초는 의구심이 더욱 커져 곧장 한수를 찾아가 서신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한수가 서신을 건네주자, 마초는 글자가 여기저기 고치고 지워져 엉망이 된 것을 보고 한수에게 물었다.

"서신이 어찌 이리도 고치고 지워져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까?"

한수가 대답했다.

"원래 서신이 그랬다네. 나도 어째서 이런지 모르겠군."

마초가 말했다.

"어떻게 초안을 그대로 남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분명 숙부님께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까 두려워 미리 고치고 지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한수가 말했다.

"설마 조조가 초안을 실수로 봉해서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마초가 말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조조는 워낙 치밀한 사람인데 어찌 실수를 하겠습니까? 저와 숙부님이 힘을 합쳐 적을 물리쳐야 하거늘, 어찌 갑자기 딴 마음을 품으시는 겁니까?"

그러자 한수가 말했다.

"만약 자네가 내 마음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일 내가 진영 앞에서 조조를 불러 세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네가 진영 안에서 튀어나와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게나.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걸세."

마초가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비로소 숙부님의 진심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다.

다음 날, 한수가 후선, 이감, 양흥, 마완, 양추 다섯 장수를 거느리고 진을 쳤다. 마초는 문 그림자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수가 사람을 보내 조조의 진영 앞으로 가서 “한 장군께서 승상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라고 크게 외쳤다. 이에 조조는 조흥에게 기병 수십 명을 이끌고 나가 한수를 만나게 했다. 조흥이 한수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말 위에서 몸을 굽히며 말했다. “어젯밤 승상께서 장군께 전하신 말씀은 결코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말을 마친 조흥은 곧장 말을 돌려 돌아갔다. 이 광경을 본 마초는 크게 분노하여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한수를 찔러 죽이려 했다. 다섯 장수가 앞을 가로막으며 마초를 말려 진영으로 돌아가게 했다. 한수가 말했다. “조카야, 의심하지 마라. 내게는 나쁜 마음이 없다.” 하지만 마초가 어찌 그 말을 믿겠는가. 마초는 원망을 품은 채 자리를 떠났다. 한수가 다섯 장수와 상의하며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느냐?” 양추가 말했다. “마초는 자신의 용맹함만 믿고 늘 주군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설령 조조를 이긴다 해도 어찌 양보하겠습니까?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차라리 몰래 조공에게 투항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훗날 후작의 자리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한수가 말했다. “나는 마등과 형제의 의를 맺었는데, 어찌 배신을 할 수 있겠느냐?” 양추가 다시 말했다. “상황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한수가 물었다. “누가 소식을 전할 수 있겠느냐?” 양추가 대답했다. “제가 가겠습

니다.” 한수는 곧바로 밀서를 써서 양추를 조조의 진영으로 보내 투항 하겠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한수를 서량후로, 양추를 서량태수로 봉하고 나머지 부하들에게도 모두 관직과 작위를 내렸다. 그러면서 오늘 밤 불을 지르는 것을 신호로 삼아 마초를 함께 공격하기로 약속했다. 양추는 절하고 작별한 뒤 물러나 한수를 만나 그 계획을 전했다. “오늘 밤 불을 지르면 안팎에서 동시에 공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수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중군 장막 뒤에 마른 펄감을 쌓아 두게 했고, 다섯 명의 장수에게는 칼과 검을 차고 대기하라 일렀다. 한수는 마초를 연회에 초대해 술잔을 나누는 틈을 타서 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두고 망설이며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마초는 한수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음을 눈치채고, 즉시 친솔 몇 명을 데리고 칼을 뽑아 앞장섰으며, 방덕과 마대에게 뒤를 받치며 따르라고 명령했다. 마초가 한수의 막사로 몰래 잠입하니, 다섯 장수가 한수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양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실행에 옮기십시오!" 마초는 크게 분노하여 칼을 휘두르며 안으로 뛰어들며 호통쳤다. "이 도적놈들이 감히 나를 해치려 들다니!" 모두가 깜짝 놀랐다. 마초가 한수의 얼굴을 향해 칼을 내리치자, 한수가 당황하여 손으로 막으려다 왼손이 잘려 나갔다. 다섯 장수가 일제히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마초는 재빨리 막사 밖으로 몸을 날렸고, 다섯 장수는 그를 에워싸고 몰아붙였다. 마초는 홀로 보검을 휘두르며 다섯 장수를 힘으로 맞대응했다.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선혈이 사방으로 튀었다. 마초는 마완을 베고 양흥

을 찍어 넘어뜨렸으며, 나머지 세 장수는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쳤다. 마초가 다시 한수를 죽이려고 막사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한수가 좌우 호위병들에게 구조되어 떠난 뒤였다. 막사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자 각 진영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초는 급히 말에 올라탔다. 방덕과 마대도 도착하여 서로 뒤섞여 난전을 벌였다. 마초가 군사를 이끌고 탈출하려 할 때 조조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앞에는 허저가, 뒤에는 서황이 있었고, 왼쪽에는 하후연이, 오른쪽에는 조홍이 버티고 있어 서량 군사들은 서로 엉겨 붙어 싸우는 형국이 되었다. 마초는 방덕과 마대를 놓치고 말았으나, 백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위하의 다리 위를 가로막았다.

날이 어렴풋이 밝아올 무렵, 이감이 군사를 이끌고 다리 아래를 지나가자 마초가 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그를 뒤쫓았다. 이감은 창을 끌며 급히 달아났다. 이때 마초의 뒤편에서 우금이 말을 달려 쫓아오며 활을 쏘았다. 마초는 뒤에서 활시위 당기는 소리를 듣고 급히 몸을 피했으나, 그 화살은 오히려 앞에 있던 이감에게 맞았고 이감은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마초가 다시 말을 돌려 우금을 공격하자, 우금은 서둘러 말을 몰아 달아났다. 마초는 다리 위로 돌아와 진을 치고 병사들을 앞뒤로 몰아 공격하게 했으며, 호위군을 앞세워 마초를 향해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 올렸다. 마초가 창으로 화살을 쳐내니 화살들이 땅으로 어지럽게 떨어졌다. 마초는 기병들에게 앞뒤로 돌격하여 적을 살육하라 명했으나, 조조의 군사가 워낙 촘촘하고 견고하게 에워싸고 있어 차마 뚫고 나가지 못했다. 마초가 다리 위에서 크게 호통을 치며 강 북쪽으로 쳐들어갔으나, 그를 따르던 기병들은 모두 끊겨 버렸다. 마초가 홀로 진영 속을 휘저으며 돌격하던 그때, 날아온 암기(弩)에 맞아

타고 있던 말이 쓰러졌다. 마초가 땅바닥으로 떨어지자 조조의 군사들이 그를 잡기 위해 사방에서 압박해 들어왔다.

위급한 상황이 이어지던 그때, 갑자기 북서쪽 모퉁이에서 군사 한 무리가 무섭게 달려들었는데, 바로 龐德와 마대였다. 두 사람이 마초를 구해낸 것이다. 두 장수는 전장의 말들을 잡아 마초와 함께 올라탄 뒤, 몸을 날려 피로 물든 길을 헤치며 북서쪽을 향해 달아났다.

마초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여러 장수에게 명령을 내렸다.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마초를 추격하라. 만약 그의 머리를 베어 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상으로 주고 만호후로 봉하겠다. 생포해 오는 자에게는 대장군을 봉하겠다!"

명령을 받은 장수들은 모두 공을 세우기 위해 앞다투어 군사를 몰아 뒤쫓았다. 마초는 말과 병사들이 지친 것도 돌볼 겨를 없이 오로지 도망치는 데만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함께하던 기병들은 점차 흩어졌고, 보병들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대부분 사로잡히고 말았다. 결국 마초에게 남은 이는 龐德와 마대, 그리고 서른 명 남짓한 기병뿐이었는데, 이들은 隴西와 임조 방향으로 도망쳤다.

조조는 직접 군사를 몰아 안정까지 추격했다. 마초가 멀리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군사를 거두어 장안으로 돌아왔다. 장수들이 모두 집결하자, 한수는 이미 왼손을 잃어 불구가 된 상태였다. 조조는 장안에서 말의 먹이를 먹이며 휴식을 취하게 한 뒤, 한수에게 서량 후라는 직위를 내렸다. 양추와 후선도 모두 열후로 봉하여 위구를 지키게 했다. 그리고 나서 군사를 돌려 허도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양주의 참군인 양부(자는 의산)가 장안으로 직접 찾아와 조조를 알현했다. 조조가 그에게 묻자 양부가 대답했다. “마초는 여포 못지 않은 용맹을 지녔으며, 강족들의 마음을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승상께서 지금 기세를 몰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신다면, 훗날 저들이 힘을 키웠을 때 농서 지역의 여러 군은 다시는 국가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디 승상께서는 군사를 거두지 마시고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조조가 말했다. “본래 군사를 남겨 이들을 정벌하려 했으나, 중원이 어지럽고 남쪽 지방도 아직 평정되지 않아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구려. 그대가 나를 대신해 이곳을 잘 지켜주어야겠소.”

양부는 약속하고, 위강을 서량 자사로 추천하여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기성에 주둔하며 마초를 막기로 했다. 양부가 떠나기 전 조조에게 청하기를, “장안에는 반드시 중병을 남겨 후원군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하니, 조조가 “이미 결정해 두었으니 그대는 안심하고 가시오.”라고 답했다. 양부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자, 장수들이 모두 모여 물었다.

“처음 적이 동관을 점거하고 위북의 길이 끊겼을 때, 승상께서는 하동을 통해 풍익을 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동관을 지키며 시간을 끄시다가 나중에 북쪽으로 강을 건너 진영을 쌓고 견고히 수비하셨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처음 적이 동관을 지키고 있을 때, 만약 내가 곧장 하동으로 갔다면 적은 반드시 각 진영을 나누어 여러 나루터를 지켰을 것이고, 그러면 하서 쪽으로는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병력을 크게 모아 동관 앞에 집결시킴으로써, 적이 모두 남쪽을 지키게 만들어 하서 쪽의 대비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 덕분에 서황과 주령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건너가 수레와 나무 울타리로 길을 만들고 얼음 성을 쌓았다. 이는 적에게 내가 약한 것처럼 보여 그들의 마음을 방심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내가 교묘하게 반간계를 써서 병사들의 힘을 모은 뒤, 단번에 적을 격파한 것이다. 그야말로 '벼락이 귀를 막을 새도 없이 내리친 격'이라 할 수 있지. 병법의 변화라는 것은 결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들이 다시 물었다. “승상께서는 적군이 병력을 늘리고 군사를 더 모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찌하여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십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관중 지역은 변방이라 멀고 험하다. 만약 저 도적떼가 각자 험한 지형을 의지해 흩어져 있다면, 정벌하여 평정하기까지 한두 해로는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한곳으로 모여 있으니, 비록 머릿수는 많을지언정 마음은 하나로 뭉치지 못해 이간질하기가 쉽다. 단번에 멸할 수 있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장수들이 절하며 말했다. “승상의 신묘한 계책은 저희가 미치지 못합니다!”

조조가 말했다. “그대들 문무 장병들의 힘 덕분이다.”

조조는 곧 모든 군사에게 큰 상을 내리고, 하후연을 남겨 장안에 머물며 병력을 주둔하게 했다. 항복해 온 병사들은 각 부대에 나누어 배치했다. 하후연은 풍익 고릉 출신의 장기(자는 덕용)를 추천했는데, 그는 경조윤이 되어 하후연과 함께 장안을 지켰다.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돌아갔다. 헌제가 황제의 가마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가 조조를 맞이했다. 헌제는 조조에게 예법을 갖추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명하였으며, 조정에 들어올 때 서두르지 않고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전각에 오르게 하니, 이는 한나라의 재상 소하의 고사를 따른 것이었다. 이때부터 조조의 위세는 안팎으로 떨쳐졌다.

이 소식이 한중에 전해지자, 한녕 태수 장루는 깜짝 놀라 경계했다. 본래 장루는 패국 풍현 출신이었다. 그의 조상인 장릉이 서천 곡명산에서 도술을 부리는 책을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를 경외했다. 장릉이 죽은 뒤에는 그 아들 장형이 그 뒤를 이었다. 당시 백성들 중 도를 배우려는 자는 쌀 다섯 말을 바쳐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쌀 도둑(미적)’이라 불렀다. 장형이 죽자 장루가 그 가업을 이어받았다.

장루는 한중에 머물며 스스로를 ‘사군’이라 칭했다. 도를 배우러 오는 이들은 모두 ‘귀졸’이라 불렀고, 우두머리는 ‘제주’라 불렀으며, 무리를 많이 거느린 자는 ‘치두대제주’라 불렀다. 이들은 오직 성실과 신의를 최우선으로 삼아 남을 속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병자가 생기면 즉시 제단을 차리고 환자를 정적인 방에 머물게 하여, 스스로의

허물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면전에 고백하게 한 뒤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주관하는 자는 ‘감령제주’라 불렀다.

기도하는 법은 환자의 성명을 적고 죄를 뉘우치는 뜻을 담아 글을 세 통 쓰는데, 이를 ‘삼관수서’라 했다. 한 통은 산 정상에서 태워 하늘에 아뢰고, 한 통은 땅에 묻어 땅에 아뢰며, 나머지 한 통은 물속에 가라앉혀 수관에게 호소했다. 이렇게 하면 병이 씻은 듯이 나았으며, 나은 자는 감사의 뜻으로 쌀 다섯 말을 바쳤다. 또한 의사(義舍)를 세웠는데, 그 안에는 밥과 쌀, 땔감, 고기 등 먹을거리가 모두 갖춰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과하게 가져가는 자는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했다.

그 지역 내에서 법을 어긴 자가 있으면 반드시 세 번은 용서해주고, 그래도 고치지 않을 때 비로소 형을 집행했다. 그곳에는 별도의 관리가 없었으며 모든 일을 제주가 관리했다. 이렇게 한중 땅을 차지하고 버틴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나라는 그곳이 멀어 정벌하기 어렵다고 여겨, 장루를 진남중랑장 겸 한녕 태수로 임명하여 조공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당시 장안에서 조조가 서량 군대를 격파하고 천하에 위세를 떨친다는 소식을 듣자, 장루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상의했다.

“서량의 마등은 죽임을 당했고 마초는 방금 패배했으니, 조조가 반드시 우리 한중을 침략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한녕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거느려 조조를 막아내려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자 참모 염포가 말했다.

“한중의 백성은 십만여 호에 달하고 재물과 식량도 넉넉하며 사방이 험준하여 방어하기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마초가 패하여 서량 사람들이 자오곡을 통해 한중으로 몰려드는 수가 수만 명을 밑돌지 않습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익주의 유장이 어리석고 약하니, 먼저 서천의 마흔한 개 주를 차지하여 기반을 다진 뒤에 왕을 칭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장루는 크게 기뻐하며 동생 장위와 함께 군사를 일으킬 방도를 논의했다. 이 소식은 이미 첩자를 통해 익주 안으로 전해졌다.

한편, 익주의 유장은 자가 계옥으로, 유언의 아들이자 한나라 노공왕의 후손이다. 장제 원화 연간에 경릉으로 봉해진 이후 그 후손들이 이곳에 자리 잡았다. 이후 유언은 익주목의 자리에 올랐으나, 흥평 원년에 종기가 생겨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익주의 대수 조위 등이 힘을 합쳐 유장을 익주목으로 받들었다. 유장은 과거에 장루의 어머니와 동생을 죽인 적이 있어 그와 원수 관계였다. 유장은 장루의 세력을 막기 위해 龐羲를 파서 태수로 임명했다.

한편, 파서 태수 방희가 장루가 군사를 일으켜 익주를 치려 한다는 소식을 알아내고 급히 유장에게 보고했다. 평소 성품이 나약했던 유장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몹시 근심하며 급히 관리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당당하게 나서며 말했다.

"주공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소인이 비록 재주는 부족하나, 이 짧은 혀를 놀려 장루가 감히 서천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과연 축나라에 뛰어난 책사가 나타나 형주 호걸들을 불러들이게 되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자.

제60회 — 장영년이 양수를 논박하고, 방사원이 서촉을 취할 것을 논하다

張永年反難楊修 龐士元議取西蜀

한편, 유장에게 계책을 올린 사람은 익주의 별가인 장송이었다. 그는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코는 뚫뚫하며 치아가 튀어나온 생김새를 가졌는데, 키는 다섯 자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커다란 구리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유장이 물었다. "별가께서 장루의 위협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소?"

장송이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허도의 조조는 중원을 휩쓸어버린 인물입니다. 여포와 원씨 형제도 모두 그에게 멸망당했고, 최근에는 마초마저 격파하여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주공께서 진상할 물건들을 준비해 주시면, 제가 직접 허도로 가서 조조를 설득하겠습니다. 조조가 한중으로 군사를 일으켜 장루를 치게 만든다면, 장루가 적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을 터이니 어찌 감히 다시 익주를 넘보겠습니까?"

유장은 크게 기뻐하며 금과 보석, 비단 등을 진상할 물건으로 챙겨 준 뒤, 장송을 사신으로 보냈다. 장송은 몰래 사천의 지형도를 그려 품 속에 숨긴 채, 기병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허도를 향해 길을 떠났다.

이 소식은 일찍이 형주에 전해졌고, 제갈량은 즉시 사람을 허도로 보내 소식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한편, 장송은 허도에 있는 관역에 머물며 매일 상부로 가서 조조를 만나기를 청했다. 조조는 마초를 격파하고 돌아온 뒤로 기세가 등등하여 매일 연회를 베풀며 지냈고, 별일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모든 국정을 상부에서 논의하고 있었다. 장송이 사흘을 기다린 끝에야 겨우 이름을 알릴 수 있었다. 곁을 지키던 근사들은 먼저 뇌물을 요구한 뒤에야 그를 안으로 인도했다. 조조가 상단에 앉아 있자, 장송이 절을 올렸다. 조조가 물었다. "그대의 주인인 유장은 어찌하여 몇 년째 공물을 보내지 않는 것인가?" 장송이 대답했다. "가는 길이 험하고 도적들이 자꾸 일어나 통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조조가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중원을 깨끗이 평정했는데, 도적이 어디 있단 말이냐?" 장송이 말했다. "남쪽에는 손권이 있고, 북쪽에는 장루가 있으며, 서쪽에는 유비가 있습니다. 그나마 세력이 작은 자들도 갑옷을 입은 군사가 십여 만은 되는데, 어찌 태평성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조는 먼저 장송을 보고 인물이 초라하고 비루하다는 생각에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쳤다. 게다가 장송의 말마저 거침없이 무례하니, 조조는 결국 소매를 뿌리치며 일어나 뒷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곁에 있던 신하들이 장송을 꾸짖으며 말했다.

"그대는 사신으로 왔으면서 어찌 예의를 알지 못하고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가? 다행히 승상께서 그대가 멀리서 온 것을 가엽게 여겨 벌을 내리지 않으셨으니, 어서 빨리 돌아가게나!"

그러자 장송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익주에는 아침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계단 아래에 있던 한 사람이 크게 호통을 쳤다.

"그대들의 익주에 아침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 중원에 어찌 아침하는 자가 없겠는가?"

장송이 그 사람을 살펴보니, 눈매가 가늘고 눈썹이 얇으며 얼굴은 희고 정신이 맑아 보였다. 이름을 물으니 태위 양표의 아들인 양수였는데, 자는 덕조이며 지금은 승상의 문하에서 창고를 관리하는 주부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학식이 넓고 말솜씨가 뛰어나 건문이 남달랐다. 장송은 양수가 말재주가 매우 뛰어난 선비임을 알아보고 일부러 그를 곤란하게 만들 마음을 품었다. 양수 또한 자신의 재능을 믿고 천하의 선비들을 얹잡아보고 있었다. 당시 장송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하는 것을 본 양수는 그를 바깥의 서원으로 불러내어 손님과 주인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히고는 말했다. "축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데,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송이 대답했다. "주군의 명을 받들었으니, 설령 끓는 물에 뛰어들고 불을 밟는 일이라도 감히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수가 다시 물었다. "축의 풍토는 어떠합니까?" 장송이 말했다. "축은 서쪽의 군으로, 옛날부터 익주라 불렸습니다. 길에는 금강의 험준함이 있고, 땅은 검각의 웅장함과 이어져 있지요. 구불구불 도는

길이 이백여덟 정(程)에 이르고, 중형으로 삼만여 리나 됩니다.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고, 저잣거리와 마을이 끊이지 않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여 매년 가뭄이나 홍수를 걱정할 일이 없으며,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풍족하여 때때로 관현의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에서 나는 산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천하의 그 어느 곳도 따를 수 없습니다!"

양수가 다시 물었다. "축의 인물들은 어떠합니까?" 장송이 대답했다. "문(文)에는 사마상여 같은 부(賦)가 있고, 무(武)에는 복파장군 마원 같은 재능이 있습니다. 의술에는 장중경 같은 능력이 있고, 점술에는 엄군평(嚴君平) 같은 은일(隱逸)이 있지요. 구류삼교를 막론하고 그 가운데 무리에서 빼어나고 출중한 인재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니,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양수가 또 물었다. "지금 유계옥(유장)의 수하에 공과 같은 인재가 또 몇 명이나 됩니까?" 장송이 말했다. "문무를 겸비하고 지혜와 용기를 두루 갖춘, 충의롭고 강개한 선비들은 줄잡아 수백 명에 이릅니다. 저처럼 재주 없는 사람들은 수레로 싣고 말로 될 만큼 많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양수가 다시 물었다. "공께서는 요즘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장송이 답했다. "외람되이 별가의 직무를 채우고 있으나 직분에 매우 걸맞지 않습니다. 실례지만 공께서는 조정에서 어떤 관직을 맡고 계신지요?" 양수가 말했다. "지금 승상부의 주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송이 말했다. "공처럼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가문에서 태어난 분이 어찌 조정의 묘당에 서서 천자를 보필하지 않으시고, 고작 승상부 문하의 한낱 관리로 계시는 것입니까?"

양수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며 수치심을 느꼈으나,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비록 낮은 직위에 있지만, 승상께서 군사와 정정, 그리고 군량미를 관리하는 중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승상께 가르침을 받아 깨우침을 얻었기에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송이 비웃으며 말했다. “제가 듣기로 조승상은 유교의 도리를 밝히는 데에도 서툴고, 손자와 오자 같은 병법의 기틀을 깨우치는 데에도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로지 강한 힘으로 천하를 제패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데, 어찌 저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어 깨우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양수가 말했다. “공께서는 변방에 계시면서 승상의 뛰어난 재능을 어찌 아십니까? 제가 직접 보여 드릴 테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양수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상자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장송에게 보여주었다. 장송이 살펴보니 책의 제목은 《맹덕신서》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니 총 열세 편이었는데, 모두 병법의 요체를 담고 있었다.

장송이 책을 다 읽고는 물었다. "이것은 어떤 책입니까?"

양수가 대답했다. "이 책은 승상께서 옛것을 살피고 지금을 기준으로 삼아, 《손자병법》 13편을 본떠 만드신 것입니다. 공께서 승상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과연 이 책이 후세에 전해질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송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책은 우리 축 땅의 세 살 먹은 아이도 암송할 수 있을 정도인데, 어찌 '새로운 책'이라 하겠소? 이것은 전국 시대의 이름 없는 작가가 쓴 것을 조 승상이 훔쳐 제 재능인 양 꾸민 것이니, 그저 발밑의 당신을 속이려 하는 것뿐이오!"

양수가 말했다. "승상께서 비장해 두신 책이라 비록 책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공께서 축 땅의 아이들도 술술 암송한다고 하시니, 어찌 저를 속이려 하십니까?"

장송이 말했다. "공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내가 직접 암송해 보이겠소."

말을 마친 장송은 곧바로 《맹덕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막힘없이 읊었다. 양수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공께서는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으시니, 참으로 천하의 기재이십니다!"

후대에 사람들이 장송을 기리며 시를 지었다.

"기이한 모습에 풍채는 남다르고, 고결한 기품은 흰히 드러나네. 말 한마디에 삼협의 물줄기조차 쏟아지게 하고, 눈길 한 번에 열 줄의 글을 꿰뚫어 보네. 담력은 서촉 땅에서 으뜸이요, 문장은 온 하늘을 관통하네. 백가와 제자들의 모든 학설을 한 번 훑어보고도 남음이 있구나."

장송이 작별을 고하고 물러가려 하자, 양수가 말했다. "잠시 관사에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다시 승상께 말씀드리려 장송 어른께서 승상을 직접 뵈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이 감사를 표하며 물러갔다. 양수가 조조를 찾아가 물었다. "방금 장송을 대하실 때 어찌 그리 소홀히 대하셨습

니까?" 조조가 대답했다. "말투가 예의가 없기에 일부러 무시한 것이다." 양수가 다시 말했다. "승상께서 예전에 예형을 용납하셨던 것처럼, 장송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조가 물었다. "예형은 문장이 널리 알려져 있어 차마 죽이지 못한 것이지만, 장송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이나?" 양수가 말했다. "그의 말솜씨는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막힘이 없습니다. 방금 제가 승상께서 지으신 《맹덕신서》를 보여주었는데, 그는 한 번 훑어보더니 곧바로 암송해 냈습니다. 이토록 박학다식하고 기억력이 뛰어난 이는 세상에 드뭅니다. 장송은 이 책이 전국시대의 이름 없는 이가 지은 것이라며, 익주의 어린아이들도 모두 다 외울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조조가 말했다. "혹시 옛사람이 나와 마음이 통했던 것은 아니겠느냐?" 그러고는 책을 찢어 불태워 버렸다. 양수가 다시 말했다. "이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해주시시오. 그러면 천하의 기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다. "내일 서쪽 연병장에서 군사를 점검할 것이니, 네가 먼저 그를 데려오너라. 우리 군사의 위용을 보여준 뒤, 그가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게 하라. '나는 조만간 강남을 평정하고 곧바로 사천을 치러 갈 것이다'라고 말이다." 양수가 명을 받들었다.

다음 날, 장송은 양수와 함께 서교장에 이르렀다. 조조는 호위 정예병 오만 명을 교장에 배치해 두었는데, 과연 갑옷은 눈부시게 빛나고 의복은 찬란했다. 징과 북소리는 하늘을 뒤흔들 듯 울려 퍼졌고, 창과 칼은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사방팔방으로 부대가 나뉘어 배치되었으며, 깃발이 오색으로 휘날리고 군마와 병사들의 기세가 하늘로 솟구치는 듯했다. 장송은 결눈질로 그 광경을 살펴보았다. 한참 뒤에 조조가 장송을 불러 손가락으로 군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는 축 땅에서

이토록 영웅다운 인물을 본 적이 있는가?" 장송이 대답했다. "우리 측 땅에서는 이런 군사와 병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인의로써 사람을 다스릴 뿐입니다." 조조의 안색이 변하며 장송을 쏘아보았다. 장송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양수는 연신 눈짓으로 장송에게 신호를 보냈다. 조조가 장송에게 말했다. "나는 천하의 쥐새끼 같은 무리들을 지푸라기처럼 여긴다. 내 대군이 가는 곳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함락시킨다. 내 뜻에 따르는 자는 살고,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 그대는 알고 있는가?" 장송이 말했다. "승상께서 군사를 몰고 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기고 반드시 함락시킨다는 사실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양에서 여포를 공격하시던 때, 완성에서 장수와 싸우시던 날, 적벽에서 주량을 만나고 화용도에서 관우를 만나신 일, 동관에서 수염을 자르고 도포를 버리시고, 위수에서 배를 빼앗아 화살을 피하시던 일들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야말로 천하무적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조조가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이 하찮은 선비 놈이 감히 나의 치부를 들춰내다니!" 그러고는 좌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장송을 끌어내 처형하려 했다. 양수가 간언했다. "장송을 죽일 수는 있으나, 그는 촉도를 거쳐 공물을 바치려 온 사람입니다. 만약 그를 죽인다면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조조의 화가 채 가라앉지 않았는데 순욱 또한 간언하니, 그제야 조조는 장송의 죽음만은 면해 주되 어지러이 몽둥이질하여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했다.

장송은 관사로 돌아가 밤을 새워 짐을 챙긴 뒤 성을 나섰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본래 나는 서천의 주현들을 조조에게 바치려 했으나, 어찌 이리 사람을 무시당할 줄 알았겠는가! 처음 유장 앞에 왔을 때 호

기롭게 큰소리를 쳤는데, 오늘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익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겠구나. 듣자하니 형주의 유비는 인의가 멀리까지 펼쳐진 지 오래라니, 차라리 그쪽 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그리하여 장송은 말을 타고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형주 경계를 향해 달려갔다. 영주 경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병 500여 명을 거느린 군마 한 부대가 나타났다. 그 선두에 선 장수는 가벼운 차림으로 말을 몰아 다가와 물었다. "오시는 분이 혹시 장 별가이십니까?"

장송이 "그렇소"라고 답하자, 그 장수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며 말했다. "조운이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송도 말에서 내려 답례하며 물었다. "혹시 상산의 조운 아니시오?"

조운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주군이신 유비의 명을 받들어, 먼 길을 오시는 대부님께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자 조운이 특별히 마중 나왔습니다."

말을 마치자 군사들이 술과 음식을 받들어 올렸고, 장송은 이를 정중히 받았다. 장송은 속으로 '사람들이 유비가 너그럽고 인자하여 손님을 잘 대접한다더니, 과연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조운과 함께 술을 몇 잔 나누어 마신 뒤, 말을 타고 함께 길을 떠났다.

형주 경계에 이르니 마침 날이 저물어 있었다. 먼저 도착한 역참에 다다르니, 역문 밖에는 백여 명의 사람들이 늘어서서 북을 치며 맞이하고 있었다. 한 장수가 말 앞에서 예를 갖추며 말했다. "형님을 모시고

온 명을 받들어, 대부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제가 역참을 깨끗이 청소하여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송은 말에서 내려 관우, 조운과 함께 관사로 들어가 예의를 갖추며 마주 앉았다. 잠시 후 술과 음식이 차려지자, 두 사람은 장송에게 정성껏 권하며 술잔을 나누었다. 밤이 깊어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술자리를 마치고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말을 타고 채 삼오 리도 가지 않았을 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인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바로 유비가 복룡(제갈량)과 봉추(방통)를 데리고 직접 마중을 나온 것이었다. 유비는 멀리서 장송을 보자 일찌감치 먼저 말에서 내려 기다렸고, 장송 역시 황급히 말에서 내려 인사를 건넸다. 유비가 말했다. "대부의 높은 명성은 우레가 귀를 울리듯 익히 들어왔습니다. 구름 낀 산이 멀리 있어 직접 뵈고 가르침을 듣지 못함이 한스러웠는데, 이번에 도성으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이곳에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누추한 고을에 잠시 머물러 주신다면, 오랫동안 품어온 흠모의 정을 나눌 수 있으니 참으로 큰 다행이겠습니다!" 장송은 크게 기뻐하며 말에 올라 고삐를 나란히 하여 성안으로 들어갔다. 관청의 대청에 이르러 서로 예를 갖추고 손님과 주인으로 나누어 차례대로 자리에 앉은 뒤, 연회를 베풀어 정성껏 대접했다.

술을 마시는 동안 유비는 그저 한담만 나눌 뿐, 서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았다. 그러자 장송이 말로 슬쩍 떠보며 말했다. "지금 황숙께서는 형주를 지키고 계시는데, 아직 몇 개의 군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제갈량이 대답했다. "형주는 잠시 동오에서 빌린 땅이라,

동오가 매번 사람을 보내 돌려달라 합니다. 지금 우리 주군께서는 동오의 사위이시기에 잠시 이곳에서 몸을 의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송이 말했다. "동오는 6군 81주를 차지하여 백성은 강성하고 나라는 부유한데도, 그러고도 여전히 만족할 줄을 모른단 말입니까?" 방통이 말했다. "우리 주군께서는 한나라 황실의 황숙이신데도 도리어 주와 군을 차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른 자들은 모두 한나라의 좀도둑들이면서도 제각기 힘을 믿고 땅을 침탈하니, 오직 지혜로운 이들만이 이를 불공평하게 여깁니다." 유비가 말했다. "두 분께서는 그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슨 덕이 있다고 감히 큰 것을 바라겠습니까?" 장송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명공께서는 한나라 황실의 종친이시며, 그 인의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와 군을 차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통을 대신하여 황제의 자리에 오르신다 해도 분에 넘치는 일이 아닙니다." 유비가 손을 모아 사양하며 말했다. "공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가 어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그 후로 유비는 장송을 며칠 동안 머물게 하며 연회를 베풀었으나, 익주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장송이 작별을 고하자 유비는 십 리 밖 장정에서 다시 잔치를 열어 그를 배웅했다. 유비가 술잔을 들어 장송에게 권하며 말했다.

“대부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사흘이나 머물며 담소를 나누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헤어지니, 언제 다시 뵙고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마친 유비는 눈물을 흘렸다. 장송은 속으로 생각했다.

‘유비가 이토록 너그럽고 인재를 아끼니, 어찌 그를 버릴 수 있겠는가? 차라리 솔직히 말하여 서천을 차지하게 하는 편이 낫겠다.’

장송이 이윽고 말했다.

“저 또한 아침저녁으로 유비 곁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당장 갈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형주는 동쪽으로는 손권이 호랑이처럼 자리 잡고 있고, 북쪽으로는 조조가 고래처럼 천하를 삼키려 하니, 결코 오래 머물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유비가 말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 마음 편히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장송이 말했다.

“익주는 지형이 험하고 험준하여 천 리에 걸쳐 기름진 들판이 펼쳐져 있고, 백성은 풍요롭고 국력은 막강합니다. 지혜로운 인재들은 오래전부터 황숙의 덕망을 흠모해 왔습니다. 만약 형주와 양양의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거침없이 진격하신다면, 패업을 이루고 한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제가 어찌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유장 또한 황실의 종친인데, 그가 축 땅에 베푼 은혜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어찌 남의 땅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장송이 말했다. "제가 주인을 팔아 영광을 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명공을 뵈었으니, 감히 제 간과 쓸개를 다 꺼내어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장은 비록 익주라는 땅을 가졌으나 성품이 어둡고 약하여, 어진 이와 유능한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쪽에서는 장로가 끊임없이 침범해 오니 민심이 흩어져, 사람들은 진정한 주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길을 나선 것은 본래 조조에게 항복하려던 것이었으나, 그 역적이 간사한 꾀를 부리며 어진 이들을 업신여기고 선비를 무시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명공을 뵈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명공께서 먼저 서천을 기반으로 삼으신 뒤, 북쪽으로 한중을 차지하고 중원을 거두어 한나라를 바로 세우신다면, 그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명공께서 진정 서천을 취할 뜻이 있으시다면, 저는 기꺼이 미천한 몸을 바쳐 안에서 돕겠습니다. 명공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그대의 깊은 뜻에 진심으로 감동하였소. 하지만 유장은 나와 같은 종친인데, 만약 그를 공격한다면 천하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 두렵소."

장송이 말했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아가면 마땅히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기 위해 힘써야 하며, 무엇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취하지 않으면 남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니,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내가 듣기로 촉나라로 가는 길은 험하고 험하여, 수천 개의 산과 수만 개의 강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이다. 수레는 바퀴가

나란히 가지 못하고 말은 고삐를 이어 가기조차 힘들 정도라는데, 비록 취하고자 한들 어떤 좋은 계책이 있겠소?"

장송은 소매 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 유비에게 건네며 말했다. “명공의 성덕에 깊이 감복하여 감히 이 지도를 올립니다. 이 지도만 보시면 익주의 길목이 어디인지 곧바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가 지도를 살짝 펼쳐보니, 그 위에는 지형과 이동 경로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멀고 가까운 거리와 길의 넓고 좁음은 물론, 산천의 험난한 요충지와 각 고을의 창고에 쌓인 군량미까지 하나하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장송이 말을 이었다. “명공께서는 하루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심복 같은 친구가 둘 있습니다. 바로 법정과 맹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명공을 도울 것입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형주에 도착하면, 그때 속마음을 나누어 의논해 보십시오.” 유비가 포권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푸른 산은 늙지 않고 푸른 물은 영원히 흐르는 법입니다. 훗날 일이 성사되면 반드시 두터운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송이 대답했다. “제가 명군을 만났으니 마땅히 제 진심을 다해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어찌 보답을 바라겠습니까?” 말을 마친 장송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제갈량은 관우 등에게 명하여 장송을 수십 리 밖까지 배웅하게 했다.

장송이 익주로 돌아가 먼저 친구인 법정을 만났다. 법정의 자는 효직이며 우부풍군 사람으로, 현사였던 법진의 아들이다. 장송이 법정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조조는 어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오만한 선비를 싫어하니, 함께 근심을 나눌 수는 있어도 즐거움을 함께할 수는 없소. 나는 이미 익주를 유비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으니, 오직 형님과 함

께 의논하고자 함이오." 법정이 대답했다. "내 생각에 유장은 무능하니, 이미 오래전부터 유비에게 마음이 있었소. 우리의 뜻이 같으니 무엇을 의심하겠소?"

잠시 후 맹달이 도착했다. 맹달의 자는 자경이며 법정과 고향이 같다. 맹달이 들어와 법정과 장송이 은밀히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고 말했다. "두 분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설마 익주를 바치려 하시는 것입니까?" 장송이 말했다. "그렇게 하려 하오. 형님께서 한번 맞춰 보시오. 누구에게 바치려 하겠소?" 맹달이 대답했다. "유비가 아니면 안 되겠군요." 세 사람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법정이 장송에게 물었다. "형님께서 내일 유장을 만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오?" 장송이 말했다. "두 사람을 사신으로 추천하여 형주로 보낼 생각이오." 두 사람이 이에 찬성했다.

다음 날, 장송이 유장을 알현했다. 유장이 물었다. "이번 일은 어떻게 되었소?" 장송이 대답했다. "조조는 한나라의 도적입니다. 천하를 찬탈하려 하니 더불어 말을 섞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이미 서천을 차지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유장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장송이 말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이를 쓰면 장로와 조조가 결코 서천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유장이 물었다. "그게 무슨 계책이오?" 장송이 말했다. "형주의 유비 황숙은 주공과 같은 종친이시며, 인자하고 너그러운 아름다운 품모를 지니셨습니다. 적벽에서 큰 전쟁을 치른 뒤로 조조조차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하물며 장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어찌 사신을 보내 친교를 맺고 그를 외원으로 삼

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조조와 장로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유장이 말했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그럴 마음이 있었소. 누가 사신으로 가는 것이 좋겠소?" 장송이 말했다. "법정과 맹달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이 두 사람이 바로 적임자입니다)." 유장은 즉시 두 사람을 불러 들였다. 그리고 서신 한 통을 써서 법정을 사신으로 삼아 먼저 정을 통하게 하였고, 이어 맹달에게 정예병 오천 명을 거느리게 하여 유비를 서천으로 맞이해 지원군으로 삼도록 했다.

한창 의논하던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얼굴에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는데, 그가 크게 외쳤다. "주공께서 장송의 말을 들으신다면, 마흔한 개의 주와 군은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송은 깜짝 놀랐다. 그를 살펴보니 서량중의 파(巴) 사람으로, 성은 황이요 이름은 권이며 자는 공형인데, 현재 유장 부중의 주부로 있었다. 유장이 물었다. "유비는 나와 같은 종친이라 내가 그와 친교를 맺어 원군으로 삼으려는 것인데, 너는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황권이 대답했다. "소인은 평소 유비가 너그러움으로 사람을 대하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내어, 그 영웅됨에 대적할 자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고, 가까이로는 백성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제갈량과 방통의 지모를 갖추고, 관우·장비·조운·황충·위연을 날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그를 축 땅으로 불러들여 부곡(部曲, 아랫사람)으로 대우한다면, 유비가 어찌 기꺼이 고개를 숙이고 아랫사람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손님의 예로 대우하자니 한 나라에 두 주인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신의 말을 들으신다면 서촉은 태산처럼 평안할 것이나, 신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주공께서는 달걀을 썬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장송이 얼마 전 형주를 지나갔으니, 분명 유비와 함께 모의했을 것입니다. 먼저 장송을 베고 그 뒤에 유비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서천에 더없는 다행일 것입니다." 유장이 물었다. "조조와 장로가 쳐들어오면 무엇으로 막겠느냐?" 황권이 말했다. "국경을 닫고 요새를 봉쇄하며,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시국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유장이 말했다. "적병이 경계를 침범하니 눈썹이 타들어 갈 만큼 급한데, 시국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굵은 계책이다." 결국 유장은 황권의 말을 듣지 않고 법정을 사신으로 보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 가로막으며 외쳤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유장이 그를 보니, 장막 앞에서 모시는 종사관 왕루(王累)였다. 왕루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주공께서 지금 장송의 말을 들으신다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유장이 말했다. "그렇지 않다. 내가 유비와 친교를 맺으려는 것은 진정으로 장로를 막기 위함이다." 왕루가 말했다. "장로가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옴이나 버짐 같은 가벼운 병에 불과하지만, 유비가 서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심복(心腹)의 큰 우환입니다. 더구나 유비는 세상에 이름난 효옹으로, 처음에 조조를 섬기다가 곧 그를 해칠 궁리를 했고, 나중에 손권을 따르다가 곧 형주를 빼앗았습니다. 마음 씩씩이가 이러한데 어찌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그를 불러들인다면 서천은 끝장입니다!" 유장이 꾸짖었다. "다시는 헛소리하지 마라! 유비는 나와 같은 종친인데, 그가 어찌 내 기업을 빼앗으려 하겠느냐?"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을 부축해 내보내게 했다. 이어 법정을 즉시 출발시키라는 명을 내렸다. 법정은 익주를 떠나 곧장 형주로 가서 유비를 만났다. 참배를 마친 법정이

서신을 올렸고, 유비가 봉투를 뜯어 살펴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종제(族弟) 유장은 종형(宗兄)이신 현덕 장군 휘하에 두 번 절하고 글을 올립니다. 오래도록 위엄을 우러러왔으나 축도가 험하여 미처 공물을 갖추어 바치지 못하니 송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듣기로 '길흉을 서로 구원하고 환난을 서로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벗 사이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종족 사이야 어떻겠습니까? 지금 북쪽의 장로가 아침저녁으로 군사를 일으켜 저의 경계를 침범하니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삼가 짧은 글을 올리니 부디 굽어살피 주십시오. 만약 종친의 정을 생각하시고 형제의 의리를 온전히 하시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저 미친 도적을 소탕해 주신다면, 영원히 입술과 이 같은 사이가 되어 마땅히 두터이 보답하겠습니다. 글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 오로지 거기(車騎)를 기다리겠습니다."

유비는 이야기를 다 듣고 크게 기뻐하며 법정을 위해 연회를 베풀어 대접했다. 술이 몇 차례 돌아 유비는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 뒤, 법정에게 은밀히 말했다. "효직의 영명함은 오래전부터 우러러왔고, 장 별가(장송)도 장군의 높은 덕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직접 가르침을 들으니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 매우 위안이 됩니다." 법정이 사례하며 말했다. "축중의 작은 관리일 뿐인데 무엇이 입에 담을 만하겠습니까? 듣건대 말은 백락을 만나야 울고, 사람은 지기를 만나야 그를 위해 죽는다고 합니다. 장 별가가 예전에 했던 말에 장군께서도 뜻이 있으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이 몸은 한낱 떠도는 객으로, 일찍이 가슴 아파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생각하기를, 뱀새도 오히려 나뭇가지 하나에 깃들고 교활한 토끼도 굴을 셋이나 파둔다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축중의 풍요로운 땅을 취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나, 유계옥이 저와 같은 종친이라 차마 도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정이 말했다. "익주는 천부지국이니 난세를 다스릴 만한 주인이 아니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계옥은 어진 이를 쓸 줄 모르니, 이 기업은 머지않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장군께 맡기는 것이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토끼를 쫓을 때는 먼저 잡는 자가 임자'라는 말도 듣지 못하십니까? 장군께서 취하고자 하신다면 저는 죽기로 힘쓰겠습니다." 유비가 두 손을 모아 사례하며 말했다. "좀 더 의논해 봅시다."

연회가 끝나자 제갈량이 직접 법정을 숙소까지 배웅했다. 유비는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때 방통이 다가와 말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공께서는 이토록 명석하신데 어찌하여 그리 의심이 많으십니까?"

유비가 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방통이 대답했다.

"형주 동쪽에는 손권이 있고 북쪽에는 조조가 있어 뜻을 펼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익주는 인구가 백만이며 선비들이 많고 재물도 풍부하니, 대업을 이루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 마침 장송과 법정이 안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니 이는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며 망설이십니까?"

유비가 말했다. "지금 나와 물과 불처럼 맞서는 자는 조조다. 조조가 급하게 하면 나는 느그럽게 하고, 조조가 포악하게 하면 나는 어질게 하며, 조조가 속임수를 쓰면 나는 충성으로 하여, 매번 조조와 반대로 해야만 일을 이룰 수 있다. 만약 작은 이익 때문에 천하에 큰 의리를 잃는다면,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자 방통이 웃으며 말했다. "주공의 말씀이 비록 천리(天理)에는 부합하나, 난리의 때를 당하여 군사를 써서 강함을 다투는 데에는 본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해진 도리만 고집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니, 마땅히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해야 합니다. 또한 약한 나라를 병합하고 어리석은 나라를 치며, 거슬러 취하고 순리로 지키는 것은 탕왕과 무왕의 도리입니다. 일이 안정된 뒤에 의리로 보답하여 큰 나라에 봉한다면, 어찌 신의를 저버린 것이겠습니까? 오늘 취하지 않으면 결국 남에게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부디 깊이 생각하십시오." 유비는 그제야 깨달은 듯 말했다. "금석 같은 말씀이니 가슴 깊이 새기겠소." 이에 곧 제갈량을 청하여 함께 의논한 끝에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가기로 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형주는 중요한 땅이니 반드시 군사를 나누어 지켜야 합니다." 유비가 말했다. "나는 방통·황충·위연과 함께 서천으로 가겠소. 군사(軍師)께서는 관운장·장익덕·조자룡과 함께 형주를 지켜주시오." 제갈량이 승낙했다. 이에 제갈량이 형주 전체를 총괄하여 지키고, 관우는 양양으로 통하는 요로를 막아 청니 애구(隘口)를 맡았으며, 장비는 네 군을 거느리고 강을 순찰하게 했고, 조운은 강릉에 주둔하며 공안(公安)을 진수하게 했다. 유비는 황충을 선봉으로, 위연을 후군으로 삼았다. 유비는 스스로 유봉·관평과 함께 중군에 자리하고 방통을 군사로 삼아, 기병과 보병 오만 명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나려 할 때, 갑자기 요화가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 항복해 왔다. 유비는 요화에게 관우를 보좌하여 조조를 막아내라고 명했다. 그 해 겨울,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서천을 향해 진격했다. 얼마 가지 않아 맹달이 찾아와 유비에게 절하며 말했다. "익주의 유장 주군께서 군사 오천을 거느리고 멀리서 마중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유비는 사람을 익주로 보내 먼저 유장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다. 유장은 즉시 글을 보내 가는 길에 있는 여러 주와 군에 통보하여 군량과 물자를 보급하도록 했다. 유장은 직접 부성까지 나가 유비를 맞이하고자 했기에, 수레와 천막, 깃발과 갑옷 등을 준비하여 아주 화려하고 위엄 있게 꾸미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주부 황권이 들어와 간언했다. "주군, 이번에 유비를 맞이하려 가시면 반드시 그에게 해를 입을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군을 모셔 왔으나, 주군께서 다른 이의 간계에 빠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으니 부디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그러자 장송이 말했다. "황권의 저 말은 종족 간의 의리를 저버리고 도적의 기세만 키워주는 것이니, 주군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장이 황권을 꾸짖으며 말했다.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거늘, 네가 어찌 내 뜻을 거스르느냐!" 황권은 머리를 조아리며 피를 흘렸고, 유장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간절히 간언했다. 유장이 크게 화를 내며 옷을 잡아당겨 일어나자, 황권이 끝까지 놓지 않는 바람에 앞니 두 개가 빠지고 말았다. 유장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호통을 쳐 황권을 밖으로 밀쳐내자, 황권은 크게 울며 돌아갔다.

유장이 떠나려 하자, 한 사람이 소리치며 가로막았다. "주공께서 황공형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스스로 죽을 자리로 나아가려 하십니까?" 그는 계단 앞에 엎드려 간언했다. 유장이 그를 살펴보니, 건녕(建寧) 유원(俞元) 사람으로 성은 이(李)요 이름은 회(恢)였다. 이회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언했다. "삼가 듣건대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고, 아비에게는 간쟁하는 자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황공형의 충의로운 말은 반드시 따르셔야 합니다. 만약 유비를 서천으로 불러들인다면, 이는 호랑이를 문 안으로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장이 말했다. "유비는 나의 종형(宗兄)인데 어찌 나를 해치겠느냐? 다시 말하는 자는 반드시 베리라!" 그러고는 좌우에 명하여 이회를 끌어내게 했다. 장송이 말했다. "지금 촉중의 문관들은 저마다 처자식만 돌보느라 더 이상 주공을 위해 힘쓰지 않고, 여러 장수들은 공을 믿고 교만해져 저마다 탄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유비 황숙을 얻지 못한다면 적은 밖에서 공격하고 백성은 안에서 들고일어날 것이니, 이는 반드시 패망할 길입니다." 유장이 말했다. "공의 계책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하구려."

다음 날, 유장이 말을 타고 유교문을 나섰다. 그때 사람들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종사 왕累累가 밧줄을 이용해 성문에 매달려 자결했습니다. 한 손에는 간언하는 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든 채, '간언을 듣지 않으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외치며 스스로 밧줄을 끊어 이곳에 부딪혀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유장이 그가 들고 있던 간언문을 가져와 읽어보니 내용은 이러했다.

"익주의 종사인 신 왕累累가 피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려 아뢰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지

만 행실에는 이롭다'라고 들었습니다. 옛날 초나라 회왕이 굴원의 말을 듣지 않고 무관에서 맹약을 맺었다가 진나라 군사에게 갇히고 말았습니다. 지금 주공께서 큰 고을을 가볍게 여기고 유비를 부성으로 맞이하려 하시니, 이는 나아갈 길은 있어도 돌아올 길은 없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장송을 처단하여 유비와의 약속을 끊어버린다면, 익주의 노약자들이 다행을 누릴 것이요 주공의 가업 또한 보전될 것입니다!"

유장이 글을 다 읽고는 크게 노하며 외쳤다. "나는 인자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마치 귀한 난초를 대하는 것처럼 여겼거늘,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모욕한단 말이냐!" 그러자 왕릉가 크게 소리를 한 번 지르더니, 스스로 묶여 있던 밧줄을 끊고 성문에 매달려 머리를 부딪쳐 죽고 말았다. 후대의 사람들이 시를 지어 그를 탄식하며 이르기를, "성문에 거꾸로 매달려 간언하는 글을 올리며, 오직 죽음으로써 유장에게 보답했구나. 황권은 이가 부러지면서도 결국 유비에게 항복했으니, 그 절개가 왕릉의 강직함만 하겠는가!"

유장은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부성으로 향했다. 후방 부대는 유비를 맞이하기 위해 군량과 돈, 비단 등 보급품을 실은 수레 1,000여 대를 몰고 뒤따랐다. 한편, 유비의 전방 부대는 이미 숙저에 도착해 있었다. 유비의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물건을 뺏는 일이 없었던 것은, 첫째로 서천 지역의 보급 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유비가 명령을 매우 엄격하게 내려 백성의 물건을 함부로 취하는 자는 즉시 참형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단 한 점의 물건도 빼앗기지 않았다. 백성들은 노인과

아이의 손을 잡고 길가에 가득 모여 유비를 우러러보며, 향을 피워 올리고 절을 하며 환영했다. 유비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로 일일이 위로하며 정중히 대했다.

한편, 법정이 방통에게 은밀히 말했다. "최근 장송이 이곳으로 비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부성에서 유장과 만나면 곧바로 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방통이 말했다. "그 뜻을 지금은 입 밖에 내지 마시오. 두 유공(유비와 유장)이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틈을 타 도모합시다. 만약 미리 새어나가면 그 사이에 변고가 생길 것이오." 법정은 그리하여 비밀에 부치고 말하지 않았다. 부성은 성도에서 36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유장이 이미 도착하여 사람을 보내 유비를 맞이했다. 양측 군대는 모두 부강가에 진을 쳤다. 유비가 성에 들어가 유장을 만나니, 두 사람은 서로 형제의 정을 나누었다. 예를 마친 뒤에는 서로 눈물을 흘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연회를 마친 뒤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유장이 관리들에게 말했다.

"황권이나 왕累累 같은 자들이 장송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의심하니 참으로 가소롭구나. 내가 오늘 직접 보니 장송은 참으로 인의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를 외용으로 얻는다면 조조나 장루 따위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장송을 얻지 못했다면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하였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초록색 도포를 벗고 황금 500냥을 챙겨 사람을 보내 성도에 있는 장송에게 하사하게 했다. 이때 유장의 부하 장수들인 유궐, 냉포, 장임, 등현 등이 문무 관원들과 함께 말했다.

"주공,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유비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속에는 강단이 있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 여전히 경계해야 합니다."

유장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너무 생각이 많구나. 장송이 어찌 두 마음을 품겠느냐!"

모두가 탄식하며 물러갔다.

한편, 유비가 진영으로 돌아왔다. 방통이 유비를 찾아와 말했다.

"주공, 오늘 연회석에서 유장이 움직이는 기색을 보셨습니까?"

유비가 대답했다.

"유장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라네."

그러자 방통이 말을 이었다.

"유장이 아무리 선량하다 해도, 그 신하인 유규나 장임 같은 자들은 모두 불만이 가득한 기색입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일 다시 연회를 열어 유장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연회장 벽 뒤에 칼과 도끼를 든 무사 백 명을 매복시켜 두었다가, 주공께서 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연회석에 있는 자들을 몰살

하는 겁니다. 그 기세로 단숨에 성도로 몰려든다면, 칼을 뽑을 필요도 없고 활시위를 당길 필요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비가 말했다.

"유장은 나와 같은 종친이며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네. 게다가 내가 이제 막 촉 땅에 들어와 아직 은혜와 신의를 세우지도 못했는데, 만약 이런 일을 벌인다면 하늘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 또한 원망할 것이네. 자네의 이 계책은 비록 패도를 걷는 자라 할지라도 행하지 않을 것이네."

방통이 말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계책이 아닙니다. 법정이 효직에게서 받은 비밀 편지에 적힌 내용입니다. 일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니, 빠를수록 좋다고 하더군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법정이 들어와 말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명을 따르려는 것입니다." 유비가 대답했다. "유장은 나와 같은 종친이니, 차마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네." 법정이 말했다. "명공,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장로는 촉(유장)과 어미를 죽인 원수지간이니 반드시 쳐들어와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명공께서는 먼 산천을 건너고 군마를 몰아 이미 이 땅에 이르셨습니다. 나아가면 공을 세우는 것이요, 물러나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만약 여우처럼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시일을 끌다 보면 크게 계책을 그르치게 됩니다. 게다가 계책이 한번 새어

나가면 도리어 남에게 당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하늘이 주고 인심이 따르는 이때를 틈타, 적이 예상치 못한 사이에 일찌감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상책입니다." 방통 역시 거듭 권했다. 이를 두고 이르기를, 사람이 세상을 살며 두터운 도리를 지킨 적이 몇 번이던가, 재능 있는 신하는 한결같이 권모를 올리는구나. 유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를 보면 풀릴 것이다.